

해인사 희랑대 보광 스님
지금 이곳이 '수행처'
사바세계가 '극락정토'
봉축 법문 B5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4월 6일) · 주간

제940호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조심스럽게 하라.



오늘은 꽃비 내리는 날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5월11일 종각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회향한마당에 참가해 축제의 한마당을 즐겼다. 정유탁 · 여현아 씨의 사회로 진행된 회향한마당에서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설법 때 내리는 아름다운 꽃비를 맞으며 강강술래, 대중율동 등 신명나는 대동놀이로 하나가 됐다. **박재완 기자**

산사서 마음 달래는 청소년 늘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 청소년 급증

전체 연인원 감소에도
10대 참가자만 70% 증가

학교 폭력 · 중독 치유위한
관계기관 협약 이어져
사회 공헌기관 면모 '우뚝'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이제는 학업 경쟁과 사회 병폐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치유 공간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문화사업단)이 집계한 템플스테이 참가자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2년 템플스테이 사찰 연인원은 41만 9000여 명으로 2011년에 비해 14.3%가 줄었지만 10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참가율은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템플스테이를 찾은 청소년은 29,258명으로 2011년 17,226명보다 크게 늘었다. 학교 교류를 이유로 참가한 인원도 2011년 7,509명에서 2012년 9,629명으로 28%가 증가했다. 직업군 중 학생(대학생 제외) 참가는 2012년 27,731명으로 2011년 대비 87%가 급증했다.

올해 연인원을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10대가 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 50대가 18%, 20대가 15%로 뒤를 이었다. 직업군에 있어서도 학생 참가가 34%에 달했으며, 회사원이 20%, 주부는 18% 등의 비율을 보였다.

최근 템플스테이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힐링의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경찰서와 템플스테이 사찰 간의 업무협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지난 3월 14일 양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비행청소년 선도와 범죄 피해자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도 지난해 5월 3일 홍성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해 경찰서, 서귀포 경찰서, 인천동부교육청들은 정기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이미 템플스테이는 구미 도리사(주지 묘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도리사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 정책제안 공모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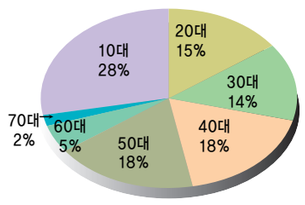
당시 공모전 우수사례로는 학교 30개교, 일반단체 10곳이 선정됐으며, 종교단체 유일하게 구미 도리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런 노력들이 지친 청소년들을 템플스테이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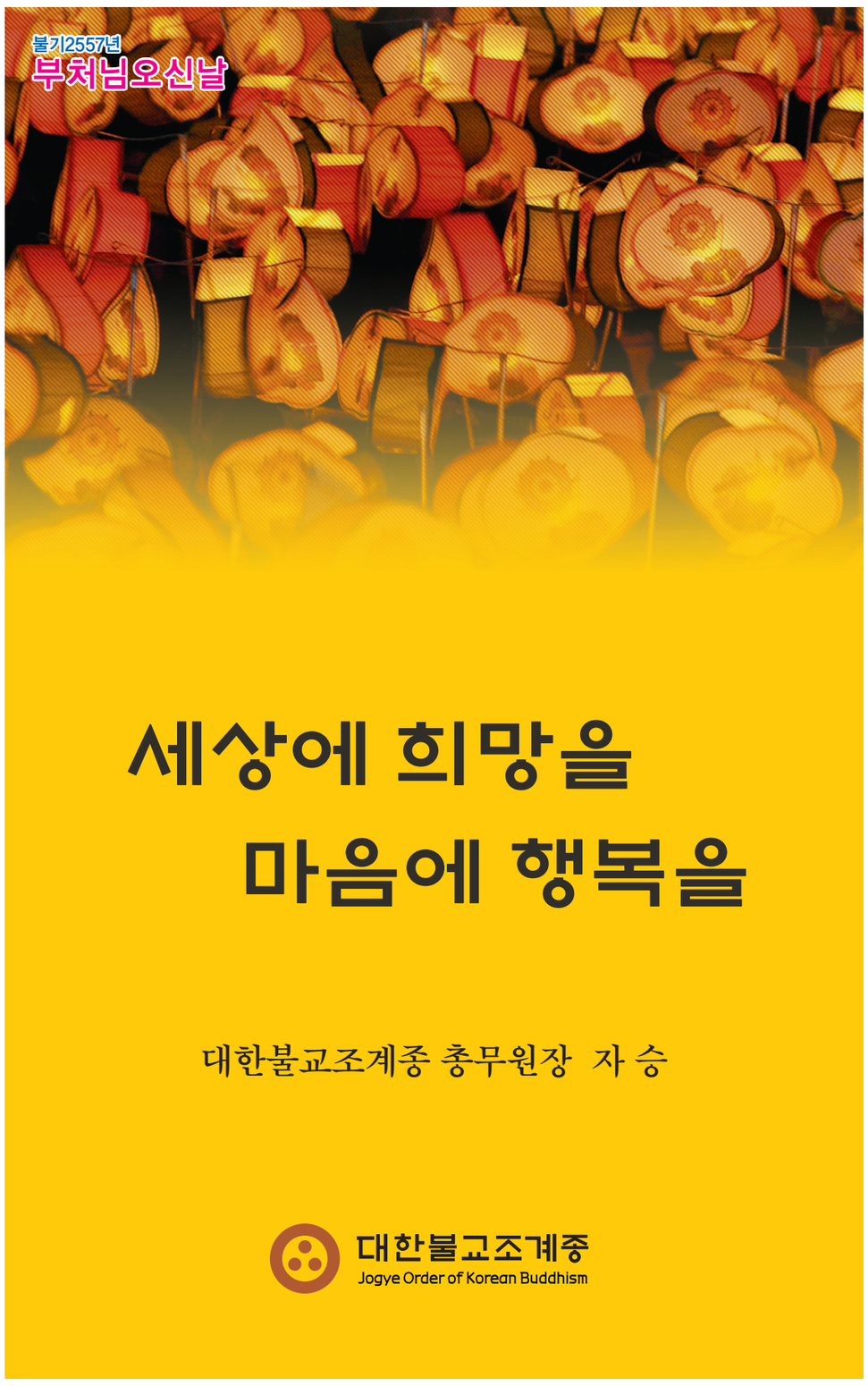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가족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및 청소년 유치를 위한 교육청 연계사업을 통해 청소년 참가자 확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템플스테이가 학교폭력,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등에 시달리는 중고교생들의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청소년 템플스테이 참가 변동 추이

항목	2012년	2011년	증감
연령-10대	29,258명	17,226명	70%
정보습득-학교교류	9,629명	7,509명	28%
직업-학생	27,731명	14,858명	87%



연령별 참가자 현황



신규 총림 방장 추천 잇달아

동화사-진제 스님, 쌍계사-고산 스님 추천



진제 스님



고산 스님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총림 방장 스님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 스님)는 5월 2일 산중총회를 열어 총림 초대방장에 진제 스님을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진제 스님은 이날 "산승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부처님의 심법을 생활 속에서 수행해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성조)는 5월 7일 경내 설선당에서 방장 후보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을 쌍계총림 초대방장으로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쌍계사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69명 중 38명이 참석했다.

진제 스님과 고산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 추대 결정 이후 각각 총림 방장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웃종교,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 연이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웃종교들의 축하 방문과 메시지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는 5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봉축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불교계가 매년 성탄절을 축하해주는 것이나 오늘같이 기독교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해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목사는 "불교가 포용력이 좋아서 작년 연말 조계사에서 트리 점등식을 하는 등 종교간 화합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준다"며 "연등회에 개신교도 참석해 종교를 떠난 축제일로 삼아야겠다. 체험을 중시하는 서양 교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5월 10일 경북 김천 직지사(주지 흥선)를 찾아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발표한 경축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주교는 설법전에 모인 경내 대중 100여 명에게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 '부처님오신날 경축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총림법 개정위한 중앙종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6월 25일 개최 결의

총림법 개정과 방장 추대 등의 안건을 다루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5월 9일 제7차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94회 임시회를 오는 6월 25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6월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안, 방장 추대의 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총림법 개정을 놓고 이견 차를 보인 선원 수좌들과의 합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9명과 수좌 대표 스님 20여 명이 5월 8일 봉암사에서 총림법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논란이 됐던 방장 자격요건은 '20안건 이상 성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본사주지 선출은 임회가 복수 추천하면 방장이 지명하되 1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개회 전날일 6월 24일 오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초청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위법 인정

행정법원 의견서 내놔…3차 변론에 영향 예상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도로 점용은 위법행위이며 사랑의교회 재건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허가 무효소송'과 관련, 법리 해석에 대한 의견을 서울행정법원전문위원들에게 물었고 최근 의견서가 송부됐다"고 밝혔다.

전문위원들은 의견서에서 "도로 장기 점용은 위법행위"라며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립함으로써 도로 지하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사랑의 교회 주민소송 3차 변론일은 5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이번 의견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숙 기자**



탑으로 나툰 '영원한 법등'

대행 선사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

A 20 · 21

2013년 봉축 특집호 INDEX

A 특집1 · 어린이 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 3~6
어린이 포교 위기인가
어린이 법회 어제와 오늘
어린이 법회 · 단체 모범 사례
어린이 포교 발전 방안은

특집 · 틱낫한 방한 지상중계 11

화엄만다라 – 김안과 손경수 · 김용란 16~17

B 특집2 · 한국불교 '여성시대'를 준비하자 1~3
한국불교 그리고 여성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 & 여성 신행 현장
한국 여성불교가 나아갈 길

봉축 법문 – 해인사 희랑대 회주 보광 스님 5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 20

출가 4형제 & 예비 사미 21

수행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 25

부처님오신날 맞아 자비·보시행 '훈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보시의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은 5월 5일 동국대에 "젊은 불자 양성에 써달라"며 6억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지난 4월 말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모교인 동국대에 100억원의 기부금을 내놨다는 소식을 본지를 통해 접했다. 본지를 보며 내내 큰 환희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 스님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6억 원을 대학에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곧바로 학교 계좌로 송금했다.

스님의 기부가 감동적인 것은 스님이 '4無' 생활로 청빈한 삶을 살며 정재를 모았기 때문이다. '4無'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 등 현대인들의 필수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스님은 40대 후반 늦깍기로 출가하며 부처님 시주돈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작은 서원을 세웠다. 현응 스님은 승복도 출가 당시 얻은 것을 그대로 입고 있다. 스님의 승복은 30년 동안 기워 누더기가 된 상태다.

현응 스님은 "출가수행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입각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누더기 현응 스님, 동국대 6억 기부
수좌회는 아이들 위해 5억 쾌척
이화불교사, 10만 어린이 단주 보시

선방 수좌 스님들의 나눔 동참도 이어졌다. 조계종 선원수좌회는 5월 2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쾌척했다. 당초 선원수좌회는 선방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선서화전을 열고 기금을 모았다. 선서화전 이후 수좌스님들은 노후복지 외에도 사회기여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수익금 중 일부를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소외계층 돕기를 위해 전달했다.



전재산을 기부한 현응 스님(왼쪽 사진)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5억원을 기부한 선원수좌회 스님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각 사찰에서도 동참이 이어졌다. 양양 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이 5월 8일 아름다운 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어르신 경로잔치에 써달라"며 38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 앞 불교용품점 이화불교사 박용근 대표는 5월 8일 조계종 총무원에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사용할 단주 10만 개를 보시하기도 했다. 또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승가원에는 불교계 유치원인 옥련유치원 등에서 동년배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연꽃 저금통이 전달되는 등 자비보시 행이 활발히 전개됐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자승 스님, 본지 캠페인 동참

8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도서 구입 기금 지정기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포교원과 본지 공동 캠페인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에 수희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포교원과 본지에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도서 구입 기금을 지정 기탁했다.

전달식 후 자승 스님은 "교계 언론도 어려운 시기인데 어린이 포교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서 감사하다"며 "어린이 포교는 한국불교계가 신경써야 할 숙제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불서를 접하고 부처님 법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사서실장 심경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과 김주일 본지 편집부장, 서춘건 관리부장이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9일 본지와 포교원의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하자' 공동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재완 기자

"한반도 평화에 전세계인 마음 모으자"

조계종, 주한대사 만찬 성료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한 참전국 대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5월 8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 및 외교사절을 초청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일면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과 앤드류 스캇 영국 대사, 요르그 알 레딩 스위스 대사 등 외교사절 30명,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2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스님들과 주한외교사절들이 진관사에서 차와 사찰음식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다.

자승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전쟁의 희생자 모두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러한 안타까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국가들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전행사 후 참석자들은 진관사 주최 하에 경내 함월당으로 이동해 전통사찰음식으로 만찬을 즐겼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청정 · 개혁성 겸비해야"

연대회의, 9일 '차기 총무원장 선거 위한 기자회견'

올 하반기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사부대중연대회의(공동대표 이수덕, 만초, 서동석, 최연)가 총무원장의 자격요건을 발표하고 종단 쇄신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민중불교동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로 구성된 사부대중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월 9일 서울 장충동 만해 NGO센터에서 '승가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올해 있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은 청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선거제도, 정책 등 의견을 수렴해 쇄신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 최연 대표는 "승가의 청정성 회복을 위해 출가자, 재가자가 함께 행동에 나선만큼 큰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그동안 활동성과를 담아 〈네바퀴로 굴러가는 불교의 미래〉를 펴냈다.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위주로 승가 뿐 아니라 불자의 실천 지침까지 담은 이 책은 조만간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배현진 수습기자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 박범훈·김의정·대불련

5월 17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박범훈


김의정

조계종 불자대상 올해 수상자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의정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불기2557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의정 前 중앙신도회 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단체)를 선정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박범훈 前 수석은 중앙대 총장, 국립관현악단 초대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불교음악을 통해 한국적인 관현악을 발전시켜 왔다. 김 前 회장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3, 24대 회장을 역임하며 신도조직 활성화에 크게 공헌 했다.

또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963년 창립돼 불교의 사회참여 확산에 공헌했다. 한편,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7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봉

(宗)世界 佛教 宗團 聯合會

WBOA (Association of wold Buddist oder)

축

총재 映空 道成

회장 弘山 玄佛

佛教國 各 會圓 一同

2013년 9월중순경 지구촌 평화 공영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참을 희망하는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사무실 : 충북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 광덕사 TEL : 041)584-4153 / FAX : 041)585-4153 회장 H · P : 010-6478-1569

“나도 부처님 될래요”… 부처님오신날의 ‘동심 불심’



조계종 포교원 · 본지 어린이불서 150권 선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5월 4일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에서 제4회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단법인 동련의 경기남부지구와 청계사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수원 용주사, 김포 금정사 등 9개 사찰 300여 명이 참여했다.

연꽃문화축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내 마음 속 부처님’. 참가한 학생들은 연등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불자로서의 꿈을 키웠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본지는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보냅시다’ 캠페인 일환으로 이날 입재식에서 신간 어린이 불서 〈나도 부처님 될래요〉 150권을 참가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의왕 청계사= 노덕현 기자

포교 환경은 개선됐는데… 현실은 ‘위기상황’

어린이 포교 위기인가

‘어린이 포교’. 이 다섯 글자는 한국불교 계층 포교의 오래된 화두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그간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고, 현재에도 여러 종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린이 포교가 위기라는 고충을 털어 놓는다. 본지는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서 선물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 포교 특집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포교의 현재와 문제점, 대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한국 8학군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육열이 높은 만큼 한국 교육의 단면을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1학년 학급을 맡고 있는 불자 교사에게 각 종교별 구성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학급인원 35명 중 불자 학생은 5명. 반면 개신교는 15명, 천주교는 8명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아이들도 7명에 달했다. 불자 학생이 무교보다 적은 것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소속 교사가 있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도 상황도 비슷하다. 30명 학급인원 중 불자 학생은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개신교 6명, 천주교 4명으로 근소한 차이였다.

조사 결과에 강남 모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해 아직 종교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인근에 교회가 많아 젊은 층이 전도를 나온다. 반면 사찰은 재미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활동을 학급에서 하고 있어서 상황은 좀 나은편”이라며 “자모회장 어머니가 개신교인이었지만, 자녀의 활동을 보고 불교로 개종했다. 제대로 된 어린이 포교는 사실상 가족의 종교지형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교육… 종교는 ‘관심 밖’

현재 어린이 · 청소년 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다. 1980년 전체 인구의 36.8%에 달했던 어린이 · 청소년 인구는 2010년 21.3%로 급감했고, 2030년에는 2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교육 열기는 어린이 · 청소년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하고 있다. 실제 주 5일제 수업 이후 토요일 사교육 시간이 2004년 51분에서 2009년 62분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 청소년들이 사찰을 찾아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린이 포교의 산 증인인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마저도 “부모들부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다보니 사찰에 보내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주말마다 경연대회나 학원 등을 다니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정서 교육을 위해서라도 불교 신행활동은 필요한데 현재 부모들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전과 달리 어린이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적으로는 증가한 어린이 법회

어린이 포교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있어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됐다. 2006년 제5대 조계종 포교원 집행부는 종단 사상 처음으로 원내에 ‘어린이 · 청소년팀’을 구성하고 3개년 집중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어린이 · 청소년 지도사를 배출하고 각종 교보재를 제작 · 배포했으며, 어린이 전법중심도량을 지정해 일선 사찰을 지원했다. 6대 포교원이 출범한 이후에는 국제청소년성취프로그램, 불교스카우트 도입을 비롯해 어린이 · 청소년 전법단을 발족하는 일련의 성과를 이뤘다.

서울 강남 초등 1년 35명 중
불자 5명, 개신 · 천주교 23명

전법 중심도량 111곳 지정
어린이 법회 증가 추세
지역 편중은 해결할 숙제

“말로만 어린이 포교 강조”
사찰 주지 원력 가져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무원에서도 직할교구 주지인사고과에서 어린이 법회 개설 여부와 발전 상황이 가장 큰 점수로 반영시키고 있다.

이 같은 중심도량을 포함한 일선 사찰들의 어린이 법회도 증가 추세이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와 포교원이 201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청소년법회 운영사찰은 조계종 미등록 사찰을 포함해 30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5월 260곳에서 17%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 포교 중심도량도 2008년 62곳에서 현재는 111곳으로 50여 곳 가까이 가 늘었다.

지역 불균형 · 전문가 없는 ‘절름발이’

양적인 인프라는 분명 커졌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밝지만은 않다. 대부분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평균 20~30명 수준이고,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사찰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조계사와 봉은사, 평택 명법사, 동해 삼화사 등 도심인근 사찰들 정도가 1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불균형은 큰 문제다. 현재 지정된 111개 어린이 전법중심도량 중 대부분은 수도권과 경남 · 경북에 집중돼 있다. 전북 · 전남 지역 어린이 전법중심도량은 전남 4곳, 전북 5곳으로 총 9곳이다. 이는 강원도(8곳)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지도법사나 전문 지도사의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계종 등록 사찰 중 어린이 법회를 개설 중인 188곳 중 지도법사가 상주하는 사찰은 128곳으로, 지도법사나 법회 지도사 없이 운영되는 사찰도 60곳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전라도 지역에만 대흥사, 송광사, 백양사 등 5개 본사가 있다. 이들 본사가 역할을 나눠서 30만 이상의 중소 도시에 포교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단 차원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본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린이 · 청소년 전법단장 성행 스님은 “기존 사찰의 어린이 포교도 문제지만, 신도시와 새롭게 포교가 시작되는 지역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타종교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종교용지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종단적 차원의 종책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력’ 문제… 인식 전환 시급

무엇보다 일선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등 전문가들은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어린이 포교를 근본적인 방안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이제는 기다리는 포교가 아닌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 아이들이 사찰을 찾는다”며 “중앙에서도 적지 않은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당장 어린이 법회가 재정 부담도 크고 불사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교는 10년을 내다보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린이 포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은 “전국 사찰의 어린이 법회 참여자 수를 모두 합쳐도 순복음교회 어린이 신도 수에 못 미칠 것”이라며 “현재 불교계는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을 말로만 이야기한다.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중앙에서도 1사찰 1유치원 등을 주지 인사에 필수하는 등 강한 종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재	무	종천
학	장	덕민	사	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각천
기	획	정문	사	서	정빈
교	무	정수	회	계	성명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역경 속에 '어린이 포교' 씨앗 뿌렸으나 느린 걸음

어린이 법회 어제와 오늘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불교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인공이다. 이를 인식한 선구자들을 오래 전부터 개별적으로 원력을 세우고 어린이 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불교사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시도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다. 개항 이후 물밀 듯 밀려들어온 개신교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선교에 성과를 올리자, 한국불교계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한국불교계에서는 1923년 중앙포교소인 각황사(現 조계사)가 '각황일요불교학교'를 개설한 것이 최초의 어린이 일요법회라고 알려져 있다. 1928년에는 용성 스님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대각일요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전국 사찰과 포교소에는 일요불교학교가 봇물처럼 개설됐으며, 그 수가 4천여 개에 달했다.

하지만, 해방 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일요불교학교는 1960년대까지 자취를 감춘다. 1960년대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인 운문 스님이 목포 정안사를 시작으로 마포 석불사, 종로 대각사 등 15개 사찰의 어린이 법회 창립을 견인했다. 1966년에는 불교 어린이 교화를 위해 안병호 씨가 재정 지원을 하고 운문·석주·현보 스님 등이 뜻을 모아 소년교화연합회를 출범한다. 당시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 청소년 단체였던 소년교화연합회는 1969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인 포교·교화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1975년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이 어린이 불교학교를 시작하면서 한국 불교계의 어린이 포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80년대 중후반은 어린이법회의 전성기였다. 1970년대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청년불자들이 1980년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대거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후 어린이법회 교재 '연꽃'이 창간되고, 어린이 교사대학이 창설되면서 어린이법회는 더욱 체계화·전문화돼 1980년대 말에는 전국 600여 사찰로 확대됐으며 참여 어린이 수도 5~6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찰과 스님들의 무관심, 지도교사 양성 소홀, 출판·음악 등 문화콘텐츠 개발의 관심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어린이 포교의 발목을 잡았다. 또 불교 내부문제로 인해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린이법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이런 가운데 2005년 故 지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천명했고, 이에 발맞춰 당시 포교원은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 조직,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구성 등 어린이포교·법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후 포교원은 2011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11곳의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을 선정해 해당사찰에는 법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구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원은 주지인사고과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부터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포교 지침서와 교안들도 내놨다. 포교원은 2007년 어린이포교용 홈페이지 '키즈붓다'를 개통한데 이어 2008년 어린이법회 전용 법요집과 의식곡집 CD를 제작해 일선 사찰에 배포했다. 또 '부처님 일대기'와 '삼국유사'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급하는가 하면, 법회용 영어교재 '헬로 달마스쿨'을 책과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최근 이 같은 노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불교스카우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과 연계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어린이 법회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법회를 통한 불교스카우트·국제청소년 활동은 참여만으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향후 대학입시 등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한 법회를 각 지부 사찰과 심인당에서 운영 중이다. 두 종단 모두 중앙 중심의 행정체계를 가진 만큼 일률적인 법회가 이뤄지고 있다.

천태종은 전국 160곳 사찰 중 44곳 사찰에서 매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를 진행한다. 천태종 어린이 포교를 이끄는 곳은 총무원 교무부 산하 단체인 '천태종 연리회'다. 각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회 간부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지도교사들의 모임인 연리회는 1987년 '꿈나무회'로 창립돼 현재 150여명의 연리회원들이 지역 어린이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진각종의 경우 전국 심인당 120곳 중 약 80여 곳이 어린이 법회 '자성학교'를 운영 중이다. 자성학교에는 자성동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다. 진각종은 청년회원과 교도의 자녀 등 자원봉사자로 교사들을 모집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킨다.

진각종은 또한 스포츠를 통해 자성동이 포교에 적극적인 것도 다른 종단과 차별화된 점이다. 통리원장배 '풋살대회'가 대표적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풋살대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라 경주 포항 등 7개 교구에서 15개 풋살팀 참여해 1박2일간 경기를 치른다, 이중 경산지역 심인당은 유치원과 연계해 풋살팀을 조직해 상시 운영중이다.

김주일, 신중일 기자



1994년 문을 연 화성 신흥사의 어린이 법당. 신흥사는 주지 성일 스님의 원력으로 1970년대부터 어린이 학교를 개설하는 등 어린이 포교의 산실로 자리하고 있다.

1923년 각황사서 첫 어린이법회
6.25 동란지나 1970년대 재시작
80년대 성과보여… 90년대 침체
조계종 정책 쏟아내며 증가 추세
천태종·진각종도 자체 법회 운영

■ 조계종 어린이 포교 전법 도량 현황

교구	사찰	주지
서울 경기	조계사	도문
	관음사	종하
	인천불교회관	일지
	영화사	평중
	금정사	명훈
	화계사	수암
	금장사	
	개운사	태원
	용담사	묘정
	옥천암	정경
	백운암(상도선원)	미산
	봉은사	진화
	법왕사	계성
	흥국사	대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무진법장사	법장
	국제선센터	탄응
	금강선원	혜거
	도선사	혜자
	봉국사	덕현
	세광사	종율
	진관사	계호
	정각사	정엄
	금륜사	본각
	보각사	관정
	신흥사	성일
	수원사	성관
	용화사	덕선
	청련암	도문
	영월암	보문
	대각포교원	정호
	청계사	성행
	회룡사	성견
	육지장사	태형
	보리사	탄공
	여래사	각현
	구룡사	본사직할포교소
	약사사	법정
	봉영사	보관
	불광사	대각회사찰
	동원정사	송묵
	금강정사	원명
	기원정사	효공
	보문선원	보연
	한마음선원	혜원
강원	지장선원	도성
	낙산사 포교당(무산사)	도관
	신흥사 직할포교당(원각사)	본사직할포교소
	극락사	자용
	삼화사	원명
	관음사	미임명
	백운사	법안
충청	광제사	경원
	석림사	성공
	세원사	정운
	영각사	청운
	서광사	도신
	원각사	대혜
	자운사	지운
	한암사	원철
	용화사(청주)	각연
	용화사(대전)	영진
경북	관운사	지산
	화성사	종묵
	동화사 직할포교당(보현사)	본사직할포교소
	봉림사	응산
	수미정사	본연
	동화사	성문
	선재정사	중안
	분황사	종우
	영전사	해득
	청량사	지현
	대관음사	성파
	덕숭사	자도
경남	보각사	관정
	대광사	탄경
	산청포교당	설진
	보현암	호탄
	두타사	자용
	영화사	명준
	남해포교당(법흥사)	해문
	광명사	무아
	보림사	법수
	성주사 룸비니유치원	원정
	여여선원	정여
	여여정사	
	영주암	범산
	월봉사	윤균
	금화사	매물
	마산포교당(정법사)	지태
	홍법사	법미
	용궁사	정무
	정토사	주지 임기만료
	창녕포교당	성구
	해남사	만초
	구룡사	신공
	미타선원	하림
전라	금산사 직할포교당(전북불교회관)	본사직할포교소
	관음사	덕림
	관통사	석연
	신흥사	법일
	성원사	정공
	원각사	도요
	선덕사	응묵
	관음사	지현
	향적사	법일
	불탑사	일현
	봉림사	일경
	성불암	성운
	참좋은우리절	회일
	홍선사	정환
제주	약천사	선조

친절한 지도법사 어린이 포교 지침서

동련·천태종·진각종·한마음선원 매월 지도서 펴내

어린이를 위한 불교 포교지로는 사단법인 동련에서 발행하는 〈연꽃〉, 천태종에서 발간하는 〈법화꽃〉, 진각종의 〈자성동이〉, 한마음선원의 어린이저널 〈마음꽃〉 네 가지가 있다.

월간 〈연꽃〉지는 1997년부터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양한 주제로 각 주마다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했다.

불교동화와 '이달의 찬불가' '틀린그림찾기' 등의 컨텐츠와 한자공부를 할 수 있는 '연꽃서당' 코너도 마련됐다. 〈연꽃〉을 자비로 발행, 전국 600여 군데 어린이법회에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천태종은 2002년 명예기자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지 〈법화꽃〉을 발행하고 있다. 〈법화꽃〉은 매월 60여개 사찰 3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배포돼 어린이 법회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법화꽃〉은 어린이들이 매주 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주 분량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매주 마다 주제를 달리해 '법문으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를 싣고 있으며 불교동화, 우리나라 역사, 역대 고승들의 이야기 등도 삽화와 함께 읽기 쉽게 수록해 놓았다. 또 만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들을 자세히 풀어준다. 이외에도 천태종 연리회는 불교 교리와 어린이 지도법 등이 들어있는 지도교사들의 포교 지침서 〈연리〉도 〈법화꽃〉지와 함께 매월 발행하고 있다.

진각종은 2001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잡지 〈자성동이〉를 발행하고 전국 70여 개 자성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자성동이〉는 불교 진각종에 대한 역사와 불교교리, 어린이 법회에 해당하는 전국 자성학교 탐방,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리퀴즈, 십자말 풀이, 문화재 이야기, 어린이가 직접 쓴 수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마음선원은 2012년 11월 월간 어린이저널 〈마음꽃〉을 창간했다. 30여 페이지로 구성된 마음꽃은 △귀 기울여 들어보니 큰스님 말씀 △응답하라, 너울샘 △아무나 쓰는 이야기 △ 내 마음의 물뿌리개 △Tea With Chong Go Sunim △생각쟁이들의 마음상자 등 어린이들이 직접 쓰고 그리는 코너를 비롯해 이메일로 고민을 상담하고 답변을 듣는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됐다.



불교계에서 발간 중인 어린이 포교 지도서. 왼쪽부터 동련의 '연꽃', 천태종의 '법화꽃', 한마음선원의 '마음꽃', 진각종의 '자성동이'.

한마음저널측은 "불교 상식을 전하기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보편성을 알리는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누구나 신청하면 구독할 수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부처님 오신날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무송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아포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창종주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화성 신흥사 어린이법회원들이 사중행사 참가를 위해 율동복을 입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방학마다 영어캠프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사)동련에서 개최하는 어린이 문화사업인 '배낭 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모습. 아이들이 링던지기를 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
모범사찰 · 단체

"어린이는 사찰의 보배… 눈높이 포교해요"

"관노트 작성해 마음 되돌아봐"

마음공부 가르치는 한마음선원 어린이회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계층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법회를 열고 있다.

1982년부터 어린이회를 시작한 한마음선원은 안양 본원을 포함해 국내 · 외 26개 지원에 어린이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주 부모를 따라 어린이회에 오는 아이들은 선원에 오는 것을 일요일 하루 중의 일과로 생각할 정도로 신행활동이 자연스레 몸에 밴다.

한마음선원 본원 어린이회는 어린이를 위한 별채가 따로 마련돼 있다.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을 위한 '연꽃법당',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위한 '지혜법당'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지도 법사 스님 두 명이 법회를 진행한다. 또 각 법당에는 6명의 학생 · 청년회 출신 지도교사들이 법회진행을 도우며, 주 평균 150~200명의 어린이가 참석한다.

매주 일요일 11시에 시작되는 법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삼귀의와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이후 지도법사 스님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불법(佛法)을 쉽고 재밌는 법문과 테마가 있는 환경법회, 자기시간, 합창, 다도 법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친근하고 재밌게 '나의 뿌리 주인공'을 믿고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회는 법회 후 '관(觀)노트 작성하기' 시간을 갖는다. 어린이들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관노트에 작성하고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본다.

지도법사 혜일 스님은 "어린이들이 법회에 와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좋아한다. 또 아이들은 대행 스님 법문을 가사로 만든 선법가 합창을 통해 마음공부법을 배우고, 매년 연등행렬에 참가하면서 협동심도 기른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한마음선원 어린이회는 법회 후 '관(觀)노트 작성하기' 시간을 꼭 갖는다. 어린이들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관노트에 작성하고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통해 마음을 되돌아본다.

놀고 노래하며 부처님법 '쏙쏙'

어린이 법회의 산실, 화성 신흥사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의 산실이자 롤모델이다. 그만큼 어린이 법회는 현재에도 신흥사의 트레이드 마크다.

매월 1 · 3주에 진행되는 어린이 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아이들이 목탁을 치고 집전하며 불심(佛心)을 키운다는 것이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법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한글예불 · 관음정근 · 어린이 오계 합송을 한다. 법문은 지도법사 스님이 주로 부처님 일대기를 재미나게 이야기 식으로 풀어준다. 또한 법문이 끝난 다음에는 꼭 교리퀴즈를 통해 그 날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법문이나 수업은 매주 교안을 만들어 아이들이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회가 끝난 후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대학생 간사들이 직접 자신의 재능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친다. 영문학을 전공한 학생은 불교 영어를,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은 찬불 동요와 율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 간사들도 신흥사의 선재 어린이회를 비롯해 야사 중고등학생회, 청년 여래회를 거친 불자들이다. 대학생 간사들에게는 신흥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활동한 이들에게는 불교어린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계층 포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어린이 자모회의 활동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요리, 공작, 미술치료 등 특기를 어머니들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며 아이들의 심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흥사 어린이법회에 대해 지도법사 현정 스님은 "매회 평균 30명의 아이들이 법회에 참석한다. 어린이 법회가 있는 날이면 모든 담당 대중들이 아이들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소에도 아이들의 고민들을 상담해주며 항상 가깝게 지내려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국제적 소양 갖춘 불자 양성 목표"

영어로 법회하는 비로자나국제선원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불교적 가르침을 영어로 전달해 어린이들의 외국어 학습 욕구를 채워줘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좋다.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해 '담마스쿨'을 열고 있는 선원은 매주 토요일 두 차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영어법회를 진행한다. 5세~9세반 어린이들에게는 법회의식을 갖춰 참선을 하고 영어노래, 게임, 발음 중심 어학교수법인 'phonics' 수업을 연다. 10~15세 반 아이들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헬로달마스쿨(Hello Dharma School)'과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로 영어법회를 진행한다.

담마스쿨에서는 자우 스님과 4명의 지도교사가 영어로 10~20명의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해 법회를 본다. 자우 스님의 영어 지시에 따라 어린이들은 부처님께 절도 하고, 어린이를 위해 만든 5계도 암송하고, 참선도 한다.

자우 스님은 "처음에는 우리말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갈수록 영어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늘고, 자기들 스스로 불자라고 생각하고 긍지를 가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려서부터 불교와 영어를 함께 배워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갖춘 불자들이 많이 길러진다면 세계 평화는 물론 한국불교가 세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올바른 참불자로 양성할 것"

어린이포교 당위성 알리는, (사)동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산)은 전국에서 열리는 어린이법회를 각 지구별로 지원하고, 교리연구 및 교재발간, 어린이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등 사업에 주력하며 불교계 유일무이한 어린이 포교단체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포교를 담당할 인재양성에 매진한 동련은 1987년 '제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두 차례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마련했다. 20년간 2만 8천여 명의 지도자가 정식 등록해 연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회에 필요한 자료와 지침서 발간에도 앞장 서 왔다. 1987년부터 어린이포교지 〈연꽃〉을 자비로 발행, 오늘날 까지 전국 700여 군데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에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1990년부터 〈어린이법회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어린이법회를 위한 설법과 교리연구총서〉 〈어린이법요집〉 〈어린이법회 지침서〉 등도 발간했다.

2016년 30주년을 앞둔 동련은 "사찰 중심의 포교에 중심을 두고 연구 · 사업 · 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집중돼 있는 포교를 종단과 함께 어린이법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련측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사찰의 신도가 되고 신도의 일원으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사업과 지역 사찰 중심의 역할 강화, 올바른 참불자 양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영어 · 봉사 등 맞춤형 수업 '인기'

서남권 포교 중심지, 목동 국제선센터

조계종이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 2010년 창건한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서남권 포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청년으로 이어지는 계층포교는 불교 불모지였던 양천 · 강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지하 1층 바라밀실에서 열리는 어린이 법회에는 6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평균 5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정기적 법회 이외에도 국제선센터는 학구열이 높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는 찬불동요와 미술과 같은 정서 교육을, 5~6학년들에게는 영어 자타카 수업을 특별활동으로 운영한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봉사 활동 점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맞는 봉사활동과 불교 스카우트 등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선센터 어린이법회에 대해 지도법사 관묵 스님은 "어린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매주 법회에서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교안들을 만들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만큼 어머니들로 구성된 자모회의 활동도 활발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서진문화유산은...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국보 · 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산 · 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 · 학 협력 협약체결 등)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 개념 도입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기획 · 설계
- 국 · 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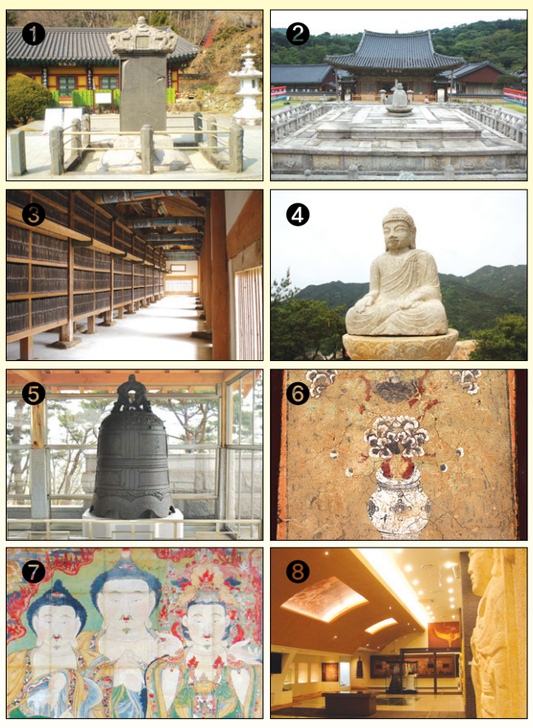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스테이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흰개미 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CRM 용역
- HIP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 기획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문화상품 기획 · 개발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국보 제 47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❶
[국보 제132호] 징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❷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❹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❺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❻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괘불 보수사업 ❼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층전사 및 복원)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❽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룡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피스텔 6010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

위기의 어린이 포교, 당면 과제는
스님의 포교 소명의식이 절실
송묵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선순환 이어가려면
사찰 가족 참여 프로그램 늘려야
성행 스님(조계종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

단순히 스님, 사찰만의 책임인가
부모부터 자녀를 불자로 키워내야
성일 스님(화성 신흥사 주지)





실효성 있는 포교 종책을 제시한다면
1사찰 1어린이법회 의무화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어린이 법회 지역 불균형 해소하려면
각 교구본사서 거점 사찰 만들어야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부족한 어린이 지도사 해결 방안은
종단 차원에서 자격자 관리 및 처우개선
최미선(동련 사무처장)

어린이 포교는 원력… 종단 · 사찰 '전력투구' 해야

어린이 포교 진단과 처방

일제 강점기부터 밀려들어오는 서구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 포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80년대 600여 곳이였던 어린이 법회는 90년대 침체기를 거치면서 눈에 띄게 줄었다. 조계종은 2005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지만, 어린이 포교가 위기라는 인식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과 지도교사, 의식 부족을 꼽았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어린이청소년위원장)은 "포교는 기본적으로 투자다. 10년의 시간동안 씨앗을 뿌리고 키워야 겨우 열매를 맺는다"며 "어린이 법회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고 피드백도 느려서 일선 사찰에서 저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이런 부분을 일선 스님들이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은 "대부분 스님들이 어린이 포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어린이 포교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당장 효과가 나는 사업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드니 스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 지도교사의 부족도 한국 불교의 어린이 포교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에 대해 자용 스님은 "대부분의 개신교 대학에는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지만 불교계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유일하다.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은 신입생 모집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계종에서 종단 차원에서 일반 대학들과 결연을 맺어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최미선 동련 사무처장은 "종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지도사 양성 의무화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포교 교육 △종단에서 자격자 관리 및 처우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 신흥사는 어린이 지도사 양성에 대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신흥사 어린이 법회의 대학생 간사들은 신흥사 선재 어린이회를 비롯해 야사 중고등학생회, 청년 여래회를 거친 불자들이다. 이들에게 신흥사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활동하면 불교 어린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계층 포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사찰이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포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재를 키우면 그 보상은 언젠가는 사찰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어린이 포교가 잘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인체로 따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돼야 중고등학생, 청년회로 계층 포교가 이뤄지고, 이렇게 키워낸 신도들은 다시 어린이 포교에 자신의 재능을 보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포교는 계층 포교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린이 법회 미비하니
계층별 포교 순환 안돼
자승 스님, 직할교구 인사고과서
어린이 법회 반영… 전체 확대해야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조계종 직할교구를 대상으로 주지인사고과에 어린이 법회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단도 성과가 있을 때 포상하고 성공 사례로 알려야 한다. 신도들에게도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은 사찰이 총체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젊은 불자 부모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사찰에 데려올 수 있도록 순차적인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젊은 불자 부모들은 자녀교육과 문화 체험 등이 공통 관심사인만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법회가 지역적 불균형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각 교구본사 별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응철 교수는 지역 교구본사가 연합회를 구성해 중소도시에 공동의 거점 포교사찰이나 문화원을 건립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을 할 경우 단일 사찰에 부과될 비용을 나눌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 인력 공유가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 포교에 대한 방안도 피력했다. 자용 스님은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에 기독교계는 발 빠르게 교회 세워 주일학교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는 사찰 하나 짓는데 만족한다"며 "재정이 넉넉한 스님들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행 스님은 "일선 사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도시 포교의 경우 종단적 차원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종단에서 추진하는 거점 · 직영 사찰의 경우 어린이 포교를 반드시 포함시켜 사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전문가들은 어린이 포교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책으로 주지 인사고과에 어린이 법회 부문을 크게 반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현재 조계종 직할교구에 머물러 있는 주지 인사고과를 확대 적용하라는 주문이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찰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이 하나 모여야 제대로 된 포교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성일 스님은 "포교는 원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자료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다. 주지 스님은 원력을 가지고 어린이 포교를 시작해야 하고 불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불법을 선물한다는 심정으로 사찰에 보내 '참불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묵 스님 역시 "이제는 찾아가는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에서는 학교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불교 스카우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선 사찰이 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어린이가 곧 불교의 미래'라는 시대의 명제를 주지 스님들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 이나은 · 배현진 기자



“불법은 입태(入胎)와 출태(出胎)에 걸림없는 진리”

참나에 다 갖춰있음이니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태중에서 나와 첫 일곱 걸음을 걸으신후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도다!”
하시니 정말 희유하고 희유함이라.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깨달은 진리는 입태(入胎)와 출태(出胎)에 걸림이 없어 항상 밝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로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고.
망망대해(茫茫大海)에 한 점의 나뭇잎과 같음이로다.

우리 모든 인류여,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알고자할진대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의심할지어다.
금생에 참나(眞我)를 알지 못하면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 또다시 이 법 만난다는 보장이 없음이로다.

세상 사람들이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한 편으로는 일체중생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찾을지어다.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참나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음이니,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깨달아 만 사람을 진리의 국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갚는 단 하나의 길이로다.

모든 국민들이시여,
남(南)과 북(北)의 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 또한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이 난국(亂國)에, 모든 분들이 일심(一心)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다면, 경제와 국방이 더욱 견실해져서 하루빨리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며, 남북(南北)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분들이 일상가운데 참선을 생활화하여,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先導)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등국가가 되고 일등국민이 됩시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부처로 모시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모든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넘치고 저마다의 마음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우리 모두는 깊은 성찰과 지혜의 눈으로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새깁니다.
이 땅에 좋은 세상 가꾸기를 꿈꾸는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의식입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흙의 도움으로 만물이 생장합니다. 농부와 노동자의 땀과 정성이 있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손을 잡고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과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와 같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는 우울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자연생태의 재앙이 생명을 위협하고, 야만적인 전쟁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분단의 장기화가 민족공동체를 위협하고, 양극화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또다시 놓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다시 바라볼 것을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합시다.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산천은 새소리, 바람소리, 초목의 푸른 빛,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오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 올립니다.
생명이여!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그릇된 욕망 버리면 ‘세계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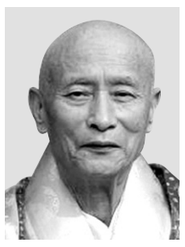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석존께서는 무명업연의 사바중생을 진리의 바른길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현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외치면서,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며, 갈등과 분쟁으로 국제사회를 혼란과 분열의 암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물질문명에 타락하게 되어 간악한 인간들이 온갖 모략과 작위로써 자기의 이익만을 찾게 되었으며, 난세와 허구의 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혼돈을 야기하게 되어 전도몽상(顚倒夢想)된 세상에서 참자기를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리의 마음과 눈으로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청정한 안락정토를 만들어 인류가 하나의 자유공동체로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릇된 욕망을 버리고(捨), 비우면(空), 수용과 절제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 심성이 고요하고 지혜가 열려 삼라만상이 광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며 모두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야말로 타인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며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평상심을 시도(是道)로 삼고, 자연섭리에 이순(理順)하면 불신(不信)이 사라져 고뇌가 없을 것이며,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견해를 가진 지성의 사회로 인류와 자연은 평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정의가 바로 서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함께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노력합시다.

사바 어둠 걷어내는 연등 밝히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존경하는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혼자 뛰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개개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존귀한 실존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49년간의 팔만 사천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요체와 대승의 방편으로 인간 본래의 성품인 ‘참된 나’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大道)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 우리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귀한 정신적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일체중생과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코처럼 얽혀 있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무관치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가치의 바탕 위에서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상생하는 삶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인류가 함께 밝아가야 할 큰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번뇌로 길들여질 때 지옥을 만들고 자비와 지혜가 가득할 때 극락과 해탈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라는 곳이 진흙탕이지만 그 곳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한 한 마음으로 전도된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 광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밝히는 하나의 연등이 사바의 어둠을 걷어내고 부강한 국가와 온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물질과 명예에 주인공 양보말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참으로 존귀한 삶의 주인공

稽首三界最勝尊(계수삼계최승존)이시여
吉祥無垢盡諸漏(길상무구진제루)이시니
愚夫爲惑所沈溺(우부위혹소침익)하나
能以等慈而拔濟(능이등자이발제)하시네.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존재에게 축복 있으라.
그대 비록 번뇌에 묶여 헤매고 있으나
대자비로 모두를 구제하신다네.

당신은 그대로 세상의 주인공
물질과 명예에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
밝게 열린 날, 부처님오신날
가야할 길이 열렸으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

부처님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금강합장 정성 모아 부처님오심을 봉축합니다.
신심(信心) 다잡아 부처님 강탄(降誕)을 찬탄합니다.
오고 감이 자재하신 모습으로
그 옛날 룸비니동산에 꽃비 뿌리며 오시듯이
여기 사바의 중생들을 보살피며
다시 그 모습 나투시는 부처님께 귀명하옵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광명으로
무변(無邊)한 넓이의 자비덕성으로
높이를 사량(思量)하지 못하는 용맹정진으로
예토(穢土)와 정토(淨土)를 가리지 않고
중생의 심전(心田)에 청정(淸淨) 보리심(菩提心)이 꽃피도록
부처님의 무량한 원력을 서원합니다.

노도(怒濤)처럼 심저(心底)에 휘감아 도는 번뇌도
돌려쓰면 안락(安樂)의 심천(深泉)으로 승화(昇華)되듯이
첨단 과학기술이 미증유의 세상을 열어가고
물질문명이 베푸는 더없는 풍요의 세상에서
오늘도 세사(世事)의 깊은 시름소리는 끝이 없어나
부처님의 지비(智悲)의 청량제로써 맑게 녹여 갑시다.

동해 성인봉의 서기(瑞氣)를 온 몸으로 품으시고
말법(末法)의 세상에 육자심인의 정법을 기틀 삼아
무진서원(無盡誓願)의 참회법문을 짐짓 열어 펴시니
진각(眞覺)의 종문을 세우시고 심인공부의 법문을
널리 설하신 진각성존(眞覺聖尊)의 본원(本願)도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시는 뜻과 상응(相應)합니다.

산하대지에 생명 기운이 넘쳐나고
녹음방초(綠陰芳草)가 싱그러운 향기 품는 것처럼
시공(時空)을 넘어 오시는 부처님의 자수(慈手)가
세간사의 뭇 고뇌 녹여 주시도록 정진합시다.
중생계와 천상계가 함께 어울려서 찬탄합시다.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진리의 향기 온 세계에 널리 퍼뜨리길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2557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요 육도(六道)와 삼생(三生)이 한 바탕임을 일깨워 주셨건만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와 상생을 갈망하는 인류의 여망을 외면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도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서 나아가 세계정세를 불안하게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상을 더욱 좁히고 지식을 크게 확장하였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과 우치(愚癡)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 속에서 지혜를 보고, 지혜로써 자비를 일으키고, 자비로써 억조창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미 부처 이전의 길이요, 중생 이전의 길이었기에 설산동자는 한 구절 진리를 듣기 위해 몸을 던졌고 난타의 가난한 등은 밤을 새워 빛을 발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모두의 생일날입니다. 일체중생이 눈을 뜨고, 높은 것은 높아서 아름답고 낮은 것은 낮아서 어여쁜 그 본래의 면목을 찬탄하고 환희하는 날입니다. 전쟁의 위협도 경제불황도 인륜의 타락도 본래 없는 것임을 사무쳐 보아, 청정자성의 심연(深淵)에 연꽃 한 줄기 피워 올리는 날입니다.
오늘을 축하하고 내일을 찬탄하는 축제의 풍악을 울립시다.

부처가 부처를 찾아 안부를 묻고
보살이 보살을 찾아 인사를 나누니
산 빛은 푸르러 부처의 몸이요
하늘은 드높아 보살의 얼굴이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가 가는 길에 부처의 꽃 피어나고
보살이 가는 길엔 보살의 꽃 피어나니
부처의 꽃 보살의 꽃 만중생의 꽃이로다.

자비정신 따라 베풀고 나눕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뭇 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동족 간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화를 내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들은 욕심이 빚은 일을 또 다른 욕심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원망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회는 더욱 물욕에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따라 가진 자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회가 될 때에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 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미움은 미움으로서 풀어지지 않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에 풀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중생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가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문 실천으로 전하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이가 복덕과 지혜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원만성취 하시길 서원합니다.
25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망상분별이 없어,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나아가 세간(世間) 이치에 명료하여 막힘이 없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의 성취자로 오해와 집착을 떨치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의 주인이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실천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 자타(自他)의 평등성을 깨닫고, 평등성지(平等性智)의 실천을 이해와 화합의 힘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와 인연(因緣)이 있는 모든 이의 평등성을 무분별의 지혜로 살피고, 남북 분단의 드러난 현상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민족 그리고 인간이라는 바탕을 불이(不二)의 자세로 다져 민족통일의 서원과 성취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명료하고 막힘이 없는 지혜와 자타평등의 지혜를 갖추어 모든 불자가 세간사 현상을 잘 관찰하여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묘관찰지(妙觀察智)의 실천으로 우리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한마음 내어 성취에 이르는 성소작지(成所作智)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며, 집착을 떠나 자타의 평등성을 지혜로 살피는 불자가 되어 있는 그대로의 마음 내어 이루는, 마음과 법의 차별이 없는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이의 가정에 복지구족(福智具足)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자유와 통일의 등불을 밝힙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부처님이 어느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니 깨달음의 길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함께 가자고 부처님께서 보살의 신행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타인에게 널리 베풀고(布施), 인격적인 삶을 살며(持戒), 어떠한 고뇌도 견디어 내고(忍辱), 참삶을 더해가는(精進), 살며 마음을 비우는(禪定), 그리고 함께 좋은 생각(智慧)으로 평화의 등불을 밝힙시다. 희망과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자유와 통일의 등불을 밝힙시다. 안락한 세상되게 정진의 등불을 밝힙시다. 우리의 부처님은 인류평화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의 부처님은 진리복덕의 등불이십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밝은 등불이 하나 됩니다.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길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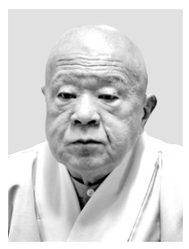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있는 중생은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듯 애틋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는데 앞장섭시다.

공동체정신 살리는 봉축 만들자

(사)대한불교 원융원(종) 종정 일공 스님



3천만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삶의 자세와 이 사회현상은 어떠합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존엄은 실추됐으며 인류의 무한한 욕망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배금주의로 인해 윤리도덕은 황폐화 됐습니다.

부처님이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깨달음과 동체대비 행을 생활화하도록 각자 자리에서 한걸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생명 존엄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화되는 깨침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갑시다.

부처님 대광명 오늘 펼치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부처님 오심은 삼계에 대광명. 하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못보는구나.

애미 애비 간곳을 알면 내 갈 곳도 뻔히 알련만 빨치산의 피울음인가.

밤새도록 소쩍새 슬피울더니 올해는 진달래도 유난히 붉구나.

아! 다시 오지 않을 오늘도 앞산 구재봉에 황혼(黃昏)이 지네, 지옥(地獄)과 극락(極樂)은 불나방의 업연(業緣)이로다.

어둠과 지옥을 단번에 쓰러버릴 부처를 쫓아 진혼의 차공양(茶供養)이나 올리고 온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즉설 주왈 빰빠라 빰빠라 봉축(奉祝)나팔이나 불자.

보배의 꽃이 활짝피기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오신날!
일체중생에게 보배의 꽃이
찬란히 피기를 염원하네.
보배를 품고도 보배인줄 모르는
중생들이여
어둠을 어둠인줄 모르고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여
밝음을 보아도 밝음인 줄 알겠는가
몸과 마음은 불길에 쉼 없이 타고 있는 것을
벼랑으로 가는 길에서 큰 눈뜨고 보아
속히 피안 가는 길을 찾을 지니라.

마음 잡초 뽑는 노력을 기울이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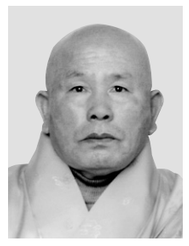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세상을 우러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찬탄의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나투신 참된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을 거울 비춰 보십시요. 자신의 정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신의 언행을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은 예외일수 없고 부끄러움도 알아야 하고 인과의 무서움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번뇌 망집서 벗어납시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금강불괴(金剛不壞) 무너짐이 없구나, 금강이여!

여시불법(如是佛法) 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아라

단의인력(但依人力) 다만 사람에 의해서
괴불괴야(壞不壞也) 무너지고 말고 하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더욱 더 분별하고 차별하는 번뇌 망집에서 벗어나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섭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부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어.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 계시도다.

수연부감미부주(隨緣赴感未不周) 인연에 따라 감응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나 이 항처차보리좌(而恒處此菩提座) 항상 본래의 자리에 계시도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중일아함경 제5권〉에서 이르시길 ‘진리에 공양하는 사람은 곧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며, 진리를 본 사람은 곧 나를 본 것이다. 이미 진리가 있으면 내가 있나니라’ 고 하셨습니다. 부단한 수행정진을 통해서 성불합시다.

한 뿌리란 마음으로 화합해야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법성의 실상은 깨달음에는 사람과 법이 따로 없어, 한 생각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을 멸해 버리도다.

만약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중생을 속인다면, 스스로 발설지옥에 떨어져진 사겁을 지내리라.

계사년 부처님 탄일을 기하여!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과 극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부분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직면되고, 그것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선을 선택하는 자는 양심이요 악을 선택하는 자는 삿된 마음이다.

분별없는 도리가 불법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중도(中道)가 불(佛)이어라. 운(運)과 명(命)이 융합하여 운이 즉 명이요, 명이 즉 운인 것을 알고 살면 그 운명이 바로 부처의 삶이고. 선(善)과 악(惡)이 융합하여 선이 즉 악이요, 악이 즉 선인 것을 알고 살면 그 경계가 바로 부처의 경계이고.

시(是)와 비(非)가 융합하여 시가 즉 비요, 비가 즉 시인 것을 알고 살면 그 분별이 바로 부처의 분별이라고. 이 도리가 바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중도(中道)이다.

갈등과 대립이 소멸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행복의 시대가 도래(到來)되길 기원합니다.

인간존엄의 가르침 실천해야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륜 스님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어루만지시고 모두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계사년 부처님오신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로 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어둠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은 존엄하며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 생존의 욕구를 버리고 연기의 인연 지혜를 배워야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보듬을 때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비로소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맑은 마음이 진정한 행복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심청등등수(心淸等等水) 법계자연견(法界自然見) 삼계시방명(三界十方明) 하처불통달(何處不通達)

마음이 맑아 물처럼 맑으면 법계를 자연히 볼 수 있으리. 삼계 시방세계가 밝았도다. 어떠한 곳이든 통달하지 아니하랴.

물질위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필연코 마음에는 때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의 세상도 때 묻지 않았으며 우리네 마음도 본래는 청정하였습니다.

부처님 삶 다시 새기는 기회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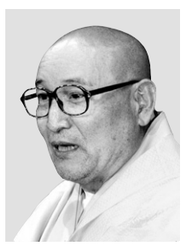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모두가 기쁨과 환희로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빛이 어둠을 거두어 내듯이 사바의 어두운 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열반 25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을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삶 모두가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다시 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중생사회를 밝혀가는 참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회하고 참회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중생 교화하라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진실한 마음 자세로 성실하게 중생을 교화하라. 그러면 부처의 세계가 따로 없다.

이모부장(爾謀不臧)이면 회지하급(悔之何及)이며 이견부장(爾見不長)이면 교지하익(教之何益)이리오

이심전칙배도(利心專則背道)요 사의확칙멸공(私意確則滅公)이니라.

자신의 계획이 올바르지 못하면 회개한들 무엇하며
너의 생각이 좋지 못할 때 가르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모름지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도리에 빗나갈 것이고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면 공공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

지혜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어두운 세상 밝히고자 부처님께서 지혜의 등불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나만 알고 나의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의 늪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이웃과 사회 온 세상이 밝고 평화로워 이대로 다 같이 살기좋은 부처님 세상 극락 정토입니다.

부처님 말씀 새겨 자유인 되자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사팔봉축의 기쁨이 온 국민과 함께하는 법향이 가득하시길 예배올리며!

이제는 툭하면 시방세계를 볼 수 있는 IT시대에 살며 눈 한번 끔뻑해도 구만리를 내다보는 천안통이 열린 시대입니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석가세존 강탄일을 맞이하여 불조의 한 말씀 아불교시는 생사해탈법을 깊이깊이 새겨 죽고 사는 법을 벗어나는 자유인이 됩시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부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바로 위대한 사상의 가르침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전하는 마음뿐이로세.

물질이 풍요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사월초파일을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해야

한국불교원융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태어날 때는 무명의 업식으로 태어나지만 부처의 근본 종지는 누구나 그대로 여여 하여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법신의 기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 있어서는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법신은 은현하여 오고감이 없이 온 누리의 광명이요 언제나 본체의 대기대용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이름 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가 다만 이름일 뿐이며 차별된 이름과 모습과 선악은 모두가 분별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적멸의 대 자유인이 될 것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로 상자적멸상(常自寂滅相)이라. 불자행도이(佛者行道已)하면 내세득작불(來世得作佛)하리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적멸상이라. 불자가 이 도리를 닦아 행하면 다음생에 부처가 되리라.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본래부터가 그대로의 적멸한 모습이로다. 적멸하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참된 법성을 갖추고 있는데 생멸의 상을 여이고 있는게 아니라, 바로 보고 알면 생멸상 이대로가 적멸상 인줄 사무쳐 바로 알아야 하며 우리네 삶, 이대로가 적멸이며 해탈이며 열반이로다.

대립과 갈등 치유하는 자세 갖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계사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무명을 씻고 지혜를 얻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시방세계를 밝힙시다. 우주는 불보살님과 사생구류의 유정과 무정물이 서로 주체적으로 교류하고 상즉상입하면서 주반구족의 화엄세계를 연출하는 법계입니다. 이 축복된 우주에서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가 희망적으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성숙한 화합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자비의 연등 밝혀 온 법계에 광명을 펼치자”

자성 청정하면 중도실상이 확연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니 우주가 성, 주, 괴, 공하고 인생은 생, 로, 병, 사를 거듭한다. 언제나 자성이 청정하면 중도의 실상이 확연하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도 태양은 청정법신이요. 밝은달을 구름이 가리워도 원만보신이다.

백십억 천만의 현상계가 석가모니불 아닌 것이 없도다. 하늘 위 땅 아래 부처님 법 아님이 없으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함께하세. 하늘은 푸르고 남산은 우뚝 솟았다.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부처님 오심을 세상 사람들 기뻐하고 태평가를 부르니 동서남북이 극락이라.

법화장엄세계를 만듭시다

(사)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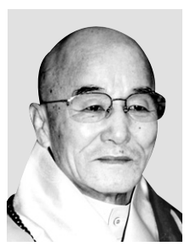


하나하나의 등불이 무진등으로
이꽃 저꽃 잡화가 다 부처님
갈등 고뇌 고통은 누구나 있기마련
서로 공경 신뢰 위로 칭찬하는 그 마음
이 참다운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오신 이 좋은날 과거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부처께서 염화미소로 일러주신 진리, 진아의 도리를 믿고 따라서 아름다운 법화장엄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실천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항상 하는 평상시의 말이 진짜 마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싹이 움트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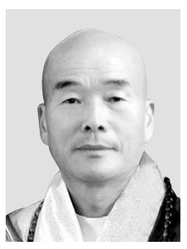


자비광명의 날 불탄일을 다함께 경축합시다.

업연의 인연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열매가 맺으면 결국 떨어지고 씨앗이 대지가 떨어지면 결국 싹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 가듯이 편안한 실체가 없고 선악의 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업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연의 중함을 알아서 오늘 하루는 간절한 염원으로 부처님 전에 삼독을 끊어내도록 간절히 기원합시다.

욕망서 깨어나 자비심 갖자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기산심해(氣山心海)
심강무성(深江無聲)

기운은 산과 같이 굳세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으며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는 않는다.

무릇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법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과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어야 하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대할 때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행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행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생명들에게 큰 없는 자비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광명 불빛을 비춥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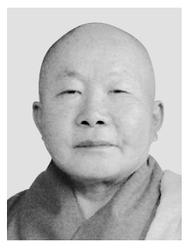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공양으로 왜 등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의 무명(無明)을 거두어서 참다운 영원적인 불성광명(佛性光明)을 빛내기 위해서 등을 켜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광명(光明)을 다시 우리가 우리 가슴에 켜는 날입니다. 이 광명은 우리의 마음에 불성을 지피는 불씨입니다. 이 불성(佛性)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광명(光明)입니다. 우리의 주위와 이웃을 살펴보고 집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자비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구보리하화중생 실천을

(사)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곳곳 삼라만상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 날로 행복하고 희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쌓으면 흩어지고 게으르면 실패하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태어나면 죽어가고 수행하면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하는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합시다. 처음은 어려워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통도 놓아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놓아 버리고 모두가 하나인 평온을 얻읍시다.

자비롭게 부처님 같이 살라

대륜불교조계종 종정
아신 수완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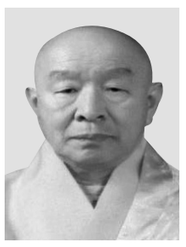
무릇 범부중생이 부처되지 못하는 까닭은, 불건전한 업연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니라. 팔만사천 법문에서 모두 이르기를 자비는 성불의 종자요, 삼업을 소멸하는 근본이라 하였으니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올바른 습관을 갖추어 범부중생을 벗어남이라.

선심자비 무처불통이니, 모든 일에 자비로움을 내어 놓는다면 일체제불이 그대를 기뻐하리라.

싸두 싸두 싸두

내가 없음 알면 삼독 없어져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산 스님



막여아심반(莫與我心伴)
무아아자불(無我我自佛)
약장아작반(若將我作伴)
동즉피아만(動即被我?)

나 자신과 짝하지 말라, 내가 없음을 알면 저절로 부처가 되느니라. 만약 나와 짝했다간. 걸핏하면 나에게 속으리라.

부처님 오신 날을 모두가 봉축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라는 삼독을 버리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으니,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시길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진일 스님



“청정한 마음으로 봉축하여 온 국민에게 축복이 있기를”

5월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지상의 중생이 무명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영원불멸의 진리와 참 사람의 위대한 진리를 선언 하신 날입니다. 그것은 대자 대비한 인간 본성을 일깨우시고 어둠속에 광명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는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봉축하여 이 나라 국민에게 큰 축복이 있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영광이 있으며 참 사람으로 서의 자기발견과 실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뜻 맑게 하면 곧 부처님 가르침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무점차 중점차(無漸次 中漸次)하니,
무공용 중공용(無功用 中功用)이로다.

점점 없는 가운데 차차가 있는 것이요, 공을 드린 보람이 없는 가운데 공을 드린 보람이 있는 것이요. 부처님께서 우매한 중생들에게 설 하신 것 중에 사성제와 팔정도는 우리 불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불교의 요체입니다. 팔정도는 불교수행실천에 중요한 수행덕목으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러한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 때 비로소 불자님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무명 태워 없애고 광명세계로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불자여러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들 본래 면목이 밝고 깨끗한 불성 생명임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좋은 날 등불을 밝혀 무명을 태워 없애고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혜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한 가치를 알아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하기를 다함께 발원합시다.

금강같은 서원으로 정진하세

(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총재 각성 스님



금강같이 굳은 뜻을 세워 정진합시다. 천 번 갈고 만 번 단련하면 더욱더욱 새로워질 것이요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밀밀(密密)하고도 면면(綿綿)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뜻 세우기를 산 같이 하고 마음 안정하기를 바다같이 하면 큰 지혜가 해와 같이 삼천세계를 두루 비치어 광명이 나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미혹의 구름이 다 흩어지면 만리의 푸른 하늘에 가을 달이 휘청 밝아 매사에 하는 일 만사형통 하실 것입니다.

생사는 생사이나 생사가 아니다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욕행구법초보정(欲行求法初步正)
약착일보분남북(若錯一步分南北)
생사생사비생사(生死生死非生死)
하처갱대주중주(何處更對主中主)

구법의 길 떠나려면 첫 걸음이 정직해야지. 만약 한 발짝 잘못 디디면 남북을 나누게 되니. 생사는 생사이나 생사가 아니다. 어디 가서 주인중의 그 주인을 만나려 하는고.

구법의 길은 정법의 길입니다. 구법의 첫 걸음이야 말로 신심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걸음을 잘못 디디면 아니 디딤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진 정진 합시다.

부처님의 경지를 증득하자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관장 무산 스님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정이 생겼거든 묵묵히 화두를 들고 정신을 모아 스스로 공안을 찾아봅시다. 자기를 알고자 하고 화두가 순일하여지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곧 다할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無記)를 통해 소소령령한 신령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고 고요하면 광명이 성대해져서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무너짐도 잡됨도 없게하며 이렇게 공부를 쌓으면 하루가 다하기 전에 한 소식을 성취할 것입니다.

본성을 보면 근본 차별이 없어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유심 스님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점이 없건만 사람의 성품에 총명하고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계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한꺼번에 닦는 것이다.

스스로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 곧 차별이 없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돈점이라는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돈오이니라. 찰나에 중생과 부처가 나뉘는 것이니. 중생의 마음에서 떨어지면 부처요, 부처도 중생마음 가지면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화두속에서 진불과 가불을 가려보시오.

삼독 없애고 불성 찾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스님



이오오칠사팔일(二五五七四八日)
천하만물공일가(天下萬物共一家)
일성천하대일성(一聲天下大一聲)
만고불멸영불매(萬古不滅永不昧)

2557년 사월초파일에 천하 모든 만물이 한집을 이루었네. 한 소리 천하가 크게 한 소리를 이루었으니 만고에 멸하지 않고 영원히 매하지 않도다.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터워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보기위해 치열한 정진도 하고 있습니다. 탐, 진, 치 삼독을 없애고 무명을 밝혀 지혜롭게 불성을 찾으면 이것이 해탈입니다.

우주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 법문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스님



푸르른 산 빛과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도 부처님 법문입니다.

보리번뇌불이(菩提煩惱不二)
번뇌본래공적(煩惱本來空寂)
대도효재목전(大道曉在目前)
장도갱욕멱도(將道更欲覓道)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니어라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큰 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도를 쥐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네.

마음에 티끌 쌓이지 않게 해야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사월이라 초파일 호시절,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집집마다 오색 연등이 너울 너울 춤추니 어린이 어른 남녀노소가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모두가 청정무구한 본래의 모습을 들어 내어 함박웃음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계 핀 연산홍 바람결에 춤추고, 지저귀는 꾀꼬리의 노래 소리 중생을 위해 사바에 오신 부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산의 뭇 생명이 기쁨으로 넘쳐 납니다. 내일도 모래도 매일 매일이 오늘처럼 웃음꽃 피고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지혜 허공같이 두루하네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청해 스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와 나를 구별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구별한다면 법계의 본성을 관하여 그 세계를 보라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빛내리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가 허공 같아서 일체중생의 마음에 두루하시네.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온 세계가 춤을 추고 부처님의 향기 무르익어 가네. 나무석가모니불

한번 밝혀진 마음의 등불과 같이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신시정법장(身是正法藏)
심무애등(心無碍燈)
조로제법공(照露諸法空)
일체개명견(一切皆明見)

몸에는 정법을 갖추었고 마음에는 걸림이 없는 등불이로다. 비쳐서 들어 나는데 모든 법이 공한줄만 안다면 일체를 다 밝게 볼 것이로다. 이 성스러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깊이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갖자.

우리 사회 희망과 나눔의 등불 되길 서원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법등 밝히길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부처님께서는 무명과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의 질곡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반야의 지혜로 법등을 밝히시는 자비의 광명으로 오셨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번쯤 멈추어 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에는 '보현행으로써 보리를 이루겠다(以普賢行悟菩提)' 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세일체제여래(三世一切諸如來)
최승보제제행원(最勝菩提諸行願)
아개공양원만수(我皆供養圓滿修)
이보현행오보제(以普賢行悟菩提)

과거와 현재, 미래세 모든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위한 행과 원을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하게 닦으니 보현행으로써만 보리를 깨닫게 되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비의 등(燈),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한 지혜의 등(燈),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등(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용서의 등(燈)을 다함께 들어 보현행의 큰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룹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



부처님 오신 날을 기룹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의 시집 〈님의 침묵〉의 '군말' 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긔룬 것은 다 님이다.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긔루어서 이 시를 쓴다."

'기루다' 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룹니다. 그런데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루는 것은 사실 우리들 전부입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여 하나 되는 대자유의 생명이 '우리' 인 까닭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역사적 개인만이 아니라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으로서의 우리의 근원 생명입니다.

우리는 본래 붓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매 순간 '붓다로 살자' 는 삶의 전회가 우리의 정신과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주인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정등정각의 상구보리 길이며 자비실천의 하화중생 길입니다. 하늘에 꽃비가 내립니다.

중도로서 사회 화합 이끌어야

정병조 금강대 총장



오늘은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만물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의 삶의 '자비와 여로' 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비를 중생, 즉 모든 생명 있는 존재로까지 확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 분처럼 살고자하는 서원일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부처님처럼 되는 일이 오늘날처럼 힘든 적이 없는 듯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과 악이라는 명백히 극단적인 축이 있었다면 현대는 선과 선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선한가를 따지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중도가 초월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세기 우리가 이루어야할 일은 대결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원융조화에 있다할 것입니다. 그 화합의 힘은 내면의 완성, 인간성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의 서원이어야 합니다.

어느새 천지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차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과 빛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며, 빛은 음습한 골짜기에 까지 미칩니다. 부처님의 자비원력이 어김없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신 뜻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타행 실천이 부처님 마음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간, 계층간의 양극화와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문제가 국가의 중심과제로 등장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하에 우리 불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한길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고행하신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싹틔우기 위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중앙신도회도 이렇게 소중한 마음의 실천을 위해 전국의 불자님들과 함께 '행복바라미 캠페인' 을 진행하며 이웃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어지러움을 전국 방방곡곡의 따뜻한 등불로 밝혀, 그 공덕으로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불자들 모두는 거룩하신 세상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 주저 말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퇴휴 스님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온 누리 비추고 있는 진리의 빛, 자비의 등불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날입니다.

송전탑에 올라 200여일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빈부 이념 지역 종교 세대를 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만큼은 세상의 온갖 시름을 다 내려놓아야겠지만 우리가 서있는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도 계속되고, 양극화와 경제난, 사회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한국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있습니다. 지난 봄 내내 마음을 졸이고 지켜보았던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자등명 법등명의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에 주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인 일체 생명의 자유, 평등, 평화를 얻는 그날까지 생명평화의 공동체, 정토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부처님오신날, 부처님께서 펼치신 자비행이 보다 널리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자리이타서 한걸음 더 나가야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불기2557년 부처님오심을 수희 찬탄합니다.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햇살처럼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무량대복이 깃들어 역경이 사라지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요즈음, 사회의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며, 갑의 위치에서 을에 대한 폭언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사회관 심지어 국가관도 그 차이가 심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 사회에 같이 살면서도 의식은 서로 크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관대로만 사물을 바라보며 바른 지식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하니 각자의 의견이 편파적이고, 경직되어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 갈등을 치유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불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 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불자님 모두 보현행자가 되시어, 이 땅에 보현보살의 원력을 실현하는 불법의 동량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랏일을 부처님 일같이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사바세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과 성도로 비로소 고통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인간성과 도덕성은 실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불자연합회와 소속 불자들은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라는 창립취지를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으로 삼아 상구보리로 향하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화중생의 방편으로 삼아 자리이타의 삶을 완성하겠다는 큰 원력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공무원불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경탄하며,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향은 경계가 없습니다

임희웅 포교사단 사단장



지혜와 자비 양족존 부처님께서 법계의 실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사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광명이 충만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려 사악한 모든 먹구름을 걷어내고 서기 충만한 법기(法氣)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뭇 생명이 한결같이 행복해지기를 기원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길잡이가 되시어 구경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스스로 무명을 밝히는 포교사가 되고, 물과 같은 성품으로 하심(下心)하고 하심(河心)을 본심 삼아 가장 낮은 자세의 봉사를 통해 모든 분이 다 안락하고, 함께 부처를 이루는 그날 까지 신명을 바쳐 헌신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사회와 민족국가를 평화롭게 하고 환희와 감동을 주는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체제에는 많은 모순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외로움과 무관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과 절망 뒤에 안락과 행복이 무르익어 다가오는 진리를 깨달아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실천력을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눔과 무소유의 실천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합시다

이 땅에 정토세상 구현되기를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뭇 생명의 어버이이신 자비로운 부처님의 탄생을 기쁨과 환희심으로 찬탄합니다. 저희 여성 불자들은 연등축제가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된 첫 해인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더 큰 기대와 환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인간 각자의 존엄성을 일깨움으로써 나의 존엄함과 똑같이 타인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생명 고유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은 자살률과 저 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에 이어 남북 관계 긴장 고조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일깨워야 합니다.

최상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더 큰 원력으로 정진합시다. 그리하여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법을 실천하여 자유와 평등의 정토세상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를 발원합니다.

참된 자비 실천 간절히 발원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 헤아리기 어려운 번뇌에 붙잡힌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원코자 부처님이 오신 날에 시방찰(十方剎)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나날이 매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어 전 세계가 넓지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투쟁과 갈등, 욕망과 빈곤 등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 공양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보람도 없는 공양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도와 밥을 먹이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부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보살핌, 이웃에 대한 보살핌, 모든 생명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배려가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바른 불자입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따라온 대천세계(大千世界)에 참된 자비의 실천이 행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년 불자답게 가행정진 해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청년 불자와 함께 부처님 오심의 뜻을 깊이 새기며 봉축합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무명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 당시를 살아간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깨달음으로 몸소 나누신 의미를 깊이 새기며, 불교 또한 종교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서 사회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불자청년들 또한 성찰과 발심을 통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올곧이 갈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적으로는 우리 청년 불자 스스로 깨달음 자체가 내 삶과 동떨어지거나 내생의 일로 인식하는 특별한 경지로 생각하지 않고, 수행풍토를 만들고, 외적으로는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요구에 화답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일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세상에는 희망을, 마음에는 행복을 주는 부처님오신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면 가꾸는 대학생 불자되길

박지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로 다른 가치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모른 채 기계처럼 스펙 쌓기에 매진하는 현재의 대학생들을 위해 오늘에 오시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괴로움을 마주하고 존재의 소중함과 주체됨을 기억하고 가꾸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올 해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50주년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부처님 법 안에서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대학생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화합하고 합심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인연 맺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격려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장경 대작불사 수희 동참을

신상길 (재)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님들은 무명을 밝혀 정토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매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세계 최대 · 최초로 석판본 경판대작불사에 보인 전국 불자님들과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석판본 경판불사는 불교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제고시키고 역사문화가치복원의 새로운 신기원을 개척하는 찬란한 불교문화예술의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글에만 집착 말고 반야종지를 심자

윤기순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의 의지를 세우고 위없는 불도를 구하는 불보살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글에만 집착하지 말고 곧바로 본뜻을 알아서 날날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근본 종지에 부합한다면 스승 없는 지혜가 자연히 나타나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방일한 생각, 탐음에 집착치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에 정진합시다.

무상한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아침의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일촌광음 불가경입니다.



5월 4일 월정사에서 열린 '천년 숲 옛길 걷기대회'에서 틱낫한 스님과 참가대중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월정사 걷기대회에서 명상지도를 하는 틱낫한 스님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체육명상을 하고 있다.

'새로 배운 걸음마' 진지… "천천히 걷자"

세계적 명상 수행자이자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이 5월 1일, 보름 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2일 기자회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틱낫한 스님은 5월 4일 강원도 월정사에서 명상을 지도했다. 또한 8~9일 중앙승가대에서는 학인과 일반 스님들에게 명상 지도를, 범어사에서는 대중 강연을 했다. 마음의 평화를 설한 틱낫한 스님의 방한 일정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나는 도착했네, 바로 여기"-월정사

500여 명이 걷는다. 새소리보다 가냘프게, 종소리보다 부드럽게. 완벽한 묵언 속에서. 이토록 가볍고 무거운 침묵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5월의 초입, 사람들이 만드는 적요의 걷기가 시작됐다.

5월 4일,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천년 숲 옛 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연례행사지만 올해가 특별한 이유는 세계적 명상 수행자이자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 스님과 함께 하는 4박 5일 명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만에 3번째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첫 행사이기도 했다.

대중의 수선거림과 흥분 속에서 틱낫한 스님이 단정히 모습을 드러냈다. 88살의 노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했다. 정갈한 모습에 50여 년 수행의 흔적이 묻어났다.

이윽고 틱낫한 스님을 선두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420여 명의 느릿한 행진이 시작됐다. 스님이 알려주는 걷기 방법은 단순하다. 숨을 들이 쉬고 세 걸음을 옮기며 "나는 도착했네"라고 되뇐 후, 숨을 내쉬고 세 걸음을 옮기며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 한다. 걷기를 통해 현재에 집중,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다.

틱낫한 스님은 걷기 명상 전, 짤막한 법문을 설했다. 스님은 법문에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삶이 가능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며 "숨을 관찰하고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낀다면, 그 걸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 말대로 참가자들은 자박자박 발걸음을 옮겼다. 수십 년 만에 걷는 법을 새로 배운 사람들의 '걸음마'가 사뭇 진지하다. 오른발을 내딛으며 지금을 느끼고 왼쪽 발을 옮기며 바람을 맞는다. 다시, 내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우울증 때문에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김영일씨(63)는 "걸으면서 나와 주변 사람,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걷기 명상을 하니 스스로를 치유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웃종교인도 걷기 수행에 참석했다. 월정사에 자주 방문하는 신부의 추천을 받아 오게 됐다는 임 유딧다 수녀는 "(틱낫한 스님이) 숲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흡사 예수를 보는 것 같았다. 완벽한 평화였고, 침묵 속 500명이 오밀조밀 앉아 있는 유대감은 정말 대단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전까지 진행된 걷기명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마음명상에 들어갔다. 오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이완명상시간. "휴가간다 상상하라"는 법사단 스님의 주문에 참가 대중은 모두 자리에 누웠다. 법사단 스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자장가 같다.

이완 명상 후 틱낫한 스님은 직접 법문을 설하기도 했다. "불교는 스스로를 돕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보살피듯 고통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녀는 아기와 싸우지 않고 아기의 고통을 어루만질 뿐입니다."

이날 명상프로그램에서는 특별한 콘서트도 열렸다. 스님 일행 20여명이 기타반주에 맞춰 음성공양을 올린 것이다. 고통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무하는 음악이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월정사의 봄을 수놓았다.

'21세기 부처는' - 중앙승가대

4박 5일간 월정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수행 프로그램을 이끈 틱낫한 스님의 다음 일정은 중앙승가대였다. 5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명상 수행법회는 '21세기 부처는' 이라는 주제로 법문과 걷기 이완명상, 체육명상, 그룹명 질의응답

5월 4~7일 월정사서
명상캠프 · 걷기대회 지도
대중들 가르침에 감화
이웃종교인도 수행 참여

중앙승가대 학인에게는
"충분히 게으르신가요?" 질문
'남북 공동 안거' 제안도

등으로 진행됐다.

틱낫한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스님의 의무로 '공부, 수행, 일, 놀기'를 꼽았다. '놀기'를 의무로 꼽은 이유에 대해 스님은 "기쁨과 행복을 일으켜 스스로의 자양분으로 삼아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럼빌리지에서는 한 달에 몇 번 '게으른 날'을 정하는데, 그날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에게 '충분히 게으르신가요?' 하고 묻는다"며 수행에 지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이완을 강조했다.

틱낫한 스님의 법문은 학인과 스님들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틱낫한 스님을 처음 만났다는 지웅 스님은 "스님의 얼굴이 정말 자애롭다"며 "스님의 몸 세포 하나하나에 행복함이 배어있을 것 같다"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생 정헌 스님은 "플럼빌리지의 스님들이 휴대전화나 은행계좌 등 개인 소유물을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깊었다"며 "틱낫한 스님의 방문을 통해 청빈한 승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 평화 위한 해법 제시- 범어사

틱낫한 스님의 일정은 불도(佛都) 부산으로 이어졌다. 5월 10일 범어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초청법회'에서 틱낫한 스님은 냉전 상황인 남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이날 법회에서 틱낫한 스님은 "평화를 기원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우리 안의 자애로움부터 일깨워야 한다. 불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한 달간의 공동안거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혜로운 재가 리더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지도자와 지혜로운 재가 수행자가 함께 한 달간 수행한다면 남북 평화를 얻을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 안거 시기는 9월 29일 열릴 부산 한반도평화대회를 전후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틱낫한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40년간 이끌어온 수행공동체 프럼빌리지에서 실제 사용하는 네 가지 수행 단계, '내 마음 내 몸으로 돌아가기' '다른 사람 고통 들여다보기' '상대의 모든 아픔 쏟아내도록 하기' '관세음보살이 된 것처럼 연민에 대한 마음 챙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월정사, 중앙승가대= 배현진 수습기자
범어사=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처님오신날 새겨 듣는 틱낫한 스님 말씀 A31면

틱낫한 스님 방한 어록

연민은 우리를 자유롭게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의 명상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어째서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관음보살처럼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몇 분 안에 연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상대와 나를 동시에 치유하게 되며 우리 각자의 고통은 서로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고통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가지십시오. 연민은 우리를 더 가볍게,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5월 4일 월정사, 첫 번째 법문〉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반문하세요

부처님은 사랑을 연민과 자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며, 자애는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를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이에게 줄 가장 최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자체입니다. 자신 안에 행복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5월 5일 월정사, 두 번째 법문〉

자신을 꽃이라 여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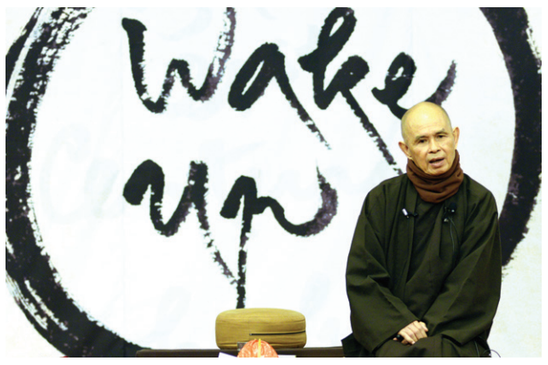
인간은 본래 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인간이란 정원의 작은 꽃입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건 신선한 생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지만, 아이가 자라면 꽃의 생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불교 수행은 우리가 아름다움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만지십시오. 고요한 돌과 같아질 때까지 호흡을 하며 자신을 꽃이라 여기세요. 당신의 신선함을 주변인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감사하십시오. 〈5월 5일 월정사, 두 번째 법문〉

찻잔 속 구름에 미소를

차를 마실 때 찻잔 안에 있는 구름에 미소 지으십시오. 무슨 얘기냐구요? 온 마음을 집중해 차를 마신다면 차 속에 분명 구름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변해 비가 되고 비는 물로 바뀌어 차(茶)가 됩니다. 구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를 마시면서도 구름을 마시는 것과 같지요.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로 모양을 나툽니다. 삶속에서 부처를 느끼십시오. 〈5월 8일 중앙승가대 법문〉

불법은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 안의 분노,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가라앉힐지 모른다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월 10일 범어사 대중강연〉





봉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축

"부모에게 나기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지 성
신도회장 박대성 합장

◆ 만년위패 ◆
해운정사 절 역사와 함께 해마다 세번씩 동참제사를 모셔드립니다.
설날 / 추석 / 중양절 (음 9.9)

◆ 정기법회 ◆ 종정예하 법문
매월(음) 1일 초하루 법회 / 매월(음) 18일 지장재일 법회
매월 24일 관음재일 방생법회

부처님의 79법손
진제 대선사
영·한 홈페이지 www.jinje.kr

해운대 해운정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051)746-2256, 744-4812
해운정사 홈페이지 www.seon.or.kr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법인이사회 대표이사 윤기순 / 이사 이명득, 신상길, 장석학, 송만석, 유명식, 박인해, 이종수, 이봉우, 주형원, 김병태, 차우영, 황의덕 / 감사 동진, 해원

집 행 부

증명대법사 한국불교태고종 대화상 **능인 혜암**
증명대법사 조계종선학원 전, 중앙원장 **성해**
증명대법사 세계불교법왕청 **법열**
증명대법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혜천**
증명대법사 대한불교조계종원로 **법열**
증명대법사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상임고문 신선불교조계종 종정 **진표**
고문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고문 대한불교해탈종 종정 **대광**
고문 대한불교달마선교종 종정 **현광**
고문 진언불교 종정 **도성**
고문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덕천**
고문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해산**
고문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천광**
고문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청해**
고문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고문 대원불교유심종 이사장 **법일**
고문 한국불교조동선종 이사장 **학봉**
고문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자문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담월**
자문위원 대한불교조계종 대덕 **보안**
감사원장 한국불교조계종 감사 **도일**
총재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대행 **각성**
부총재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회장 한국불교조계종 상임이사 **무공**
부회장 한국불교조계종 이사 **운산**
전국지부종단관리위원장 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전국지부종단관리부위원장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중앙종회의장 서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대외협력위원장 한국불교종회의원 **운봉**
법계고시위원장 진묵대사유적진흥회 이사장 **영월**
조직총괄위원장 국제불교조계종 이사장 **성철**
복지재단위원장 해동불교호국조계종 종정 **지현**
재정기획총괄본부장 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이사장 **도현**
비구니진흥원인권위원장 조계종 선학원 원장 **법운**
특임원장 금강불교조계종 종정 **활안**
종책총괄본부장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영산대제보존회회장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사무총장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호계행정위원장 대한불교신조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비구니진흥회감사원장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자연치유대체연구원 한국불교조계종 비구니진흥위원 **도연**
간사 한국불교조계종 이사 **법현**
전사련불교용품사업단 전사련문화사업부 단장 **김부겸**
직능전문위원회 천안목재 사장 **백운생**
법사회단장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대외호국법사단장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의식문화제례위원장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법계고시부위원장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법계고시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회장 **영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대한불교법인통합불교조계종 **지현**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대한불교염불종 총무원장 **호조**

국제종명대법사단

미얀마 미얀마원로회 종정 **우꾸라마**
미얀마 미얀마원로회 원로위원 **아신판디타비밤신**
스리랑카 아스기리아종 종정 **붓가락끼따**
중국 광저우광요사 방장 **명승**
대만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요중**
태국 추라롱콘불교대학 교장 **파,다마커사라**
캄보디아 캄보디아왕사 승왕 **불거리**

원 로 회

원로원장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원로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원로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원로 대한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 종정 **월정**
원로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종정 **운장**
원로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원로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원로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성**
원로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동산**
원로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해철**
원로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원로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원로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원로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원로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원로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원로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원로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원로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원로 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혜승**
원로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원로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원로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원로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벽암**
원로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자 문 위 원 회

자문위원장 대한신불천우종 종정 **일강**
자문부위원장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자문위원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자문위원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아산**
자문위원 전통사찰조계종 종정 **진산**
자문위원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자문위원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자문위원 한국도교수성궁 도장 **금란**
자문위원 환단도 이사장 **태대**
자문위원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자문위원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자문위원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자문위원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자문위원 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자문위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자문위원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자문위원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자문위원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자문위원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자문위원 중생불교조계종등지복지문화재단 종정 **진표**

특 별 위 원

위원장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부위원장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특별위원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특별위원 우리불교우리절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특별위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특별위원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특별위원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월광**
특별위원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특별위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특별위원 대한불교승정원 총무원장 **현각**
특별위원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성도**
특별위원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특별위원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특별위원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특별위원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특별위원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특별위원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특별위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특별위원 용화사월대도 도주 **용화**
특별위원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혜월**
특별위원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특별위원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특별위원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총무원장 **대명**
특별위원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특별위원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특별위원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특별위원 한국불교승가회 회장 **보각**
특별위원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특별위원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특별위원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특별위원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특별위원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특별위원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특별위원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특별위원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전문직능위원회

위원장 (재)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위원 동아석건(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위원 (주)태인목재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원장 **태인**
위원 (주)경방원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솔**
위원 (주)성종 한국범종연구천흥원 원장 **광식**
위원 한국불교미술원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원장 **정규진**
위원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송창일**
위원 천안목재소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백운생**

비구니진흥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원장 **법운**
부위원장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위원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위원 대한불교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위원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위원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위원 목멱사랑회 원장 **재현**
위원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위원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위원 세계평화재단법왕청 이사장 **태산**
위원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위원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복 지 재 단 위 원

위원장 조계종선학원청룡사 회주 **법운**
부위원장 조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중천**
부위원장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무상**
부위원장 해동불교임 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위원 대불조계종 종정 **청해**
위원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위원 유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강**
위원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총무원장 **공산**
위원 환국신앙천신교 총무원장 **법안**
위원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림**

전통문화위원회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서울지부 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부산지부 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대구지부 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인천지부 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광주지부 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대전지부 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울산지부 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강원지부 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경기남부지부 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경기북부지부 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경남지부 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경북지부 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전남지부 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제주지부 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충남지부 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문화 예술협회강원지부 지회장 **병대**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www.kntga.or.kr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WELFARE CORPORATION W.F.B W.F

전국지부 및 회원 모집 안내



이 사 장 윤기순

설립취지서

·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 법인은 고령화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안전생활 생산적 노년 편리한 환경에서 능동적인 고령 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초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실체적으로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환희심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 특히 시방법계 제방 불교인들이 일불제자로서 조화와 대통합을 통해 세계일화로 범종단의 화합을 성취하여 원력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신행을 창조하 는 정토세계를 구현 예토세계의 고통중생에게 무량공덕과 자비봉사의 대원력과 행원을 사회속에 회향시켜 진정한 불교적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가치를 제공하는 불교 복지문화 마케팅 패러다임을 구축 우리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을 다함께 보태 노인 적합형 사회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이 법인은 예비 노인들의 노후대비 정신함양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고령화 사회 마스터플랜의 효율적인 단계별 성과관리 방식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강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 사회복지의 서비스 향상과 노인의 고소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노인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인들이 의식주에서 충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 노인무료급식 및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의 날 효행잔치 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 긴급구호, 난방비, 김장김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불교종단은 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또한 불교종단은 복지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무소득,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불교 종단들도 복지문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하여 포교 및 전법활동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복지문화에 적극 동참하면 사회인과 소통하고 불교의 사회국제 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도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모 집 부 분		
구분	내 용	비 고
종 단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종단, 단체는 회원지부 종단으로 등록가능	등록비 무 료
사 암	각 사암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사찰은 회원사찰로 입회하여 사회복지관련 정보 제공	사찰가입비 무 료
회 원	일반불자로서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봉사체험시설안내	회원가입비 무 료



본 복지재단은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복지혜택문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재단은 승려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종교적 사회적 책임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나눔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이 사 장 윤기순 회 장 각운 무산 총 재 경담 각성 대외협력위원장 성대 무공

■ 사무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317호. 338호)
■ 전 화 : 02)2198-5022~4 / 팩스 : 02)2198-5025 / H.P 010-4167-3666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ASSOCIATION KOREA Buddhism JOGYE OADER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2-43호 / 설립허가일 2012.4.9)
대법원등기등록번호 : 110321-0039311, 등기번호 : 003931

총무원장 직무대행 장 각 성

원로회의장 덕천 원로회부의장 함성도. 노용담. 법현
원로회의원 혜암. 도일. 청광. 대명. 보인. 담월. 보안

중앙종회의장 성대 무공
종 책 원 장 무산 감 찰 원 장 운산 호 계 원 장 운봉 교 육 원 장 혜천
포 교 원 장 윤성해 해외포교원장 동일 비구니진흥원원장 명진
종단기획조정실장 양범수

종 도 일 동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220개 종단 가입)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전국 50개 지부등록)
□ 재단법인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사단법인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사단법인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 종교세계신문사 무교신문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총 무 원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412, 317호
전화 02)2198-5022~4 / 팩스 02)2198-5025
■ 홈페이지 : www.kntga.or.kr / 이메일 jonggyo119@hanmail.net

사자산 적멸보궁

법 흥 사

주지 삼 보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번지 ☎ (033)374-9177 www.bubheungsa.or.kr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금오산 향일암**

주지 원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 전화 061)644-4742 홈페이지 www.hyangiram.org

관 음 성 지 휴 휴 암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자연에서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천 국 사

주지 혜정

사부대중일동



납골당 6천기 봉안도량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자님을 모십니다)

www.cheonguksa.co.kr

(인터넷 천국사효자당)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옥계폭포 입구) 전화 043)742-4414. 010-4115-7960

대한불교천태종

장 엄 사

주 지 **윤갈웅**

신도부회장 **곽철혁**

법회안내

- 정 기 법 회 : 매월 6일 오전 11시
- 일요가족법회 : 5월 19일 오전 11시
- 신행단체법회
  - · 합창단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청년회법회 – 매주 수용리 저녁 8시 일요일 오후 1시
  - · 다도회 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 지장회 법회 – 매주 수용리 오후 2시
  - · 어린이 학생회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주소 : 경북 경산시 상방동 126 전화 : 053)814-2060 / 팩스 : 053)812-8920



선본사 종각 및 범종불사

팔공산 남쪽 봉우리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 부처님)은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범종불사에 동참한 공덕은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현생의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고, 지옥고를 면하여 종을 한 번 칠 때마다 번뇌가 끊어져 복덕이 구족되며 지혜를 증득하고 돌아가신 선망부모 형제들이 극락왕생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선본사 갓바위 연화범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현생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옥고를 면하여, 이 공덕이 자자손손 만대에 이어져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십이상원약사여래불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갓바위 주지 **초암 덕문** 합장

지역별 버스 운행 정보			지역별 버스 운행 정보		
지 역	버스회사	연락처	지 역	버스회사	연락처
부산 (동편자유시장)	골든강남관광	011-557-3777	창원 (신월주공지하도)	성산관광	017-540-9301
부산 (부산역)	골든강남관광	011-590-8868	대전		010-8801-2722
부산 (광안리소호맨션)	오륙도관광	011-579-8065	전주 (시청)	유일관광	011-654-9047
부산 (사상역)	삼성관광	010-7457-8080		길벗관광	011-659-8143
서울 (조계사)	용진관광	02-2279-1191~3	김해	가야고속	010-4583-1880
서울 (전철7호선 수락산역)		010-3069-6809	포항 (해도고속터미널뒷터)	영일만관광	010-3000-0404
울산 (종합운동장)	울산고속	010-6571-7007	수원 (수원북문)	신세계관광	011-245-8369
양산 (신도시 국민은행)	한솔관광	055-372-3333	진주 (문화회관)	뉴해인관광	011-855-9220
영주 (영주오거리)	강남관광	011-522-8055	진주 (MBC방송국)	대륙관광	011-9310-8894
밀양 (구 시청)	밀양관광	011-879-3452	논산 (논산파출소)	아주관광	011-405-3742
			청주 (청주체육관)	스카이관광	043-269-2855

※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종이 완성 되고 타종 이후 매일 축원하여 1,000일 동안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351-0399-5622-1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 053)851-1869, 853-9877, 851-1868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시대정신, 영산불교

1. 현대 물질문명의 병폐 – 21세기, 위기의 시대
2.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영산불교 – 왜 영산불교인가?
3. 인류의 근원적 의문에 대한 영산불교의 대답
4. 구원(救援–고통과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이란 무엇인가?
5. 부처님, 나를 구원해줄 진정한 인류의 스승
6.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 행복한 삶을 위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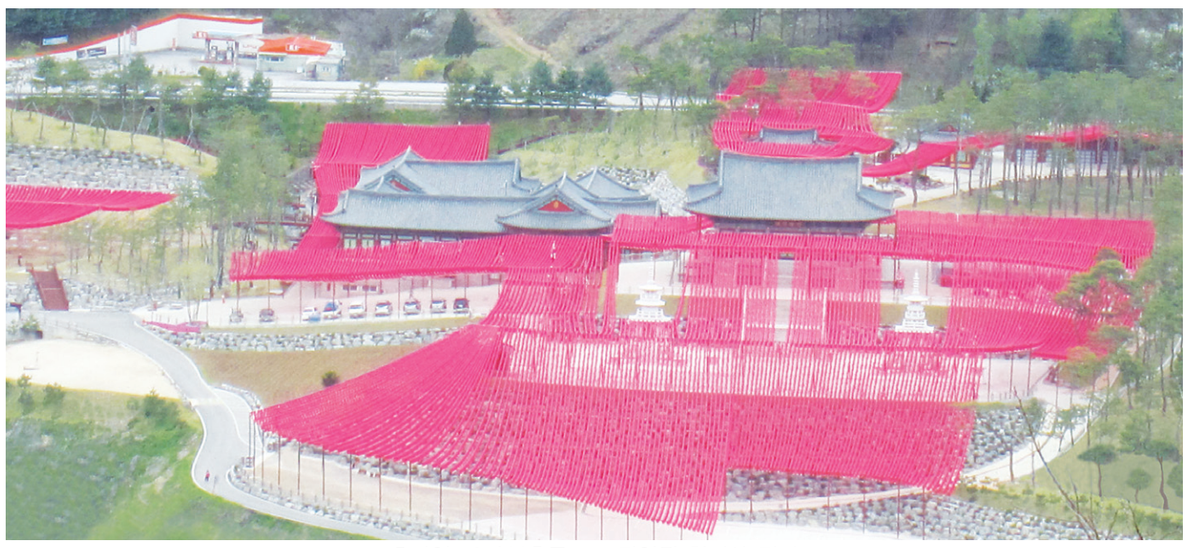
1 현대 물질문명의 병폐 – 21세기, 위기의 시대

많은 학자들이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과 테러, 국가간의 전쟁,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각종 흉악한 범죄와 도덕의 위기, 환경오염과 파괴 등 인간은 스스로 만든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문명의 폐해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시대정신의 결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서구 정신의 두 축, 현대 문명의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실증주의적 합리주의, 유일신 중심의 배타적인 기독교 사상의 한계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1899~1975)는 오랫동안 역사와 문명의 흥망을 연구한 끝에 '문명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종교의 질에 달려 있다' 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토인비는 또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것'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세상과 인생의 진실이고, 어떤 철학과 종교가 인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진정한 구원을 말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파일 10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2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영산불교 – 왜 영산불교인가?

부처님께서는 현대문명의 병폐를 이미 오탁악세(五濁惡世)라는 말로 예견하셨습니다. 영산불교에서는 현대문명의 위기의 본질은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진단합니다. 무엇이 세상과 인생의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 진리를 통찰한 철학이나 종교만이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현대 인류에게 바른 삶의 나침판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인간과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나? ② 나는 누구인가?
③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나?
④ 구원(救援-해탈)이란 어떻게 가능하고 누가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가?
⑤ 어떻게 살아야하나?

기존 불교를 포함해서 동서고금의 어느 누구도 이 근원적 의문에 대해 자신 있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이제 영산불교에서 부처님의 완성된 가르침을 받들어 인류를 향도할 수 있는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서 영산불교의 사상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영산불교는 바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위없는 진리를 설하고 있기에 인류를 향도할 수 있습니다.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3 인류의 근원적 의문에 대한 영산불교의 대답

(1) 인간과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

영산불교는 인간과 우주만물이 우주의 본체, 본성인 공(空)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본성(性)에서 나왔으므로 우주만물의 시원은 자연법칙에 의한 성기론(性起論)으로 설명됩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설하는 화엄가의 성기론은 무아설을 바탕으로 하지만 영산불교는 창조의 주체인 나를 인정하고 주장하므로 유아성기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론(緣起論)은 현상세계의 사물 현상의 본질 즉 무상무아의 공성(空性)의 이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모든 현상적 존재는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기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인연생기의 근원은 스스로를 인으로 하고 연으로 하는 본성, 자존자(自存者) 공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기론은 연기론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우주만물을 창조한 기독교적인 하느님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느님은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지구에 4계절이 순환하듯이, 우주도 성겁(成劫)·주겁(住劫)·괴겁(壞劫)·공겁(空劫)이 있어 80겁을 주기로 생성·운행·파괴·공화(空化)의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과 우주만물이 생겨나는 성겁이 되면, 이 우주 본체의 에너지가 자연법칙에 따라 모든 물질의 질료인(質料因)을 낳고, 질료인은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를 만들고 사대는 우주만물을 만듭니다. 이 때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도, 공(空)에 내재해 있던 인간종자인 공아자(空我子)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1번영체가 본체가 되고, 곧이어 2·3번영체가 갖추어지면서 과거생의 업력이 달라붙습니다. 나 주인공 영체는 불생불멸이요 우주의 주인이며 본체계의 영역에 있는 창조의 주체입니다. 이 업을 지닌 영혼체 곧 비아(非我)가 윤회생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대로 이루어진 물질종자와 인간 영혼체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우주본체의 힘과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빅뱅을 일으키고 가시적 우주가 탄생됩니다. 빅뱅 이후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빅뱅이론이나 대통일장이론은 아직은 불완전 하지만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2) 나는 누구인가? – 인간의 실체는 영혼체

인간은 4개의 영체와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영체는 안쪽에서부터 1·2·3·4번 영체 순으로 계단식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영혼체는 물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파장이 극히 짧고 진동수가 엄청나게 많은 초입자 생명체이고, 의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주체이고 해탈의 주체입니다. 4번영체는 한시적 생명체로서, 나머지 3개의 영체와 육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 영혼체에서 1번영체가 연기 이전의 존재로서 인간의 본체입니다. 영혼체의 색깔과 광도는 바로 영혼체의 청정도를 나타내고 영격(靈格)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이상은 불안(佛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체는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주체입니다. 부처님의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여 영혼체도 없고,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주체도 없다고 말하는 무아윤회론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혼체는 정자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과 함께 인간탄생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수정만으로 잉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혼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자 난자가 생물학적으로 결합되는 수정(受精) 자체만 가지고는 잉태가 불가능합니다.

(3)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나? – 사후세계

영산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윤회세계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3악도에 떨어져 고통의 과보를 받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주의 이법입니다. 영산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를 크게 윤회세계와 해탈계, 그리고 명부(冥府)에 들어가지 못한 무주고혼(귀신)이 가는 중음계로 구분합니다.

① 지옥은 큰 악업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벌을 받는 무서운 곳입니다. 극무간지옥·무간지옥·중지옥·하지옥·대기지옥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중지옥 이상은 영혼체가 흔절할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 자동으로 집행 됩니다.

② 아귀계는 생전에 극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특히 기아와 목마름의 고통이 극심한 곳입니다.

③ 축생계는 생전에 우치하고 사견(邪見)에 빠진 사람, 음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④ 인간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전생의 선악업의 과보에 따라 고통을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향수하기도 합니다.

⑤ 하늘세계는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욕계하늘과 성중(색계무색계)하늘로 나눕니다. 성중하늘은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 수 있어야 가는 하늘입니다.

⑥ 아수라계는 선업을 지었으나 성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하늘 세계로 하늘 안의 별도 하늘세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윤회생사를 벗어난 성자들이 가는 해탈세계로는 아라한 세계, 보살의 정토세계, 부처님들의 무아속 절대계(연화장세계)가 있습니다.

4 구원(救援–고통과 생사윤회로부터의 해탈)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 – 영혼체에 쌓인 악업이 근본원인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인과법의 이치(카르마의 법칙) 때문입니다. 인과법칙에 의하면 착한 행위를 하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善因樂果),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스런 과보(惡因苦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선악의 행위를 통칭하여 업이라 하고 바로 이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영혼체입니다. 이 영혼체에는 인간이 수천만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선악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한 인간의 총체적 인생성적표입니다. 이 인생성적표에 따라 금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악업으로 인한 업장(業障) 때문인 것입니다. 악업을 짓는 원인은 탐진치 삼독심 때문이고 이는 진리에 대한 무지에 기인합니다.

(2)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영체의 업장소멸

고통은 악업의 과보입니다.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다겁생을 살아오면서 지어온 태산같은 악업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체의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영체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에는 자력(自力)이 있고 타력(他力)이 있습니다. 자력은 이때까지 대부분의 불교수행방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삼매에 들어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타력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으로 영산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 칭명염불을 통해 윤회생사를 벗어나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5 부처님, 나를 구원해줄 진정한 인류의 스승

(1) 부처님께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로 실존하신다

영산불교에서는 2600여년 전에 반열반하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인격적 불신으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화엄경 노사나불품〉에서는 이 부처님의 세계를 연화장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그 보신 부처님께서 한국 땅 현지사에 와 계십니다. 영산불교의 두 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실존을 칭명염불 수행으로 대적정삼매에 들어 증험하고 증명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삼신론(三身論)을 체험적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립했습니다. 청정법신불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비인격적 우주적 광명지체(光明智體)이고, 원만보신불은 32상80종호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이며, 화신불은 중생교화를 위해 보신불이 만들어낸 분신체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보신부처님의 존재를 믿고 귀의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동안 중생을 제도해 오신 우주의 법왕

〈법화경〉 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나 되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성불하신 후 항상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많은 생을 사바세계에 몸 받아오시면서 수많은 해탈성자를 길러 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최초로 붓다가 된 위대한 어른이십니다. 무아속 절대계라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세계를 최초로 개척해 들어간 우주의 법왕이시고 삼계의 지존이십니다. 한량없는 겁 동안을 중생을 구제해오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지혜와 자비, 위신력 등 모든 면에서 부처님과 동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성자는 없습니다.

(3) 부처님은 무한한 위신력을 가지신 진정한 스승

우주본체인 공(空)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부처님은 우주의 이법 자체로서 공에 내재된 모든 질료와 에너지와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위신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법과 완전히 하나된 경지에 가야 영혼체에 쌓인 업장을 소멸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본체와 합일된 증거는 바로 무아 속 절대계에 생기는 불신(법신, 보신)입니다. 불신은 무량억종광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무량억종광의 빛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권능이 있으며,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바로 이 무량억종광입니다.

부처님은 현상세계로 나투셨을 때 필요하면 모든 외도 세력들을 삼매화(三昧火)로 포위하여 일시에 제압할 수 있으며,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삼악도에서 건져낼 수 있고, 보살과 붓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등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야말로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救世主)라고 할만합니다. 이 법계에서 부처님 말고 불신과 무량광을 갖추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들어가 빛으로 하나 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모든 붓다님들의 우주적 능력이 합해진 단일 인격체로서 우주적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지구적 차원의 재난과 세계전쟁을 막고 우리나라의 통일과 인류평화를 위해 실질적 구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 행복한 삶을 위한 길

(1)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의·귀명해야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계인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생사해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인격적 불신으로 사바세계 한국 땅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존재와 무한한 위신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야 합니다.

(2) 부처님의 첫 단계 가르침·인과법 – 5계10선을 행하고 공동선(共同善)으로서의 인륜도덕 지켜야

우리가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은 악업의 과보에 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인과법을 통찰하시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구체적 처방이 바로 5계를 지키고 10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우주의 이법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3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세계에 태어납니다. 생천(生天)법문이 바로 이 인과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공동선으로서의 인륜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5계10선이 개인적 차원에서 악(惡)을 막고 선(善)을 행하는 것이라면 인륜도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사회에서 인륜도덕으로 무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웃을 신의와 사랑으로 대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법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효는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중심사상으로서 부처님께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덕목입니다. 살아생전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부모나 조상들의 영혼을 3악도에서 구제하고 우주이법인 불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끊임없는 보살행으로 선근공덕을 쌓아야

불자들은 보살행, 자비의 이타행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섭법(四攝法)을 적극 실천하여 복덕을 쌓고 선근보따리를 열심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혜와 복덕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만 부족해도 날 수 없습니다. 선근공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부처님께 혹은 부처님 회상에 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전이며 선의 완성자입니다. 선근공덕이 많고 클수록 수행의 진전이 빠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높은 해탈세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량이 됩니다.

(4) 부처님을 부르는 팔정도 칭명염불 수행해야

불교의 여러 수행법 중에서도 부처님의 성호를 부르는 염불수행은 대승경전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정통 수행법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칭명염불 수행을 통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셨습니다. 영산불교의 두 분 큰스님께서도 수십년간 목숨을 건 칭명염불 수행으로 부처님의 가피와 지도를 받아 불신을 증득하여 붓다가 되셨습니다. 칭명염불 중에서도 붓다 중의 붓다이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해야 합니다.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비로자나총귀진언) 독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내어 석가모니불을 찾아야 합니다. 칭명염불 수행은 부처님의 청정한 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팔정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보살행을 함께 닦는다는 점에서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불서총판 운주사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종교서적 부문 16주 베스트셀러 1위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033-243-1787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053-654-5557
• 제 주 분 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3 ☎064-783-5355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치겐 이와꾸니시 히라타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042-525-5325

새가 허공을 흔적 없이 날 듯…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9〉



범어사 주지

수도(修道)란

배휴가 물었다.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도가 무엇이기에 수행하려 하느냐?"
"제방의 종사가 서로 계승하여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둔근기(鈍根機)를 이끌어 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된다."

도를 깨닫고 난 뒤에도, 배휴에게는 아직 근심이 남아있다. 여태까지 닦으려고 노력하다가 황벽 스님을 만나서 몰록 돈오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묻는 것이다. 그런데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소화를 못하고 황벽스님께 계속 묻는다. 황벽 스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줬음에도, 배휴는 아직까지 닦아야 한다는 습관이 떨어지지 않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인과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도는 마치 깜깜한 밤에 물을 뿌리면, 아무리 어두워도 물 스스로가 높고 낮음에 따라 알아서 가는 것과 같다. 일부러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둔근기를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상근기(上根機)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시는지요?"
"상근기라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도 얻지 못하거늘,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경전 중에 이르기를,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고 한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무사자오(無師自悟)'라고, 눈 연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아라한과'만 증득해도, 스승 될만한 눈높이를 갖춰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배휴는 아직까지 꼭지가 덜 떨어져서 자꾸 묻고 있다. 대답을 기다려, 하라는 대로 수행해보려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닦아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순간에 '이것을 등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만 확인하고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내려놓으라'는 말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갖다 붙인 어리석은 말이다.

도 닦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대각(大覺)에 들기 위해 부다가야에서 고행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 정도 근기에 있는 사람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난행, 고행'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닦아서 증득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은 그때의 인연이고, 닦음을 가지(加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때의 인연이다.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어떤 말도 소화해내지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훤칠하면 흔들릴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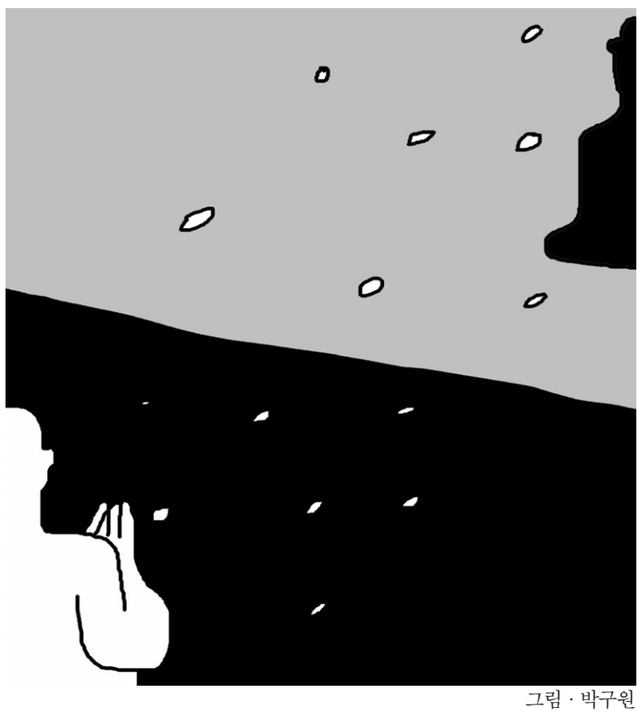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道'는 깜깜한 밤에 물을 뿌리면
스스로 높고 낮음 따라 가는 것

'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
깨닫는 순간 내려 놓으면 그만
'내려 놓으라'도 어리석은 말

"이 법은 허공과 같습니까"
"허공이 언제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공부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법을 설한바 없이 설하고
들은바 없이 듣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무(無)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너는 찾으려 하느냐?"

그냥 온통 그러한 이 일 이외에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느냐?"

끊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허물이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다. 모른다고 해서 찾고 구하는 것도 허물이다. '도'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끊어 없앨 것도 없고, 찾고 구할 것도 없다. 그저 흐름에 맡기고 시간 보내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 법은 곧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허공이 언제 너더러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내 잠시 이렇게 말하니, 너는 당장 여기에 알음알이를 내는구나."

말에 끄달려서 알음알이를 낼 것 없다. 공부가 훤칠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법을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들은 바 없이 듣는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입을 빌어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지만, 허망한 소리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도,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보살이나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 기운이 한없이 뻗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내 일찍이 너를 방해한 적은 없다. 요컨대 알음알이란 뜻[情]에 속한 것으로서, 뜻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알음알이를 내든 내지 않든, 분별할 것이 없다. 본래 알음알이가 없는 것인데, 번뇌망상이 보리열반과 둘이 아님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 짓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다.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없애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때 되면 나타나고, 때 되면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아도 흔적이 없듯이, 그렇게 마음을 쓰라고 했다. 뜻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뜻을 일으키면 큰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흔적 없이 소화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는 동안에는, 분별이니 분별 아니니 따지는 어리석음을 지을 필요가 없다. 수도 없는 생각을 일으키다가도, 한 생각 돌이키면 그저 그만인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⑨



그 나라의 중생들은 어떤 고통도 없으며
다만 즐거움만을 누리므로 극락이라 한다.

〈아미타경〉

극락에 서서

지금 우리에게는, 극락은 참으로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되기 쉽다. 피부에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극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존재하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극락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락은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터에 극락에 가고 싶어지겠는가.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극락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니, 이미 극락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해보는 것이다. 그분들은 무엇이라 말할까? 그 대답에 대해서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상상해 보자.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새터민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살아왔던 옛날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래, 돌아가겠다고 할 사람도 없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례일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까.

"정말 싫다. 다시 그런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세계는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게 그런 것 묻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분에게는 그 나라에서의 기억이 온통 고통스런 빛깔로 칠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밝은 색으로 칠하고 싶다. 애당초 바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는가.

고락반반(苦樂半半)은 고통이다

옛날 나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염리심(厭離心)이다. 싫어해서, 그곳을 떠나려는 마음이다. 그런 염리심이 있지 않다면, 극락에 가고 싶다는 마음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땅에도 괴로움은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느낄 수는 있다. 사바세계라고 해서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즐거움도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반인 경우는 즐거움이라 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에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괴로움은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나라를 희구(希求)할 일도 없을 것이다.

가끔 맛볼 수 있는 기쁨, 즐거움, 혹은 행복은 극락(極樂)이 아니다. 지극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런 기쁨, 즐거움, 혹은 행복 사이사이에 갖가지 괴로움이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기습해 오기 때문이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는 순간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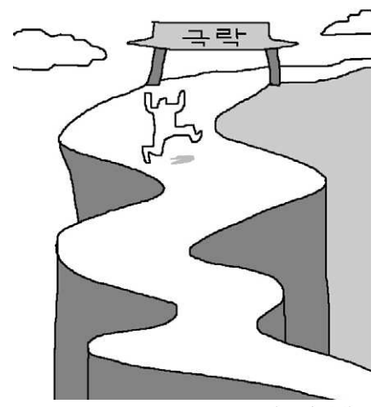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리의 희망과는 전혀 반대로 말이다. 늙지 않고 싶은데, 늙는다.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든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게 된다. 미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게 된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다. 이러한 괴로움이 존재하는 터에, 어찌 잠깐 찾아오는 작은 기쁨이나 행복을 즐거움이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교이다. 그런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완벽한 즐거움의 세계로 가고 싶다. 그런 세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희망이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생들의 희망을 하나하나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이다. 그 희망들을 다 받아들여서, 극락세계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미타불이시다.

나무아미타불!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고문단

수석고문대한불교 조계선종
상임고문(사)국제승가 법왕청
고 문 (사)대한불교 태종사
세계불교 세심종
한국불교 태고종
(사)한국불교 정토종
(사)한국불교 삼론종
(사)대한불교 선종
(사)민족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임제종
대선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지종
대한불교 달마선종
대한불교 교화선종
세계불교 법륜종
한국불교 원각종
한국불교 일광종
한국불교 조계종
현대불교 조계종
도솔천 유마종
교단 용화불교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사)대한불교 해동종
대한불교 광명조계종
대한불교 아미타여래종
한국불교 해심 조계종
(사)대한불교 승가종
(사)대한불교 해인종

만웅 석도일 종정 큰스님
보광 박영래 법황 큰스님
명공 이도성 조실 큰스님
무변 성황 큰스님
원묵 박종숙 원로 큰스님
지산 김노 이사장 큰스님
석봉 전석파 종정 큰스님
효담 박호영 이사장 큰스님
법보 정가우 종정 큰스님
용화 나인식 종정 큰스님
동산 문용호 종정 큰스님
일공 정정수 종정 큰스님
현광 김용익 종정 큰스님
혜명 석혜명 종정 큰스님
법광 강영수 종정 큰스님
혜철 이병출 종정 큰스님
혜우 원종택 종정 큰스님
정암 박우렬 종정 큰스님
만공 김연수 종정 큰스님
무해 김길수 종정 큰스님
천강 김범열 종정 큰스님
혜륜 이윤식 종정 큰스님
해붕 최정웅 종정 큰스님
진공 김완길 종정 큰스님
의천 최상복 종정 큰스님
무진본 최영태 종정 큰스님
월인 강습득 종정 큰스님
해지 천해원 종정 큰스님

총재단

명예총재
(재)한국대승불교여래종 **인왕** 신판석 종정 큰스님

총 재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의륜** 서주범 본회이사장 큰스님

수석부총재
대한불교 열반종 **해곡** 이해근 종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대원종 **정허** 안신풍 종정 큰스님
대승불교 조계종 **법각** 지오 장무송 창종주 큰스님
임제불교 조계종 **적진** 지암 김영홍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해탈조계종 **대광** 문진열 종정 큰스님
(사)한국불교 조계종 **대봉** 이종수 총무원장 큰스님
대한불교 불광종 **청원** 박수웅 종정 큰스님
(사)대한불교율사 조계종 **청파** 안종억(종정대행) 큰스님
국제선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상경찬 종정 큰스님
세계불교 평화종 **고명** 김춘석 종정 큰스님
대한선불교 조계종 **용담** 김무홍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선종 **혜원** 김창관 종회의장 큰스님
한국불교 미륵선종 **혜일** 윤중희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위앙종 **위산** 청해 박인혜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해동종 **송산** 이종완 총무원장 큰스님
대한불교 무량종 **혜안** 정동식 종정 큰스님
선불교 조계종 **대응** 이금철 종정 큰스님
대한불교 대각종 **만청** 이창배 종정 큰스님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지공** 엄외출 장로원장 큰스님

회장단

회 장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청운** 박청운 종정 대종사
상임부회장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 권용원 종정 대종사
수석부회장 한국불교 대불종 **만주** 조성수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청학** 송원진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 선각종 **정암** 마승이 총무원장 대종사
총남불교 조계종 **청암** 도한수 종정 대종사
(재)한국불교 조계종 **보현** 서만득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국불교 자비종 **해광** 전충열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 대승법사종 **지일** 박상갑 종정 대종사
한국불교 반야종 **지법** 한재환 총무원장 대종사
호국불교 효예종 **법진** 신승도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 구산선문회 **법장** 최재호 총무원장 대종사
회천법계 천일종 **법혜** 박수종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일웅** 김철우 총무원장 대종사
대한불교 법계종 **청산** 김규섭 총무원장 대종사
한국건강진흥원 **범부** 운담 종정 대종사
(사)대한불교 수미산문 조동정종 **정림** 석정림 총무원장 대종사
우리불교 조계종 **현불** 이창수 대종사
실 무 의 장 국제불교 조계종 **법천** 유일수 총무원장 대종사
사 무 총 장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설송** 석혜운 대종사
사 서 실 장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 **해안** 조현종 대종사

법인이사회이사장 설악산 불탑사 회주 **의륜** 서주범 대종사
이 사 남한산성 청운사 회주 **청운** 박청운 대종사
아산 만주사 회주 **만주** 조성수 대종사
서울 송림사 주지 **현오** 성부경 대종사
설악산 동해사 주지 **무일** 금숙희 스님
감 사 본 회 임 원 **도광** 천명섭 이사

공동의장

다정 큰스님 / 법각 큰스님 / 법민 큰스님 / 원담 큰스님
법천 큰스님 / 고석 큰스님 / 대한 큰스님 / 관행 큰스님
청담 큰스님 / 도룡 큰스님 / 화엄 큰스님 / 무성 큰스님
법정화 큰스님 / 도열 큰스님 / 청호 큰스님 / 해운 큰스님
무학 큰스님 / 철산 큰스님 / 경암 큰스님 / 일강 큰스님
도암 큰스님 / 경원 큰스님 / 성인 큰스님 / 법정 큰스님
덕암 큰스님 / 범홍 큰스님 / 청산 큰스님 / 법상 큰스님
혜자 큰스님 / 해월 허공 큰스님 / 도운 큰스님 / 혜자 큰스님
죽암 큰스님 / 왕인 큰스님 / 불광 큰스님 / 법장 큰스님
일오 큰스님 / 법안 큰스님 / 법안 큰스님 / 혜광 큰스님
지법 큰스님 / 법진 큰스님 / 혜인 큰스님 / 지공 큰스님
문수 큰스님 / 은성 큰스님 / 묘찬 큰스님 / 법일 큰스님
법정 큰스님 / 법득 큰스님 / 대천 큰스님 / 대성 큰스님
청암 큰스님 / 정오 큰스님 / 연화 큰스님 / 월천 큰스님
호연 큰스님 / 회광 큰스님 / 영월 큰스님 / 조연 큰스님
혜지 큰스님 / 대천 큰스님 / 능인 큰스님 / 원공 큰스님
태함 큰스님 / 원각 큰스님 / 성운 큰스님 / 도광 큰스님
법룡 큰스님 / 동원 큰스님 / 법일 큰스님 / 정산 큰스님
해원 큰스님 / 구암 큰스님 / 수원 큰스님 / 혜륜 큰스님
월인 큰스님 / 대원 큰스님 / 용아 조연 큰스님 / 조윤심 큰스님
성허 큰스님 / 향덕 큰스님 / 법우 큰스님 / 한불 큰스님
황정 큰스님 / 월단 큰스님 / 억조 큰스님 / 혜봉 큰스님
혜원 큰스님 / 해광 큰스님 / 동관 큰스님 / 김재연 큰스님
무진본 큰스님 / 정안 큰스님 / 법륜 큰스님 / 송정 큰스님
정일 큰스님 / 유화 큰스님 / 한울 큰스님 / 덕정 큰스님
각화 큰스님 / 대원 큰스님 / 은곡 큰스님 / 일형 큰스님
전인 큰스님 / 현성 큰스님 / 정림 큰스님 (무순)
해곡 큰스님 / 해만 큰스님 / 덕용 큰스님

〈〈 본회 가입안내 〉〉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는 창회24주년을 맞이하여 본회 창회전문에 의한 단일교단의 사명과 완성을 위하여 현재 가입하지 않은 종단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단일교단으로서 연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단체 가입시 각종 회의와 연합법회의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종단 가입증명서와 대표자 추대장,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 358- 6642 FAX : 02) 358-6643
• 총재 의륜 : 011-352-7751 회장 청운 : 011-726-9325
• 실무의장 법천 : 010-9015-9954 사무총장 설송 : 010-8463-1001
• 인 터 넷 주 소 : http://kbta.cafe24.com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마시는 차 떨어져 급히 서두릅니다"

차를 기다리는 절박한 추사의 마음은 그의 편지에 자주 등장된다. 특히 제주와 북청 유배 시절, 그리고 강상에 머물던 시기에 초의에게 결명(乞茗: 차를 보내달라는 글)을 청하는 글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운한 시절을 보낼 때, 차를 통해 얻은 위안이 컸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차를 통해 그리운 벗, 초의와 소통했고, 울분을 삭이는데 차만한 것이 없었다. 넓은 품을 지녔던 차의 효능은 그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따라서 초의의 수행력이 투영된 '초의차' 는 추사의 어지러운 주변을 정화하기에 족했으리라. 이번 호에 소개할 편지는 (나가묵연첩)과 (영해타운힐)에 모두 수록된 것으로, 초의에게 보내는 그의 절박이 엄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사연은 이렇다.



도판은 (나가묵연첩), 추사의 친필 편지다.

겨우 박아 편에 편지를 부쳤습니다. 아직 (편지가)바다를 건너가기도 전에 뜻밖에 영남에서 온 스님이 찾아와 그대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 노련한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고 편하다는 근황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대나무는 푸른빛을 더하고 연꽃일에 향기로운 바람이 스치는 이때에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대가 머문 곳이 바로 극락국토이니 아미타불을 수없이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래 편지로 차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대도 아는 일입니다. 그대가 손수 법제한 차는 당연히 해마다 보내주시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흥사)후박에서 만든 소단 30~40편 중에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파공(소식)이 말한 거친 차 일으로 만든 차도 청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바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먼저 인편을 물색하여 김용성이 있는 곳에서 편지를 가져갈 것을 상의하여 빨리 부치면 어떻겠습니까. 마시고 있는 차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급히 서두릅니다. 포장은 과연 더 없이 진귀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신선 세계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겨울이 되면 다시 저를 위해 한 단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지도 않느냐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래 두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 작년에 보내온 것을 여름까지도 상에 올릴 수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나머지는 그만 줄입니다. 가을 7월16일

(纔因朴雅付一帙 尙未渡海 猶納意外見訪 並致法帙 藉悉老熟梵況 淸淨輕安 竹深荷凉 不勝神淸念念 師之住處 卽一極樂國土 何必千萬億聲阿彌陀耶 原書亦以茶慰矣 此中茶事甚艱 師所知耳 師之自製法茶 當有年例 不必更言 寺中所造小團三四十片 稍擇其佳 惠及切企 坡公所云蠶芽茶亦足充淨供耳 若待朴生再來時 恐有太緩晩之慮 先圖信便於金珀性處 速付如何如何 所喫將罄 如是控急耳 抱醬果是無上珍味 是自香積界中來者耶 再多少後 另爲我造就一缸 是願是願 無以無厭猜之果經久不損味 前年所來者 能到夏登醞 甚異甚異 餘留不宣 秋七月既望 勘續具)

제주 시절 비교적 안정된 추사의 마음을 드러낸 편지이다. "대나무는 푸른빛을 더하고 연꽃일에 향기로운 바람이 스치는 이때에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다"고 한 내용에선 그의 여유로운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차 재촉은 거듭된다. 대흥사 사중에서 만든 작은 덩이차 30~40편을 구해달라고 한 것 이외에도 "마시고 있는 차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급히 서두릅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차를 보낸 인편으로 김용성이 있는 곳에서 상의하라는 내용도 보이는데, 실제 이 내용은 (영해타운힐)에는 "김모가 있는 곳에서(先圖信便於金某處)"라 하였고, (나가묵연첩)에는 김용성으로 표기된 것이 조금 다르다. 한편 초의는 차 이외에도 진미의 포장(茴囊)을 보내 추사를 위로하였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개안광명은 부처님이 가르쳐 준 일생의 업"

(開眼光明)

손경수 봉사단장(김안과병원)
김용란 부원장(김안과병원)

"부처님 법을 공부해오면서 항상 아름다운 회향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몸담던 개인병원을 그만두고 지인 소개로 2000년 김안과로 옮겨 개인병원서 벌채요가 없어 하지 않았던 수술을 다시 배우며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손경수 봉사단장)

"손 단장을 통해 불교와 봉사의 창 뜻을 배웠습니다. 제가 손 단장님께 젊은 갈동을 받은 것은 50세 초반부터 순전히 봉사를 위해서 20대 초반의 자식같은 레지던트 수련 의사들과 똑같이 수술법을 배우고 치열하게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단장님은 사람이 복을 먼저 지어야 복을 받는다고 평소 강조하셨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법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란 부원장)

2007년부터 팰치고 있는 김안과병원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의 두 주역인 손경수 봉사단장(61)과 김용란 부원장(52)은 봉사 즉 보시행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총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단장의 봉사활동은 1998년 이주노동자 주말 진료부터 시작된다. 캄보디아 해외봉사전까지 10년간 계속됐다. 틈틈이 해외봉사도 2005년부터 다녔다. 몽골을 시작으로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등지서 의료봉사를 했다.

손 단장은 "김안과병원 해외봉사팀이 주로 가는 곳이 캄보디아인데 이는 우연히 인연을 맺게됐습니다. 원래는 2007년 스리랑카로 봉사를 떠날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서 폭탄테러가 일어났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아 행선지를 바꿔서라도 갈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됐지요. 제가 여러 해외봉사단체에 전화를 돌렸는데 로터스월드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봤더니 그쪽 해외팀장이 김안과병원 환자였더라구요.(웃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세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가 마침 2006년에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센터'를 완공했고, 그 안에 김안과병원 진료소를 마련해 줬다. 김안과병원 역시 그 진료소안에 2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증해 수술까지 가능하게 했다.

김용란 부원장은 "캄보디아는 의사, 약사 면허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처방을 잘못 받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허다해지요. 그래서 외국기관의 무료 의료시설이 생기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래서 응급환자부터 치료를 선별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손 단장이 말을 받는다. "처음에는 시설이 열악해 책상을 이어붙여 수술대를 만들고 스탠드를 수술조명으로 썼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해부터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해 간신히 진료실은 갖춰졌지만 편상시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이유는 캄보디아를 통틀어 안과의사가 2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중 절반은 수도인 프놈펜에 있어 이 곳 시엠립에서는 의사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고용 한다해도 의료수준이 낮아 진료가 어렵습니다."

손 단장이 이끄는 김안과병원봉사팀은 2007년부터 시작해 올 3월까지 16회째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1회에 의료진 5명을 포함해 15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그동안 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백내장 수술 8000여건, 익상편을 포함한 기타수술 5000건 등 총 13000건에 달하며, 외래환자 진료만 총 2만여명에 달한다. 캄보디아는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에 위치한 태양이 아주 강열한 나라다. 한 낮에는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기조차 힘들다. 때문에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백내장과 익상편 환자(눈의 한자위가 점점 자라서 검은 동자를 덮어 시력에 영향을 주는 병)가 많고, 환자를 상태도 한국보다 심각한 편이다.

김안과병원 봉사팀이 현지서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환자들에게 약 처방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수술실과 수술 장비를 갖춰 백내장과 익상편 수술도 하는 것이다. 또한 돋보기 및 의안도 제공한다. 이미 이곳 사람들에게 김안과병원 의료봉사는 보이지 않는 눈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간혹 다른 곳에서 수술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김용란 부원장은 그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고 찾아 왔으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줄 텐데 이미 수술을 한 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술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다문화가정 무료개안수술 후 환자와 기쁨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용란 부원장(사진 왼쪽)



김용란 부원장(사진 왼쪽)과 손경수 단장은 불교와 봉사활동에 있어서 멘토(손경수 단장)와 멘티(김용란 부원장)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김안과병원 봉사단을 이끌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손경수, 봉사위해 50세부터 수술법 익혀
김용란, 캄보디아 의료봉사 물심양면 후원
2007년부터 총 16회 캄보디아 무료진료
백내장 수술 8백여건 등 총 1300여건 성공

"맹인들 시력 되찾아 좋아할 때 큰 보람"
내년 KOICA와 프놈펜에 병원 공동 건립

이어 손 단장은 "주로 하는 수술이 백내장인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머무는데 수술기구가 한 대 밖에 없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계속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봉사 현장에 가면 팀원들을 절대 쉬지도 놀지도 못하게 엄격히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봉사 갈때마다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단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를 해야한다는 마음에서죠. 이렇듯 봉사는 자기희생이 있어야만 온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봉사자가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최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봉사 떠날때마다 비용과 시간을 모두 완벽하게 후원해 준 김안과병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용란 부원장도 한마디 거든다. "손 단장님이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는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 봉사는 있었지만 해외의료봉사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손 단장님의 원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지요."라며 손 단장을 칭찬한다. 이어 김 부원장은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안과병원의 창립이념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병원 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의미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한 의료진이 많은 우리 병원은 해외봉사활동시 최상의 의료진들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의료봉사 역시 김안과병원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인터뷰 도중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평생 앞 못 보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보람을 맛보기 위해 힘들지만 봉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답으로 어떤 환자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봉사팀에 쌀과 망고열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들도 뭔가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아서 그 마음만 받지요."라며 환희심을 펼쳐 보였다.

사실 두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다. 야마도 두 의사가 팰치는 봉사도 불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평생의 업(業)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불교와의 인연을 묻자 김 부원장은 "외할머니가 100일기도를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불교집안에서 자라 정서는 있었지만 특별히 신행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년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법륜 스님의 수요법문을 듣고 정토회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나가 공부하게 됐지요. 지난해에는 법륜 스님과 함께 인도 봉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손 단장님 권유로 매일 아침 21배를 하다가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108배를 합니다. 절 수행을 한다고 심적 변화가 금방 오진 않지만 가족들과 환자를 때할 때 이해심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게 느낍니다. 사실 의사 생활을 계속하면 냉정해지는 면이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지요." 이어 김 부원장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마음프로그램인 '깨달음의 장' 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걸 내려놓는다는게 바로 이런거구나 체험하게 됐지요. 그리고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도 깨닫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손 단장도 불교와의 인연을 얘기했다. "저는 사찰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기도하며 신행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108배 수행을 하고 있지요. 불교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불자라면 보시행을 펼치는 것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니 내 자체가 한낱 망상덩어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돼기로 서원을 세웠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동네 안과서 간단한 치료만 했거든요. 결심이 서자 김안과로 자리를 옮겨 백내장 수술법을 열심히 배웠지요. 50대 초반이었지만 20대 젊은 친구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출근도 남들보다 일찍하면서 어시스턴트도 마다 않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익혔습니다. 해외의료봉사에 꼭 필요한 백내장 수술법을 배워야 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던 손 단장은 다시 말을 잇는다.

"저는 수술 할 때 움직이는 환자의 눈을 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자분히 가라앉히죠. 의료사고를 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수술실에서 제 내면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히려 일체망상과 잠념이 없어져서 편안해집니다. 수술과 수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삶의 습관도 생겼어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이럴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하고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는 계속 할 것이라는 두 의사 보살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프놈펜에 병원을 건립할 예정인데 여기서 현지의료진들을 교육시켜 병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외국인 설립자가 세운 세브란스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웠듯이 체계적인 병원시스템을 구축해 미니 김안과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말씀처럼 우리 김안과병원이 캄보디아의 세브란스병원 처럼 맹활약을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손경수 단장(사진 오른쪽)이 2011년 10월 캄보디아 의료봉사서 환자를 검진하고 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자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圖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전법일기

어르신들은 무엇을 원하나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 영화관람

아마 2009년 2월 말이었다. 울산 해남사 주지 스님이 내게 전화한 게, 만초 스님은 신도들과 영화(워낭소리)를 단체관람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다면서 우리절 신도님들도 모시고 가라고 권했다.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극장의 담당과장을 만나 무료급식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람자의 수가 적은 화 · 수요일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람하는 조건으로 1인당 2천원씩으로 할인하되 200명 이하에는 무조건 200명의 관람료를 내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2천원씩 추가하기로 했다.

영화관람 당일에는 관광버스를 세 대 빌리고 생수 한 병씩과 삶은 달걀 2개, 참깨넣이를 한 봉지씩 비닐백에 담아드렸다. 원래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처음엔 난색을 표하더니 마지못해 원칙을 깨고 허락하여 주었다.

그날은 딱 200명이 극장에 동행했다. 어르신은 170명, 나머지는 우리 젊은 신도였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알일이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혀드렸고, 어두운 곳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나는 스크린 앞으로 나가서 어르신들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서 앞으로 매년 봄 · 가을로 영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소리 내 웃기도 하고, 때로는 혀를 끌끌 차기도 하면서 영화를 보셨다.

영화가 끝난 뒤 어떤 어르신은 "평생 극장에 처음 와봤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면서 "40년 만에 왔다"고 감격스러워 하셨다. 어떤 분은 부모 생각으로,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생각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셨다.

그 이후, 봄 · 가을만 되면 나는 영화를 고르느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어르신들의 영화는 제약이 많았다. 자막을 보기 어려웠으므로 외화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영화를 골라야만 했다.

두 번째 영화는 이순재, 장동건, 고두심이 주연한 (굿모닝 프레지던트). 당시에는 신종 플루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버스 출발 전에 어르신들의 체온을 재어 신종 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가자 전원에게 영화관 입구에서 세정제로 손을 세척하게 하였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를 드렸다. 이듬해인 2010년 봄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하모니), 가을에는 코믹영화 (불량남녀), 2011년 봄에는 노년의 사랑과 애환을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여드렸다.

나와 신도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00명이었던 참석자가 173명, 130명으로 계속 떨어지더니 마지막엔 7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에는 봉사자들도 제법 되었으므로 실제 어르신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1년에 두 번 영화를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으나 어르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르신 공양일에 맞춰 영화관람을 하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공양만 하시고 극장행 관광버스는 외면했다. 왜 극장에 가지 않으시냐고 어르신들께 여쭈었더니 "경로당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고도리 치는 게 더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어르신 영화관람은 다섯 번으로 마치고 말았다.



그림 · 박구원

다섯 차례 단체 영화관람 마련
공양과 여흥거리 더 좋아해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수순중생원(隨順衆生願)이 있다. 이웃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려면 공양 후에 새를 잠도록 화투를 몇 벌 갖다드려야 할 텐데, 그럴 순 없지 않은가. 절에서 뭔가를 하는 것, 참 어렵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혼은사



운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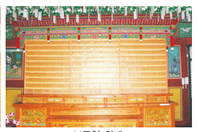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대)



(소)



(인등용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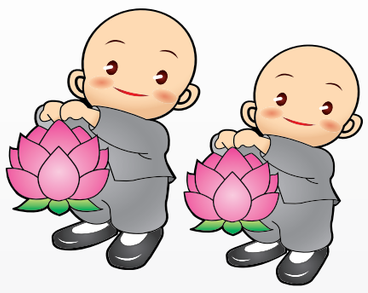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18 | 전면광고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자신이 지은 선악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에 이른다. 〈무량수경〉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부의장 대운
부의장 금용

중앙종회 의장 도산
부의장 혜공
부의장 원담

총무원 원장 인공
부원장 청봉
총무부장 능해
교무부장 태응
재경부장 혜산
문사부장 지허
규정부장 도암

호법원 원장 운곡
부원장 일운

종도일동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총무원
총무원장 장도정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김갈수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이보광
규정부장 이갈지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 김형규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2557 BUDDHA'S BIRTHDAY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총인 성초

통리원장 회정
종의회의장 혜명
현정원장 증광
교육원장 경당
진각대학원장 회성

총무부장	덕정	교무국장	법경
교무부장	원명	기획국장	능원
기획실장	혜언	재무국장	수혜
사회부장	호당	건설국장	진광
예경실장	덕정	교법연구국장	혜담
교학처장	정효	종의회 사무국장	관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불기2557년

奉 부처님 오신 날 祝



- 관음종 연희단-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환희롭게 봉축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종로 63가길 31) / Tel : 02)763-0054 / Fax : 02)763-5851 www.kwanum.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원로원장 성인
원 로 원 선명. 신수. 정각. 법성
승정원원장 평신

중앙종의회 의장 해안
총무원부원장 승덕 총무부장 정안 감찰원장 해주 종정예경실장 대천

교육원장 도현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담원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진월 사업부장 태상 국제포교부장 도우. 체상

부산종무원장 해운 전라종무원장 혜천 충청종무원장 의성 경상도종무원장 우담
경북종무원장 성군 경기종무원장 정안 강원종무원장 보원 제주종무원장 원각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勉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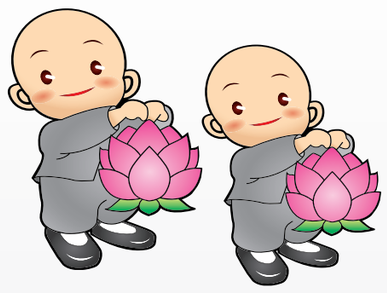
元老院長 正觀
總務院長 鏡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선율 포교부장 서희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대원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광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A19 | 전면광고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더러운 집착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요 진여인 것이다. 〈화엄경〉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 등**

중앙종의회 대행의장	**지 광**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일동
재무부장	**우 인**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수 현**
교정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 공**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종의회 의원	법장원	중앙교육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전당건설 위원회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초록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월. 보아**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무공**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무진**

총무국장 **보현** 재무국장 **자운** 교무국장 **보선** 경호국장 **정목**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석진 지공**

총무원장 **경원**

원 로 : **도기. 무찰. 수암. 원각. 해월. 혜성. 혜운. 혜천**

재단이사장	**경원**	종회의장	**법선**	호계원장	**법성**	강원동부	**보해**
재단부이사장	**일명**	종회부의장	**고봉**	교육원장	**법해**	강원서부	**동청**
상 임 이 사	**혜광**	종회의원	**도혜**	감사원장	**석성**	경기남부	**대각**
이 사	**혜운**		**일명**	선거관리위원장	**지언**	경기북부	**도허**
	도기		**제법**	총무원부원장	**용운**	경남교구	**승원**
	경담		**지연**	총무부장	**동청**	대전교구	**경담**
	법도화		**청호**	규정부장	**만성**	대구교구	**도정**
			현암	재무부장	**도허**	부산교구	**령산**
감 사	**혜천**		**혜등**			인천교구	**용운**
			혜일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현오**
						충남교구	**호암**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1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991-8176
www. ilbung. org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김혜승**

부 종 정 **이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지운. 진봉. 지심. 명산. 해불. 성희. 명재**

총무원장	**지민**	총무부원장	**혜관**	종회의장	**지경**	서울경기교구원장	**보명**
총무부장	**성우**	재무부장	**정덕**	종회부의장	**해산**	충북교구원장	**지허**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혜암**	종회의원	**보명. 도희. 일선**	전라남북교구원장	**명재**
사회부장	**무간**				**지향. 성현. 성각**	충남교구원장	**지향**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일천. 정연. 정덕**	경남울산교구원장	**해산**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어산. 법산. 지화**	대구경북교구원장	**법산**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지연. 성우. 성덕**		
기획원장	**도희**	기획부원장	**성각**		**무간. 혜암. 명재**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혜인**		
교육원장	**남륜**	감사원장	**지법**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봉축사]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땅에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인류와 함께 봉축(奉祝)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스스로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투셨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을 통해 수많은 인류를 제도하셨으며,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분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함축적인 말로 인간존엄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자신과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고 미래 부처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엄청난 고행과 수행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류 중생을 제도하신 가르침은 오늘날 물질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그 거룩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밝고 인정 넘치는 자비 충만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 전화 0502)321-3333 / 팩스 043)847-0118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종 정 : **덕찬당 지명** 부종정 : **덕룡당 법공** 승정원장 : **덕담당 심월**

총무원장 : **덕우당 대은** 중앙감찰원장 : **행성당 덕성** 중앙종회의장 : **행봉당 해륜**

승 정 위 원 : **원봉**	중앙호법원장 : **혜천**	남해종무원장 : **청운**	총 무 부 장 : **고우**
승 정 위 원 : **혜공**	중앙문화원장 : **보경**	경북종무원장 : **혜법**	재 무 부 장 : **명원**
승 정 위 원 : **법광**	중앙교육원장 : **광혜**	경남종무원장 : **무일**	교 무 부 장 : **월광**
중앙종회부의장 : **운성**	중앙율원장 : **우담**	영동종무원장 : **혜공**	포 교 부 장 : **청정**
중앙종회부의장 : **혜광**	중앙포교원장 : **해권**	강원종무원장 : **혜각**	문 화 부 장 : **송담**
	부 원 장 : **법화**	기 획 실 장 : **혜산**	규 정 부 장 : **소담**
	부산종무원장 : **정민**		총 무 국 장 : **시권**
	영남종무원장 : **혜오**		사 회 국 장 : **법문**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4번지 도선사 전화 : 02)2091-0408

(사) 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 송천**

총 무 원 장 **법 산 영 봉**

사 정 원 장 **법 천 지 산**

원로원장 **월서** 승정원장 **무상**

총무원부원장 **동인**

중앙종회 의장 **법 화** 중앙종회 부의장 **정인. 정암** 중앙종회 사무총장 **현 우**

포교원장 **정산**	부 원 장 **정무**	문화원장 **덕일**
고시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수선원장 **도공**
비구니원장 **지명**	부 원 장 **정연**	

서울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부산교구원장	**송원(산천사)**	대구교구원장	**정산(범룡사)**
울산교구원장	**덕일(도성암)**	대전교구원장	**정연(대림정사)**	강원교구원장	**지명(지명정사)**
경기교구원장	**정안(금강정사)**	충북교구원장	**도명(대륜사)**	충남교구원장	**무상(천본사)**
전북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남교구원장	**혜신(남해사)**	경북교구원장	**정암(정암사)**
경남교구원장	**덕산(광천사)**	미주교구원장	**정화(신화사)**		

■ 총본산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전화 042)524-2149, 935-2279 / 팩스 042)526-2149

육성 법어

“여러분과 같이 살아 있는 겁니다” 되새겨

대행선사 추모글

“바람 불고 파도 일렁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혜지 스님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장)



1년 전 법체 거두시던 날 저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절대 잠들지 않으리라, 늘 깨어있어 정진하리라. 모든 인연들 둘 아니게 품고 사랑하리라. 오직 공심으로 부처님 심부름 하리라.

그런데 하루해가 뜨고 지는 속에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렁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스승님께 바쳤던 맹세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산정 실내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는데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겠다.” 어딜 가시는지 무얼 하시는지 모른 채 저는 무조건 휠체어를 밀며 뒤따랐습니다. 오직 지심귀명례, 감사 감사하고 발원 발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스님 뒤를 따랐습니다.

저희가 휠체어 붙잡고 일어서고 저희가 휠체어 밀며 걸을 수 있도록 스님께선 그렇게도 오래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까? 저희 모두 스스로 일어서고 저희 모두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스님께선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당신께서 걸으신 ‘길 아닌 길’ 걷는 자유인 되라고 그렇게 그렇게 가슴 가슴마다 크나 큰 자비의 유산 뿌려 놓으셨기에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바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파도도 넘어서며 길 걸어갑니다.

언젠가 제게 필요한 말씀 해주십사 청하였을 때 스님께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으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스승이시여, 천만번도 더 들었을 이 법문이가장 깊은 곳에 화인(火印)으로 새겨져 천만번도 더 이 몸 일으켜 세우고 이 마음 살려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선 당신의 평생 삶을 통해 당신의 일체 행으로써 증명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남은 삶을 통해 저희의 실천 행으로서 천만분의 일이라도 증명할 차례입니까?

큰스님! 이렇게 한번 간절히 부르면 찾는 그 마음에 이미 대자비의 눈길로 함께 하고 계시는 당신은 영원한 스승이시니 저희는 단 한순간도 큰스님을 보내드린 적 없습니다. 오늘 원적 1주기를 맞이하여 한 시도 저희 곁을 떠난 적 없으신 스승님을 새롭게 다시 가슴에 모시며 제자 혜지 올립니다.



주지 혜원 스님이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 헌향하고 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행 스님이 평소에 쓰시던 찻잔에 차를 담아 헌다했다.



대행 스님의 200여 제자 스님들은 스님의 1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오늘, 스님의 ‘한마음 법’ 법비로 내립니다”

대행 선사 1주기 추모 다례재…10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봉행

사부대중 7천 명 동참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의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이 5월 10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안양의왕군포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최대호 안양시장,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 7000여 명이 대행 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했다. 다례재는 인터넷방송 ‘유나’ 진행자인 정목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는 제자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는 종사영반(宗師靈飯), 헌다, 헌향, 추모 편지글 낭독이 진행됐다. 이후 부도탑 건립 취지 및 조성 과정 영상 및 대행 스님 법문 상영과 추모 음성공양이 이어졌다.

종사영반은 조계종 영산재 이수자이자 어산장 비구니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이어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헌향(獻香)을,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다(獻茶) 했다. 대행 스님이 원적하기 바로 전까지 일생을 스님 곁에서 소임을 맡았던 혜수 스님은 대행 스님이 평소에 사용하던 찻잔에 맑은 차 한 잔을 담아 각령전에 올렸다.

이날 한마음선원 시카고 지원장 혜지 스님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 한스욕 에플레(독일 베를린 의대 교수) 씨가 대행 스님을 추모하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한스욕 에플레씨는 독일어로 읽고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이 통역했다.

대행 스님은 원적했지만 불사는 스님 계실때와 다름없이 하나씩 완성 돼가고 있다고 정목 스님은 대행 스님 입적 후 지금까지 있었던 불사 소식을 전했다.

“2012년 11월 11일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새법당이 준공됐습니다. 대웅전은 최기영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등 시대의 명장들이 대거 참여해 현대 한국불교건축사에 다시없을 예술품으로 조성됐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포교에 힘을 실었던 대행 스님 뜻이 값진 열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자살과 폭력, 왕따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열어준 대행 스님의 혜안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대행 스님의 부도탑을 조성하게 된 동기와 취지 및 과정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영상에서 대행 스님은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 계시면 그냥 여러분으로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있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라고 법문했다.

대행 스님은 평소 출가제자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가 돼라”라고 일렀다. 제자 스님들은 그 뜻을 새기며 지난 49재에 이어 올해도 선법가 ‘대장부’를 스님 영전에서 불렀다. 이어서 한마음선원 본원 선법합창단이 선법가 ‘자유인의 한마음’, ‘공무가’를 불렀다.

추모 다례재 마지막에는 주지 혜원 스님이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선사 추모글

“스님의 사랑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한스욕 에플레 (독일지원 신도회장)



한스욕 에플레(우) 교수의 추모글을 독일 지원장 혜진 스님이 통역했다.

15년 전 저희 가족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양본원에서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큰 행운을 만났습니다. 당시 네 살이었던 제 큰아들 모리츠는 스님을 처음 뵙던 친견실에서 일어나야될 때가 됐는데도 도통 스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모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마치 하늘의 천사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열아홉살이 돼 독일에서 대학입시를 치루고 있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해 세상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어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 내면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모두가 마음공부를 통해 영원한 참 자기를 발견해 진정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셨습니다.

1996년 스승님께서는 독일땅에 유럽을 향한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손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만물만생을 조건 없이 안으시는 대행 스님의 무한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스님의 대자대비는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울리며, 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지원 모든 불자들은 큰스님을 절절하게 그리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예전에는 스님께서 안양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가 나고 힘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니야, 스님은 계시잖아. 여전히 우리들 곁에,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잖아.’ 하는 뚜렷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영원토록 같이 걸어갑시다.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비심으로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스승님, 대행 스님을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며 정성을 다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石板 고려대장경 初版本 古佛 및 點眼 법회



석판고려대장경 초판본 견본
(세로 1m50cm 가로 78cm 두께 4cm)

삼보에 귀의하옵나이다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전국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은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옵니다.
저희들이 고려 팔만대장경을 석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진행하여 온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시행해 오던 차에
지난해 드디어 완성된 표본을 조성하기에 이르러 각자(刻字) 제작소를 설치, 판각 조성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성보관 1동(棟)에 봉안할 만한 량의 석장경이 조성되어 그 초판본을 부처님께 고(告)하고
점안(點眼)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강호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불자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법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년 4월 8일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신상길 합장

일 시 | 2013(불기2557)년 6월 28일(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 고려대장경 석판본 제작소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18-1
전 화 | 054)533-5670

탑으로 나툰 대행선사 가르침 '영원한 법등'


대행 스님 추모 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 사회를 본 정목 스님



대행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대행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는 가로 3m, 세로 2.1m, 폭 2.3이며 기초는 화강석이고, 탑의 원석은 경주석이다. 경주석의 특징은 단단하고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입자가 곱기로 유명하다. 미색이면서 약간 붉은 빛을 내어 따뜻한 느낌이 들고 하나의 통돌을 이루고 있다. 부도탑의 둥그런 구는 만공에 연꽃 피어 만 가지 향이 두루 함을 보여주며, 또한 이 구는 열매를 상징하며 꽃 피어 열매 맺으니 만 가지 맛을 내어 만 생명을 먹이고도 되 남음을 뜻한다. 주장자 기둥에 받쳐올려진 연꽃잎의 둥근 구가 돌아가는 모습은 무의법, 유의법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 평등공법을 표현하고 있다. 한마음에서 일체가 들고나니, 한생각에 벌어지는 생명력을 싹으로 표현하고, 기단석은 하나의 원석으로 한마음을 뜻하는 전체 형상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근본과 나툼이 둘 아닌 도리이다. 평등공법과 만공에 연꽃 피어 만 가지 향이 두루하는 끝없는 길을 사이 없이 걸으신 대행선사의 한마음 가르침을 그대로 조형한 이 탑은 대행선사 법의 화현으로 나투었다.


한마음선원 문도와 내빈들이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많은 신도들이 서산정 다비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대행 스님의 일상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됐다.

대행 선사 부도탑 서산정서 제막

대행 스님의 다례재 봉행 후 사부대중은 부도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행 스님의 다비식이 열렸던 '서산정'으로 향했다.

스님의 다비터에 새싹이 돋아나고 서산정에도 변함없이 계절이 흐른다. 스님의 뜻과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이미 많은 신도들이 서산정에 도착해 다비터 주변을 둘러싸고 합장하며 서 있었다.

사부대중의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동희 스님이 제막의식을 집전했다.

이후 인환 스님, 원행 스님, 혜원 스님, 혜수 스님, 박재원 한마음선원 신도회 고문, 박종수 신도회장 등 문도 및 내빈은 사부대중의 "불 · 법 · 승" 선창을 따라 외치면서 부도탑을 감싼 천을 거뒀다.

사회를 본 정목 스님은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저 부도탑에도 돌옷(이끼)이 필 것입니다. 비문의 글씨도 흐릿하게 지워져 먼 훗날 세월이 지나 글씨를 알아보는 이가 적어진다해도 스님을 그리워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제자들과 신도님들의 마음만은 굳건하게 땅을 딛고 선 저 부도탑처럼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부도탑 비문에는 '마음 근본이 탑이 됨이라 고정됨이 없이 마음이 나투어 돌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마음내어 만물만생에게 자비의 마음 뿌리리라 만공에 연꽃피어 향기 두루하니 만 생명이 더불어 공식하여지이다'라고 새겨졌다.

이후 다시 주지 혜원 스님이 헌화를, 혜수 스님이 헌향을 한 뒤, 대중이 함께 선법가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푸르게 살라'를 불렀다. 이어서 대중이 선법가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부르는 동안 한마음선원 국내 · 외 지원장 스님들이 탑주변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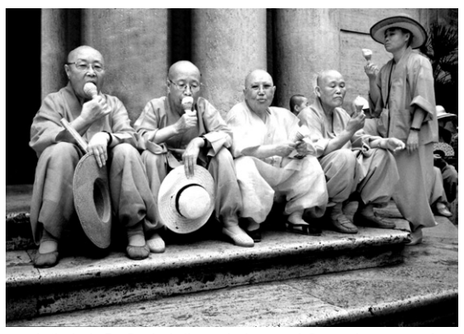
이정우 씨는 "이번 추모제를 치르면서 스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부도탑 보면서 기쁜 마음이 교차했다"라며 "스님의 법체는 가셨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소진 씨는 "1년 전 대행 스님이 원적하시던 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스님이 안 계셔서 슬프기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 이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산정 뜰 안에는 대행 스님의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 100여점이 전시돼 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도들은 스님의 사진에 합장했다. 사진전은 5월 15일 까지 열린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선사 사진전


미국 모건힐 대법회 후 농구공을 던지는 대행 스님


독일대법회 후 유럽여행중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큰스님들


수목원에서 스님이 개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2006.6.23)


원당 잔디 풀을 뽑는 대행 스님


서산정의 눈을 바라보시며 (2010)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봉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축

종정 봉진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종무원장 운고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대진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불국사(봉진) 운고사(운고) 불심정사(혜관) 백련암(문정) 지장사(영광) 동방사(법운)
쌍암사(덕산) 화성암(성화) 금정사(덕심) 불현사(대공) 갑룡사(해인) 극락정사(석도)
법성사(법룡) 용연사(취암) 약불암(혜각) 대연사(일화) 문수사(성묵) 태극선원(도일)
현덕사(대공) 금강사(금강) 약샘사(대진) 무량서원(무량) 미륵정사(혜월) 쌍봉암(쌍묵)
도암사(경담) 향비암(혜안) 미정사(운선) 법광사(태담) 천광정사(취운) 약수암(법륜)
미륵정사(미정) 내원암(혜인) 청호암(혜인) 개남사(해심) 범굴사(무법) 약불암(무여)
칠성암(사우)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당포사(종철) 천자암(무우)
보광정사(자공) 성불사

■ 총본산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50, 불국사 055) 521-1236 ■ 총무원 : 천광정사 055) 286-7766 ■ 사정원 : 불심정사 052) 275-5539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국제선센터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ternational Seon Center



주지 **탄 웅**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포교원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기본교육, 불교대학)
조계종 템플스테이 외국인 상시운영 거점사찰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도량
일요법회, 어린이 · 청소년 · 청년법회, 영어법회
금차선원
신행단체 – 합창단, 거사회 등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11(양천세무서 옆) ☎ 02)2650-2200
www.seoncenter.or.kr / www.facebook.com/seoncenterts

불기2557(2013) **부처님오신날**

행복바라미 : 와 함께 지극정성으로 찬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그간 부설법인 (사)날마다좋은날 통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극빈 국가 해외의료봉사 활동 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은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범국민적 사회공헌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그늘진 곳, 소외된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희망 등, 행복바라미 등을 밝혀 부처님전에 공양합니다.

불기2557(2013)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이 기 흥** 합장

행복바라미는 5월12일까지 캠페인 기간 전국 108개소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거리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연중 행복바라미 모집요원의 카드기부 단말기 운용과 행복바라미의 법적 기부계좌 국민은행 023537-04-003561 사)날마다좋은날 로 기부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참조)

※행복바라미에 기부한 전액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군 종 특 별 교 구**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젊은 장병 불자들의 포교 전당인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현재 신축법당에서는 1200분의 원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평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원불 모연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 **군 승 일 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해군중장 원태호**

원불 후원계좌번호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 협 301-0063-3042-71 예 금 주 :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www.gunindra.com
ARS 후원전화 060-700-0108 ☎ 02)749-8646,797-7266

봉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축

dongguk UNIVERSITY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총명하고 따뜻한 인재를 키워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적 소양을 갖춘 청년 지도자 육성!
불교적 가치의 현대적 구현!
'나'를 돌보고 '세상'을 치유하는 불교!

봉축

부처님 오신날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web.dongg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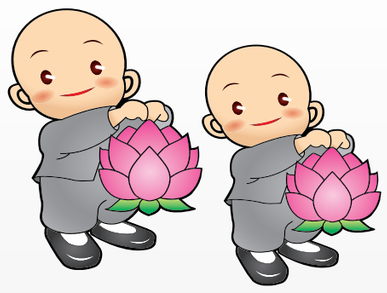
잘가르치는 ACE UNIVERSITY
명품 ACE 대학



ACE Dongguk 人 양성
교육과학기술부 (2013~2017)
•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획득
교육과학기술부 (2011~2014)
•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지식경제부 (2010~2015)
• IPTV 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기반 구축사업 선정

Global Dongguk 人 양성
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 국제화부문 전국 15위
• 외국인 교수 비율 전국 8위
• 영어강좌 비율 전국 19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A23 | 전면광고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산 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선행을 부지런히 하라. 〈발심수행장〉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헌화**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 원 장 **법전**
고시원장 **혜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법성**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대안**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고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도명**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스님위한봉사)변호사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원로원 **대원. 관곤. 보명. 대봉. 대월**

종 정 **범해 대화** 사서실장 **경산**
부종정 **동광. 법용**

총무원장 **만혁**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건일** 복지원장 **대천** 염불원장 **대황** 문화원장 **우담**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혜공. 지명**

부산경남종무원장 **동광** 대전종무원장 **지천** 경북종무원장 **자광**
충북종무원장 **대월** 강원종무원장 **진묘**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혜원** 재무부장 **성문** 규정부장 **만공**
사회부장 **정오** 복지부장 **지연** 조직부장 **도광** 포교부장 **자관**

종회의원 **자광. 법훈. 원각. 감로. 용담. 원광. 광덕. 부용. 지선. 진묘 관공. 자관. 혜은. 지효. 성각. 중정. 지혜장. 지명. 혜원. 용우 법천. 지현. 청련행. 공덕화. 대광**

전국신도회장 **신장호(대광)**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불.법.승 삼보님 은혜 온누리에 사팔봉축 가득히

(사) 대한불교삼보종

三寶曹界宗

1세宗正 滅空대종사
名譽宗正 太然대종사

元老院長 금산 副院長 정공 副宗正 회천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원명** 호법원장 **법천**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법경**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도광**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복지원장 **원각** 염불원장 **청산** 건설원장 **보각**
국제원장 **남산** 무예원장 **산인**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재무부장 **법진** 교무부장 **무진** 기획실장 **선묵**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복지부장 **보우** 포교부장 **혜수** 사회부장 **지명**
문화부장 **법고** 교화부장 **해운** 총무국장 **지일** 교육국장 **무선** 사회국장 **성수**
포교국장 **성조** 문화국장 **도문** 감찰국장 **선가** 염불국장 **진각** 홍보국장 **강천**

서울교구 **수산** 경기교구 **법인** 강원교구 **보산** 인천교구 **불광**
대구교구 **각원** 경북교구 **용현** 경남교구 **법융** 울산교구 **도연**
부산교구 **송파** 대전교구 **해공** 충남교구 **정용** 충북교구 **지원**
전남교구 **성종** 전북교구 **청광** 중국교구 **정륵** 일본교구 **수원**
스리랑카교구장 **해국** 사 무 장 **손은진**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삼보빌딩 6층 / 전화 055)334-1122. 338-0089.
서울 사무소 02)927-3040

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법청 천광**
원로원장 **법해 도림**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성 정산**
교육원장 **법기 무여** 고시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법신 노정**
포교원장 **덕일** 종정사서실장 **성각** 기획실장 **법장 원해**

서울종무원장 **경심** 경기종무원장 **무상** 강원종무원장 **탄해**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범중**
재무부장 **혜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총무국장 **화련** 사회국장 **화선**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사) 임제불교 조계종

종 정 적진 지암
부종정 적공 자은

원로원장 **석진도** 원로위원 **석지언. 석법성**

총무부원장 **제현** 문화원장 **지훈** 사회원장 **지오**
복지원장 **보원** 조직부장 **묘화** 총무부장 **덕화**

서울종무원장 **재현** 경북종무원장 **법인** 충북종무원장 **경오**
경기남부종무원장 **보국** 경남종무원장 **자범** 충남종무원장 **보공**
경기북구종무원장 **도광** 전북종무원장 **법공** 전남종무원장 **혜관**
강원종무원장 **금화**

중앙신도회장 **나용수(원만)**
지역신도회장 **장순자(극락화)** 문화사회복지원장 **박봉근(해산)**
지역신도부회장 **김정순(묘연화)** 건설사회원장 **김동만(성덕)**
지역신도총무 **김도연(덕화행)** 지역신도총무 **윤종일(대안)**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전 화 : 061)644-7273, HP 010-3807-8428

허가번호 2008-1-56-호. 등록번호 13467-0002921호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 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무 각** ((사)한국불교정토종 前총무원장)
향 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법 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본 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일 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덕 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대 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고** (대한불교법사종 종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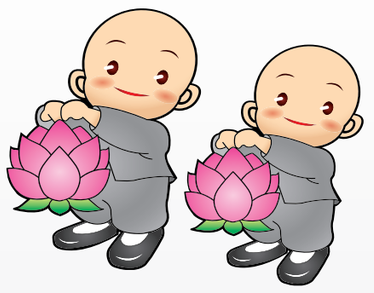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031)262-1577 FAX 031)262-1353

A24 | 전면광고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더러운 집착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요 진여인 것이다. 〈화엄경〉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종 정 **혜봉**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중 앙 종 회 의 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 원 장 **지성** 사 정 부 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포 교 부 장 **법공**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 앙 법 사 단 장 **무진** 법 사 단 부 단 장 **혜등** 법 사 단 총 무 **혜련**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맑고 향기롭게 !! 불국정토 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한국불교 원융교단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대법주 법원

개산대법주 마 정 부대법주 정 림
본산중앙회 회장 보 당 부 회 장 법 인

조계선림 제1본산 법주 **혜조** 조계선림 제2본산 법주 **보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주 **법인**
조계선림 제4본산 법주 **소허** 조동선림 본 산 법주 **정림** 임제선림 본 산 법주 **원돈**
정토선림 본 산 법주 **법천** 화엄선림 본 산 법주 **금화**

사무총장 **석초오**

금오선원 원장 **석장현** 용봉학림 강주 **석의존**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중앙불교대학원

〈사찰등록 입종등록 받습니다〉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 전화 031)676-3960 / FAX 031)676-2960
■본산중앙협의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전 종도와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사)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원로원장 : 학 암**

▣ 총 무 원

총무부원장 **도일**
사정원장 **인산**
포교원장 **소운**
교육원장 **성운**
참선원장 **도선**
홍보원장 **해암**
연구원장 **보월**
역경원장 **현산**
참선부원장 : **선담**

사정위원 **대광. 강명. 지안**
포교부장 **선명** 포교국장 **관지**
교육부장 **혜각** 교육국장 **수운**
재무부장 **선혜**
홍보국장 **법은**
연구부장 **법성** 연구국장 **무상**
역경부장 **법화** 역경국장 **임오**
사회부장 **법산** 사회국장 **관덕**
문화부장 **법연** 문화국장 **법지**
교무부장 **원응** 총무국장 **관보**
복지부장 **지공**
호법부장 **선우**
비구니부장 **대화**

▣ 지방교구 종무원

서울종무원장 **지선**
부산종무원장 **혜명**
대구종무원장 **강명**
인천종무원장 **원각**
대전종무원장 **송암**
울산종무원장 **석천**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운**
경기북부종무원장 **성상**
강원종무원장 **대광**
충남종무원장 **원상**
충북종무원장 **강월**

▣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장 : **대광**
중앙종회부의장 : **대화**

▣ 사무국 **관도**

■총무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홈페이지 www.bsj.or.kr / 총무원 이메일 bsj99501@naver.com

대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 해 총무부 장 향 천

원 로 의 원 **해우 무상**
종 회 의 장 **오봉** 종회부의장 **미산**
교 육 원 장 **진성** 포 교 원 장 **성산** 사 정 원 장 **해능** 호 계 원 장 **무문**
율 원 장 **법산** 중앙선원장 **해진** 강원원장(불교대학장) **탄석** 홍 법 원 장 **혜원**
사회복지원장 **혜광** 비구니원장 **보성** 비구니부원장 **보현** 법 사 원 장 **청허**
대체의학원장 **고산** 염 불 원 장 **진각** 의 전 원 장 **청원** 기 획 실 장 **진법**
사 서 실 장 **진산**

재 무 부 장 **담교** 교 무 부 장 **천호** 사 회 부 장 **혜안** 조 직 부 장 **태은**
감 찰 부 장 **무공** 포 교 부 장 **묘광** 조 사 부 장 **대원** 사 회 부 장 **법산**
기 획 실 장 **진법** 규 정 부 장 **수광** 경북지역법사원장 **능각** 봉 사 부 장 **향천**

서울서부종무원장 **무상** 인천남부종무원장 **태은** 경기남부종무원장 **청허**
경기서부종무원장 **진각** 대전중부종무원장 **향천** 대전동부종무원장 **보성**
대전서부종무원장 **진산** 충남서부종무원장 **혜안** 충남남부종무원장 **진우**
충 북 종 무 원 장 **오봉**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산** 전 북 종 무 원 장 **천호**
경 북 종 무 원 장 **해능** 강 원 종 무 원 장 **고경**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옛농고길 8길 11호)
전 화 : 041)551-5537 팩스 : 041)621-5537
총본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 50번지 만경사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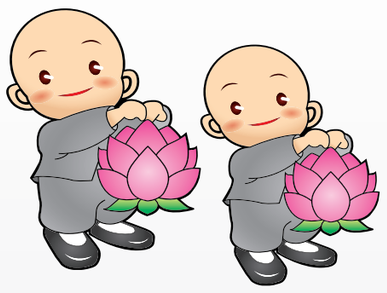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향 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사 무 총 장 **혜 성** (대한불교구화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 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 사 **고 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혜 남** (법화종 종정)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 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동 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감 사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해 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정 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고문(불교 위한 봉사)변호사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A25 | 전면광고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보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진정 더 위대하다. 〈법구경〉

"깨달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에 평화와 안락을 누리게 하소서"

(사)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덕현 벽운
부종정 성주 회천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포교원장 **해인**
교육원장 **화원** 포교사단장 **원각** 비구니원장 **정철** 호계원장 **효덕**

◇ **총무원 임원, 각 교구장, 종회의원**

법연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선각 농해 고암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화원 이착 무상 성일 현광 해성 대산 진오 진각 보현행 보리심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은어송로 86-100 보광사 총무원장 주지 동화
전 화 : 042)283-5896. 011-769-0300 / 교무부장 선각 010-7122-1369

(사) 여래불교조계종

종 정 일 각
총무원장 현 산
종회의장 혜 견

사무총장 **자운** 감찰원장 **법성** 문화원장 **보성** 호계원장 **성보**
선 원 장 **향지** 사회부장 **제오** 포교원장 **만경**

함께하실 종도를 모십니다

■ 총무원 :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 화 : 02)2282-5830. 010-6701-8300 (사무총장)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총무원장 만공 호조

전 종도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 화 :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사) 국제불교조계종

종 정 월하 성철

종도일동

■ 총무원 :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83-1 보명사
전 화 : 032)512-6453~4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 엄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이사진 · 임원진 일동
사부대중 일동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 화 041)566-2277. 566-2278 팩스 041)566-6141

탈지역(脫地域) · 사생중생(四生衆生)
통종교(通宗教)를 아우르는

불교 정중종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지혜와 자비실천으로
불국정토를 열어 갑시다.

총무원장 진여 법만 합장

대중일동

■ 사단법인 정중종 총무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중화동)
대표전화 : 02)433-6591~2 팩스 : 02)433-6508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 / 전송 730-0799

문화포교로 외국인들 마음 활짝 열어

부처님오신날 맞아 동림사 한 · 러 문화체험

여기가 사찰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금발의 샤키 조다(초등4)는 노랗게 물든 천연염색천을 두 손에 들고 마냥 신이 났다. "재밌어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부처님 손그림도 신기하지만 천연염색이 제일 신기해요" 샤키는 우리말도 수준급이었다.

선서화를 통한 문화포교에 앞장서는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 유일 러시아국제학교와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전통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기장불교연합회(회장 정오스님)가 주최하고 동림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5월 4일 동림사 경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국제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50명과 동명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유학중인 중국, 필리핀, 몽골 유학생 30명 등이 모여 전통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유일의 '주한러시아대사관 부산학교' 소속 학생들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처음 기획되었다. 이는 성타 스님이 러시아부산학교에 정기적인 미술 수업을 지도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기장군불교연합회 포교국장 성타 스님은 "한국에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렀다 가지만 정작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공간은 막혀 있다"며 "사찰 관광이 아니라 사찰의 살아있는 문화를 체험하게해 한국불교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타 스님은 "이번에 초청된 러시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안타까웠다. 이들을 위해 산문을 활짝 열게 됐다"며 "한국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충만해지길 기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 초청 전통문화 체험
연등만들기도 '인상적'


부산 동림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 · 러 문화체험' 행사를 갖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찰문화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오늘 기장의 작은 사찰 동림사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과 외국인 포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다"며 "세계로 열린 불교, 찾아가는 불교를 지향하는 기장불교연합회는 외국인 포교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러시아부산학교 홍상태 교장은 "건물을 보는 관광이 아닌 한국문화를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는데, 정작 한국문화를 보여 줄 곳이 없었다."며 "성타 스님께서 본교에서 한국미술을 지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생생한 불교문화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에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러시아부산학교 안토니 교사는 "불국사나 범어사 같은 큰 사찰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체험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 한국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동명대 교환학생 도밍고 아우티스타(호텔경영학과)씨는 "친절하고 자상한 한국 봉사자들에게 감사하고, 한국전통다도의 예절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로는 관세음보살 42수 따라 그리기, 투호, 전통염색체험, 다도 , 활쏘기, 연등 만들기, 떡방아 찍기 등 다채로운 한국전통 문화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러시아 국제학교는 러시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내 유일의 러시아인들을 위한 학교로 초중고 과정을 가르치는 러시아 대사관 산하 정규 사립 교육 기관이다. 설립자는 고신대 의대 홍상태 교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어버이날 맞아 孝 잔치 한마당

서원노인복지관 5월 8일 경로잔치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원행스님)이 위탁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사랑과 감사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경로 효잔치는 지역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식에서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부모은중경의 부모님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며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라"고 당부했다.



서원노인복지관 경로잔치

기념식후에는 대전문형문화재15호 '승무' 예능보유자 현불사 법우 스님의 살풀이, 양반춤 공연과 전주시 공무원 간부부인들로 구성된 명사모의 전통춤 공연, 전주시립 예술단의 태평무, 사물놀이, 산조합주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어버이날인 8일에는 복지관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흥겨운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도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5월 9일 봉축법회

200만 전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전남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법회가 개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불교회와 경승단(경승실장 몽산스님)은 지난 9일 청사내 남악홀에서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 몽산 스님을 비롯해 전석종 청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 등 300여명의 경찰과 신도들이 참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1부 봉축등 점등식과 관불의식, 제등행진에 이어 제2부 봉축법회, 제3부 다과회로 이어졌다.


전남지방경찰청 봉축법회에는 3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8명의 학우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환경이 열악한 507전경부대에 100만원의 위문품이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정의 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풍성'

전북 봉축위, 어린이 큰 잔치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전북부처님 오신날 봉축위가 마련한 제10회 전북 어린이 큰 잔치와 불교합창제가 5월 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 금산사 주지)가 주최하고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불교청년회, 대불련, 전북불교회관이 공동주관한 전북어린이 큰잔치는 '맑고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속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라는 주제로 전북지역의 초등학생과 학부모 가족 등 2천여명이 참가했다. 전북어린이 큰잔치는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불교문화체험,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으로 펼쳐졌다.

각각 유치부와 초등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전북도지사, 교육감, 대회장의 상이 수여되며 참가학생들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불, 108염주 꿰기, 단주 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사경, 연꽃 만들기 등의 불교문화체험과 제기차기, 투호, 단체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잊혀져가는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도 마련됐다.

또 세심다회에서 마련한 다도체험, 페이스 페인팅, 풍선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스탬프도장을 찍어주고 도장 숫자에 맞는 경품을 전달해 어린이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덕진공원 수변무대에서는 댄스 경연대회, 마술쇼, 노래, 영어 말하기,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특기를 가진 어린이들이 장기자랑과 특별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북 봉축위는 5월 4일 전북 어린이 큰 잔치와 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오후에는 같은 무대에서 전북불교합창제와 천태종에서 준비한 불교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무주 향산사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등이 출연해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찬불가를 선물했다. 불교합창제에는 특별히 불자가수 김범룡이 출연해 '바람 바람' 등 히트곡을 불러 부처님오신날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큰잔치와 불교합창제를 통합해서 진행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늘었고 우리 민속문화 체험과 불교문화 체험이 함께 이루어져 온 가족이 함께 하루를 즐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혜암당 성관대종사 문화진흥회 발족식

혜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94주년 기념 화보집 봉정법회 및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현판 발족식을 가졌다.

법보종찰 해인사 원당암에서 5월 1일 열린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하여 기념 화보집 봉정법회을 봉행했다. 행사는 육법공양괴 문도대표 성법스님의 화보집봉정이 있었다. 혜암대종사는 1993년 해인사총림 제6대 방장,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었으며 2001년 열반했다.

이날 혜암문도회는 혜암당대종사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발족했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는 선수행, 포교, 교육, 승가복지, 사회복지, 장학.문화사업, 효사상 실천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발족식

울산불교종단聯-울산경찰청 협약식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덕진스님)는 5월 9일 울산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 종단엽합회 소속 스님들과 ,울산불교신도회 김복광 회장, 울산보교여성회 허유리 회장 등 250여명이 함께 했다. 협약은 가장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추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울산 불교연합회 봉축 대법회

엽합회는 협약식에 앞서 경찰청 강당에서 울산경찰 봉축대법회를 개최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금정총림 범어사 율원 개원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5월 5일 율학승가대학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원장 수진)은 지난 3월 28일 교육원으로부터 설립인가 통보를 받고 2013년 4월15일 1학기 수업을 개강했다.

범어사는 2012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율학대학원 공사비 1억원을 지원하여 침계료를 대대적 정비했으며 원장, 교수사, 율감 외 총18명이 정진하고 있다.

율원장 수진 스님은 "범어사에서 율장 정신이 살아나서 청정승가를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지 스님의 원력을 잘 받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어사 율원 개원식 장면

박경수 부산지사장

"정성 담긴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원효사 · 동원사 자비나눔 행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는 5월 5일 경내에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김치 20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원효사 신도들은 미리 장을 보아 논 김치재료를 오전부터 버무려 열무김치, 무김치를 비롯한 생필품을 지역 어른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효사 신도회 다심회, 청년회 회원들이 정성을 보태어 만든 김치는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자비신행회와 영광나눔복지회, 북구청, 동구 산수동 주민자치센터, 소아암백혈병 환우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자비의 김치를 전달한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여름에 드실 시원한 김치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원효사는 매월 광주공원에서 어른들을 위한 무료 밥차운영과 매년 김장김치를 지역 어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효사 자비의 김치 전달식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동구청 불자회와 공동으로 지역 어른들을 위한 삼계탕 공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동구 지산교공원에는 300여명의 지역 어른들이 모여 동원사에서 마련한 음식과 문화공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불자회와 자비신행회, 동원사 봉사팀, 불교기획 카일라스의 도움이 더해져 의미가 더했다. 행사는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자 음악인 유상호씨와 가수 정아씨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만여 燈에 사부대중 염원 담아

삼광사 봉축점등식

전국 단일사찰로는 최대 규모인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5월 5일 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장도정 총무원장, 임혜경 교육감, 신용선 부산경찰청장, 김무성 국회의원, 나승린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김은숙 중구청장을 비롯 불자 5천여 명이 동참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삼광사 사부대중의 공양으로 밝히는 감로의 등불로 각자의 마음에도 무명을 걷어내고 부처님의 지혜를 밝혀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남북의 평화와 다문화 다종교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등불을 밝혀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하자"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밝히는 연등은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일체중생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라며 "연등을 밝히는 인연으로 구류중생의 무량한 복전이 드러나고 천상천하 제불보살의 자비광명이 현전하여 광도중생의 광휘를 만천하에 두루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점등식은 삼귀의, 국민의, 반야심경독경,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봉행사, 점등사, 점등법어, 축사, 축가, 석가모니불 정근, 발원문, 점등,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삼광사는 12일 삼광학생예능대회, 16일 봉축전야점등대법회와 부산시립어린이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 17일 다문화 다종교인과 함께하는 봉축법요식, 제2회 부산의 아름다운 3명소 전국사진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삼광사 봉축 점등식에는 3만여 등이 켜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제현사 시비제막식

'도동 시비 동산' 세 번째 시비 제막식이 5월 6일 대구 도동 제현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운영위원장 권대자 대표와 흥천사 조실 동봉 스님을 비롯해 대구시 각구청의회 의원, 대구문인협회, 영남아동문학회 회원 등 사부대중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내 동산에서 제막식과 함께 컷팅행사를 봉행한데 이어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 강대식 동구의회 의장, 공영구 대구 문인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현사 시비 제막식

원효성사 제향대제

5월 8일 분황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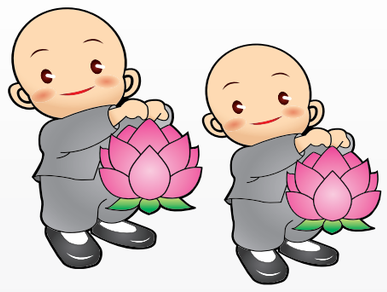
제 1327주년 원효성사 제향대재가 5월 8일 분황사에서 개최됐다. 원효학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제향대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분황사 주지 정문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불국사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삼귀의례반야심경 봉독, 불국사 성타 스님의 제향법어 종사영반 등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원효학연구원 이사장인 성타 스님은 "원효 스님이 주석하신 분황사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성지화하자. 이를 통해 원효스님의 정신과 사상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원효성사는 서기 617년 압량군 불지촌(현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전하며 민중불교를 위해 헌신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마음은 경계 없이 어디든지 다니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 〈법구경〉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연수원장 혜도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민재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경덕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안
중앙종회의장 대오 부의장 대경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 학장 신풍 부학장 민재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소원 법수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지운
거제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혜도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창녕지회장 연아 대원종법사단장 청량 법왕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부산법사단장 수안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총무부장 대오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연아 사회부장 도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중앙종회의원 민재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혜인 혜도 대오 도하 혜성 대안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 사무장 010-8548-86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여여히 오셨습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석능인

종도일동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봉
총무원장 본 자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정암 자문위원장 대현
종회의장 승법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종회의원 도암

감사원장 법안 교육원장 혜초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의전원장 동선 기획원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비구니부원장 설운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호남교구원장 도암 경북교구원장 제법 경남울산교구원장 갑태

총무부장 불현 교무부장 도문 재무부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포교부장 각초 규정부장 도영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연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담
총무원장 정 관

총무부장 인성 재무부장 행우 포교부장 효은 사회부장 인호
홍보부장 행수 호계부장 심인 감 사 무 구 사서실장 인우
예경실장 효웅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인성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인성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48-0462 팩스 054)771-6606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부종정 돈 오
총무원장 원 각
종정사서실장 보경

원로의장 홍구 원로부의장 영암 원로의원 여산, 돈오, 금담, 혜승, 정효
종회의장 청인 종회의원 무영, 지연, 도안, 도행, 혜각, 금화
불교대학장 정효 중앙선원장 법천 법계고시위원장 여산 감사원장 혜공 의산장 성종 율원장 금담

총무원

수석부원장 혜천 해외협력부장 무임
부원장 혜월 감찰부장 혜암
호계원장 남경 문화부장 지훈
교육원장 정수 포교부장 지현
포교원장 보광 호법부장 혜명
감사원장 혜공 교무부장 도현
총무부장 지광 사회부장 지심
재무부장 도우 복지부장 인덕
규정부장 광덕 비구니회장 조명
기획실장 청인 비구니부장 금화
의식부장 해일 비구니총무 재범
선거관리위원장 혜원

지방 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무운 대전종무원장 동우
경기종무원장 고선 부산동부종무원장 도성
인천종무원장 일현 부산서부종무원장 명종
강원종무원장 서운 전북종무원장 길윤
충북종무원장 진산 전남종무원장 성덕
충남종무원장 혜명 제주종무원장 송덕
경남종무원장 지심 홍콩종무원장 무영
경북종무원장 혜산 중국종무원장 선무
울산종무원장 혜광 일본종무원장 혜령
대구종무원장 자은

이사회

회 장 백산
총 무 일경
재 무 무애
이 사 무상 일호 도림 무경

유발 승가단

비 구 무착 일찬 무공 경종
비구니 정각 수연 보화 자량 보덕 구련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종정원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관음사) 전화 063)583-8807 팩스 063)584-4153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 (수도사) 전화 041)531-3792 팩스 041)544-1080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 珠 寺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 무 성 무
교 무 덕 현
호 법 성 유
신도회장 해인화

기 획 인 해
사 회 본 각
박물관장 보 승

재 무 응 진
포 교 중 원
연 수 대 현

■ 부설 ■
효행교육원
템플스테이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www.yongjoosa.or.kr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구. 송산동 188번지)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 주 사

주 지 현 조

부주지 보 광
교 무 각 주
사 회 원 철
연 수 보 관

관 장 성 천
재 무 정 덕
포 교 도 암
도 감 지 정

총지선원장 덕 암
선학승가대학원장 현 각
승가대학장 청 원
보은포교원 현 지
교구총신도회장 최윤철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 (043)543-3615 www.beopju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 곡 사

마음을 맑게하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도량

주 지 원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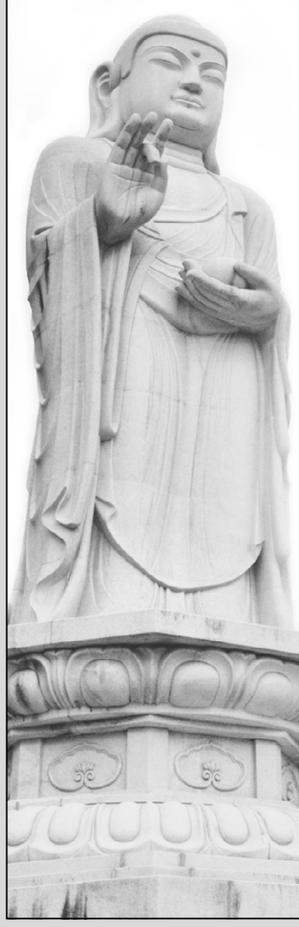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www.magoksa.or.kr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TEL 041)841-6220~3 / FAX 041)841-6227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 화 사

불기2557(2013)년
부처님 오신날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조계종종정 진제 법원 스님
주 지 삼호 성문 스님
선 원 장 능담 효광 스님
강 주 우암 양관 스님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동화사
TEL : 053)982-0101~2 / FAX : 053)985-4405
www.donghwasa.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銀 海 寺

조 실 혜 인
회 주 법 타

주 지 돈 관 문도대표 혜 국
총무국장 도 홍 관 장 돈 명
기획국장 재 경
교무국장 원 오 주지특보 덕 조
재무국장 혜 안
포교국장 도 융 원 주 석 담
호법국장 성 본
사회국장 성 담 신 도 회 일 동

♣ 지역의 전통 명문사학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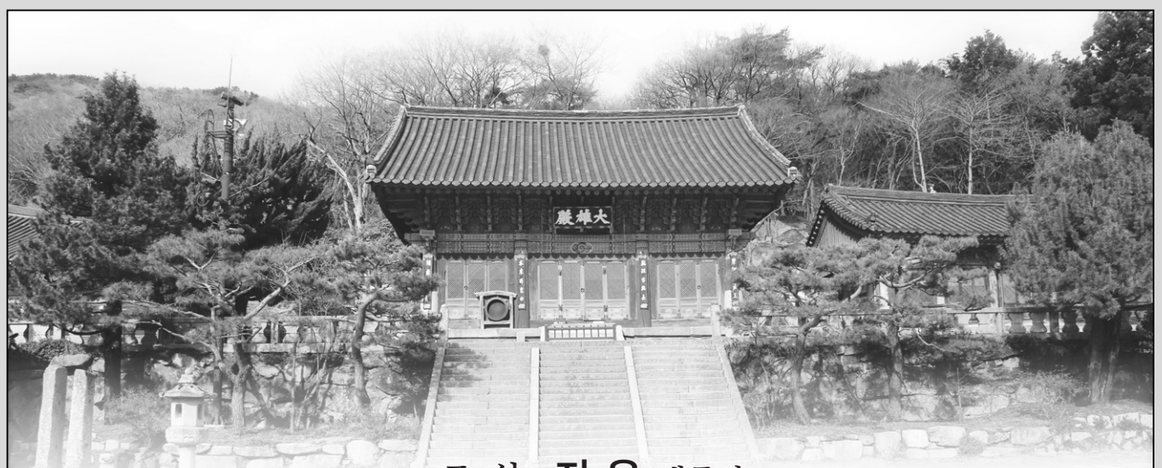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기관
은해사 포근한집 054)335-3314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 해 사 수 림 장 054)335-0566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경산백천복지사회관 053)811-1347
www.bscw108.org

사 부 대 중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FAX 054)335-0293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수 불

유 나 인각 박물관장 경선 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 강 주 용학
부 주 지 범산 총무국장 선재 기획국장 목종 교무국장 승련
재무국장 무관 사회국장 원걸 문화국장 성공 포교국장 지장
호법국장 보운 연수국장 오산 사서국장 법성 원 주 석산
도 감 응진 신도회장 이윤희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의 인등은 항상 밝혀져 있습니다

광주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생활에 직결된 불법 공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이름에 끄달려서는 절대 안 되며,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와 그 하나에 의해 전체 나투면서 시공이 따로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로부터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실 것 같으면…. 우리는 미생물부터 거쳐서 그 뼈저린 아픔을 견디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됐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어떠한 사생이든지 다, 부모와 자식 형제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면서 윤회에 말리다가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생각을 잘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4월 8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모두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빼놓고 어디서 구하려고 하십니까?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나로부터 가정이 생겼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지 나 빼놓고 무엇이 있어서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나라고 그런다고 나인 줄만 알지 마시고, 나만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나' 말입니다. 나! 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육신을 믿지 말고 너의 마음을 믿고 깨달아서 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라. 그렇게 된다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둘이 아니니라. 그 도리를 알지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타력 신앙으로써, 기복으로써 나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갖다 주고 이름표를 붙여 놓고 전기로 백 일 인등을 켠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인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일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찰나찰나 찰나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하고 우리 인생이 백 년을 산다 하더라도 한 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몸이 없다면 부딪침이 없고 상대가 없어서 일체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넓히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믿고 알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넓혀 언제나 밝은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우상 숭배나 하고 밥이나 내려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그걸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 나를 발견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신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미신의 행위를 하니까 미신이 있는 거지 미신의 행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신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듯이, 오늘 따귀를 맞았으면 내일 또 따귀를 때리게 되듯이 이러한 상대성 원리가 바로 하나로 뭉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혜를 넓혀서 파악할 수 있다면, 아마 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실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인등을 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뚱이는 등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촛대가 되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내는 것은 촛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촛불을 항상 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불당(佛堂)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어디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배우려면 올바로 배워서 물러서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가을에 나뭇잎이 가랑잎이 돼서 떨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그 육신을 벗고 갈 때에 돈이 따라가겠습니까, 형제가 따라가겠습니까? 부모가 따라가겠습니까, 자식이 따라가겠습니까? 돈더러 가자고 그래도 안 갑니다. '네가 좋아서 날 따라다녔지 내가 좋아서 너를 따라다닌 건 아니니까.' 하고 안 따라가더랍니다. 부모한테 가자고 해도, 또 자식한테 가자고 해도 같이 가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도리를 명백히 아셔야 하며 마음의 촛불, 즉 인등이 항상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백 일 동안 켠다고 한다면 백 일 동안만 불이 켜져 있고 백 일 동안만 진리가 돌아가고 그럽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일 초도 쉬지 않고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찰나찰나 마음이 바뀌고 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만날 땐 자동적으로 자식이 돼서 말도 행도 뜻도 그렇게 돌아가고, 또 아내가 오면 아내가 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남편이 돼서 금방 "여보!"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적이고 자유로운 힘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오신통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여러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했느니라.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너희들은 둘로 보지 마라. 모두가 한 찰나 한 찰나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면 공한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나로부터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육신 속에 업식이 한데 뭉쳐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움죽거리게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제일 먼저 설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뭉쳐 있는 고 덩어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만 알면 바로 즉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걸어온 길을 짊어지고 나와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 업식 자체가 합쳐진 것을 '나' 하나가 짊어지고 들어간 거죠.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그 몸뚱이를 받아 가지고 바로 자기의 업식을 짊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치로 따지고 볼 때 집만 얻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보배를 알게 될 겁니다.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총무원장 향 운

원 로 원 장 정광　　원 로 위 원 법진. 석불. 진덕. 옥운. 효산. 금봉. 법성. 고산
수석총무부원장 운오　　차석총무부원장 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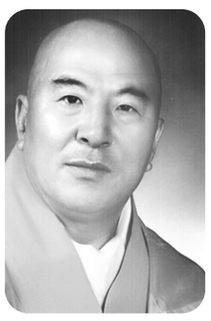
중앙종회의장 원봉
중앙종회수석부의장 진혁　　중앙종회차석부의장 명관
중앙종회법규위원장 지호　　중앙종회법규위원 상경. 운영. 지상
중앙종회사무총장 진산　　중앙종회의원 성은. 도명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남종무원장 마명
전북종무원장 경오　　경북종무원장 성죽　　제주종무원장 법원

고시위원장 태운　　교 육 원 장 수혜
포 교 원 장 태일　　복 지 원 장 인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만물이 생동하고 연한 초록빛으로 산과 들이 물들어 가는 계절에, 초파일을 맞이하여 일평생을 불석신명 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봉축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은 그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서원과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무지의 시간을 끝내고 이해와 화합과 평화의 시간을 맞고자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지향도 찾을 수 없었던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자 목표인 세상 삼라만상이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주변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열고, 또한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먼저 남을 배려하는 커다란 양보의 미덕을 기르는 불자님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전화 02)735-0501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전화 052)262-6857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전체 항복을 받을 수 없어요

☞ 29면에서 계속

그리고 또 인등도 인등이지만, 부처님께서 과거에 49년 동안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볼 때 "수많은 사생의 마음을 물방울이라고 비유한다면, 바다에 전부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퍼내도 줄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물컵에 여러분의 마음 한 방울, 물 한 방울 넣어 보십시오. 컵의 물이지 한 방울의 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어느 것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체가 없으니 붙을 자리가 없죠.

더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면서 성장하는 마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바로 내가 대신 죽어 줄 수도 있는 마음, 그 자리에는 어느 것도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고요.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그냥 들어가서 건지거든요. 자기 죽는 줄 몰라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자식이 빠졌을 때 뛰어드는 그 순간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두루 하시고, 육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두루 하지 못하는 차이는 있지만, 내 걸 다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잘돼라 하는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같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더 큰 바다든, 한 그릇은 한 그릇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도 한 그릇, 큰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도 한 그릇, 더 큰 그릇에 물 한 그릇을 떠도 한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의 한 그릇이라고 해서 한 그릇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자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 직결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천체물리학이기도 하죠. 과학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사실인 걸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중용을 할 수 있게 실천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이론으로 백 마디 천 마디 만 마디를 알아도 목마른데 물 한 그릇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죠. 부적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베갯속에 넣고 문간에나 붙이고 이럭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붙였다 하더라도 물 한 그릇 떠 놓고 소하세요. 부적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재가 들어서 못 살고 또 어느 방향은 손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가고…, 이런 것도 남의 말에 휘둘려서 당신네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 이럭하면 우리가 좋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권리를 가졌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 참 가난해서 죽겠고 병고에 휘달려서 죽겠고…. 이러니 하루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즐거운 마음이 얼마

여러분의 업식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꼬드겨서
화도 나게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즐거움이 있어도
'아, 감사하구나.' 하고
근본에 맡겨 놓고
또 악한 일이 생기더라도
'아,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지.' 하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이사 가는 방향이나 날짜 등에 얽매이는 고통까지도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대답들 좀 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땐 인간의 권리를 가졌겠죠.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삿날도 노는 날, 내가 아무런 걸림이 없을 때에 '아, 우리 식구가 같이 이사를 하면 되겠다.' 이러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날짜를 보며 방향을 봅니까? 이게 뭐 말라빠져 죽은 겁니까? 이럭하고도 여러분이 불제자라고 하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고깝게 듣진 마세요. 나는 내가 잘 안다고, 내가 또 여러분보다 높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조사들 말씀 한번 할까요? 예전 시절에는 그렇게 용도가 되고 또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똥 친 막대기니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변소에 막대기 하나를 떡 갖다 놓고 그 막대기로 밑을 씻었다는 얘기죠. 막대기 하나에다가 수없이 밑을 씻었을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생을 다 건지시면서도, 건졌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청하는 대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 주시고 사람을 건지려면 사람이 돼 주시고 어떤 거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아니 듣는 데가 없고 손 안 닿는 데가 없으니 바로 똥 친 막대기죠. 안 그럴까요?

예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신 예가 있죠. "뇌성벽력이 치고 비가 와도 뛰지 마라." 몸뚱이가 뛰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 중심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되지만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 나를 아주 내놓고 타력 신앙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신이 있다 없다 이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될까 봐 겁나니까 잘되게 해 달라고 빌죠. 빌더라도 자기 주인공 안에 바로 자기 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핵이 있는 곳에는 질량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븐이라면 여러분 입맛대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 재료가 여러분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칠성이 따로 있고 독성이 따로 있고, 산신이 따로 있고 조왕이 따로 있고, 지신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지장이 따로 있고 미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군데서 다 나고 드는 겁니다. 미륵이라는 것도, 늙어서 죽어서 자식으로 다시 나오면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다시 태어나는 때를 미륵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나실 때도 한 바퀴 돌아서 딱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일 때 미륵이라고 하는 거지, 어디 부처님이 따로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지만…, 나는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데선 모르지마는,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오백 비구를 뒀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의 같은 제자인 것이지 따로따로 내 제자 네 제자 갈라서 싸움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형이 되고 나중 들어온 사람은 아우가 되죠. 지금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에서는 사형 사제라고 합니다. 그 사형 사제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제자 네 제자 이렇게 자꾸 둔다면 얼마나 싸움이 잦을 것이며, 또 말을 잘못 옮겨서 사형 사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나 너 할 거 없이 더불어 부처님의 한 제자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90%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데 지름길이요
모든 업식을 바꾸어서
보살로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헌 쇠를 집어넣으면
새 쇠로 다시
재생되어 나오듯이
근본자리에다 그업식을
다시 되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보살로 화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한생각에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한생각에 여러분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카세트 얘기 했죠? 카세트에다 녹음하듯이 과거에 넣었던 거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게 업식이에요. 여러분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세포 구석구석, 그 모두가 지금 업식이 뭉쳐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꼬드겨서 화도 나게 하고 꼬드겨서 안되게 하기도 하고 꼬드겨서 즐겁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데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떠한 즐거움이 있어도 '아!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 맡겨 놔요. 또 악한 일이 생기더라도 '아!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지.' 하고 거기 맡겨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지름길이요, 모든 업식을 바꾸어서 보살로 화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가면 재생이 돼서, 용광로에 헌 쇠를 넣으면 재생돼서 다시 새 쇠가 나오듯, 거기 다시 그 업식을 되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보살로 화해서 나온다 이 겁니다. 이열치열이란 말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첫째는 나를 발견하는 지름길이요, 둘째는 업식을 무너뜨리는 공부요, 셋째는 전체 항복을 받는 공부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항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야기가 길어서 한 부분만 떼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제자가 하도 자기라는 걸 세우면서, 학으로써 능통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만 스승으로 생각을 했지 그렇지 않은 스님은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납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누더기를 입은 불목한이라도 네 스승으로 알아야 일체가 네 스승인 줄 알 것이다. 네 스승이 바로 네 제자이며 네 제자가 바로 네 스승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는 일체를 다 허술하게 볼 게 아니더라 하는 거를 알았대요. 그래서 큰스님이 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스님이 된 게 아니라 큰사람이 됐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연구 재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연구할 수 없죠? 나방 하나가 없어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거든요. 연구할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모두가 내 스승이요, 전체를 나와 둘 아니게 봤을 때 전부가 스승이라 이겁니다. 하나하나, 꽃 이파리 하나 보고 돌 하나 볼 때도 거저 볼 수가 없고,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나 아님이 없는 까닭에 중생들은 부처에게 배우고 부처는 모든 중생들을 스승으로 삼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큰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죽네 사네 하고 야단들이지마는 큰 사랑은 죽여도 사랑이요 살려도 사랑입니다. 그게 자비고요. 죽이는 게 없으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1989년 4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사) 대 선 불 교 조 계 종

초대종정 **법왕 동산 대종사**
2대종정 **덕진 도일 대종사**
부 종 정 **적연 운암 대종사**

총무원장 **현묵 혜승** 종회의장 **현숙 법희** 포교원장 **적공 현덕** 감사원장 **대경** 교육원장 **도현**
재무부장 **보각** 교육부장 **도응** 사회부장 **영각** 사서실장 **대안** 포교부장 **도승**
종회사무국장 **법성**
종회의원 **도만. 경성. 도경. 보현. 보성. 보혜. 보찬 .도광. 혜성.**
법사회장 **법산**(신동호)
법 사 **덕양**(서재원) **학산**(김대철) **덕산**(심규봉) **남산**(문동식) **덕연**(황우연) **거산**(김금석)
광덕(문도순) **자장심**(예미혜) **송천**(김문한)
신도회총무 **보리심**(신순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대덕큰스님,
법사님들을 입종을 환영합니다



4월 12일 봉행된 제2대 종정 · 부종정 이취임식 대법회

초대종정사찰 : 대구 중구 대봉동 590-433 (011-532-3157)
종정주석사찰 : 대구 남구 대명2동 2040-3 (011-529-3132)

■ 총무원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4번지 마니사 / 전화 032)937-5579 총무원장 : 010-3190-5767

부처님오신날 새겨듣는
틱낫한 스님 말씀

황제의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 드리겠습니다. 황제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황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황제에게, 세 질문의 답만 알면 어떤 일에도 헛갈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함께 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황제는 누구든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방을 써서 온 나라에 알리도록 했어요. 방을 본 많은 사람이 왕궁으로 가서 답하는데 저마다 내용이 달랐지요. 황제는 그 모든 대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날 밤을 생각한 끝에 황제는 산꼭대기에 사는 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은자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황제는 그를 만나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결코 산을 떠나지 않으며,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자하고는 만나지도 않았고 다만 가난한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평범한 농부로 변장을 하고 시종들에게는 자기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가 은자를 만나고 내려올 때까지 산기슭에서 기다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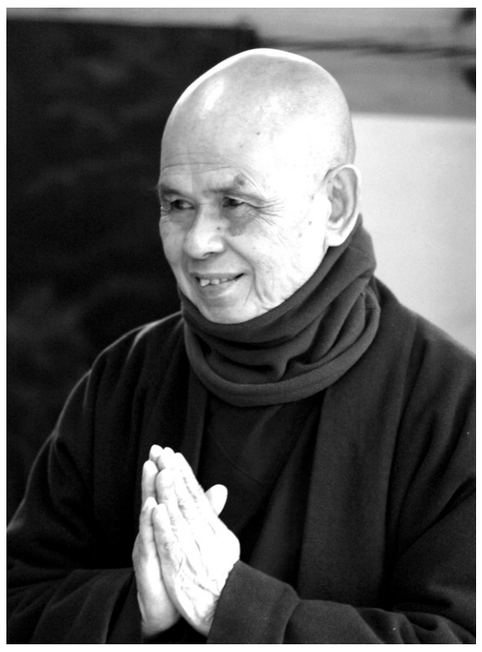
은자가 살고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황제는 오두막 앞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 은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낯선 나그네가 온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다음 계속 땅을 팠어요. 황제 눈에는 그 일이 나이든 은자에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무척 무거운 듯 흙 한 삽을 들어 올렸거든요.

황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노인께 세 가지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지, 함께 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든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답을 들려주십시오."

은자는 귀 기울여 듣고 나서 다만 황제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삽질을 계속 했어요. 황제가 말했지요. "많이 지쳤군요.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삽을 황제에게 넘겨주고 바닥에 앉아 쉬었습니다.

두 이랑을 파고 나서 황제는 삽질을 멈추고 은자에게 세 가지를 다시 물었어요. 은자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젠 당신이 좀 쉬시오, 내가 할 테니." 그러나 황제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어요. 이윽고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삽을 놓고 은자에게 말했지요. "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노인께서 대답해줄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은자가 머리를 들고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시오?" 황제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숲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피 흐르는 배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비틀거리며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황제 앞까지 달려오더니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 했지요. 황제와 은자가 옷을 벗기자 아주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황제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속옷을 벗어 싸매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여기'
"내 주변부터 행복하게 해줘야"
그 방법은 바로 '마음 챙김 수행'

그러나 금세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속옷을 물에 헹구어 다시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러기를 되풀이했어요.

이윽고 상처 입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니 마실 물을 청했습니다. 황제는 개울로 달려가 깨끗한 물을 한 주전자 길어왔지요. 그러는 동안 해는 떨어지고 밤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은자가 황제와 함께 그 사람을 오두막 안으로 옮겨다가 자신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서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황제는 높은 산을 오른데다가 밭을 일구느라 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문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황제가 눈 떴을 때는 해가 이미 동산 위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황제는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 하러 여기까지 왔는지를 깜빡 잊었습니다. 황제가 침상을 넘겨다보았을 때 상처 입은 사람도 황제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한동안 황제를 눈여겨보던 그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기에 용서해달라는 것이오?" 황제가 물었지요.

"폐하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폐하를 압니다. 저는 폐하의 원수입니다. 폐하께 복수를 하기로 맹세했지요. 지난번 전쟁 때 폐하께서 제 아우를 죽이고 제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은자를 만나러 홀로 산을 오르셨다는 말을 듣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폐하를 습격하여 죽이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폐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l 그래서 매복해 있던 곳을 떠나 폐하를 찾아 나섰다가 폐하를 만나는 대신 폐하의 시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상처를 입혔지요. 다행히 도망쳐서 이리로 왔는데, 여기서 폐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죽은 몸일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죽이려고 했는데 폐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살아난다면 남은 세월 폐하의 종이 되고 제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황제는 원수였던 사람과 그토록 쉽게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건 물론이요, 그의 재산도 모두 돌려줄 것이며, 자기 의사와 시종 들을 보내어 그가 완쾌할 때까지 돌봐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종들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라고 시킨 다음, 황제는 다시 은자를 보러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세 가지 질문을 은자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은자는 어제 갈아놓은 밭에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서서 황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질문에는 벌써 대답을 얻었잖소?"

"어떻게 말입니까?" 황제가 의아해서 물었지요.

"어제 당신이 늙은 나를 가엽게 여겨 밭가는 일을 늦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려가는 길에 그의 습격을 받았을 거요. 그러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겠지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바로 그때라는 걸 기억하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지요. 뒤에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게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오. 그것만이 인생에서 추구할 일이지요."

우리는 사회봉사에 대해 말하고, 민중을 돌보고 인류를 돌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자주 잊곤 하지요. 그대가 만일 그대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나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아가 사회를 돌보겠다는 겁니까? 그대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평화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뿐입니까?

평화봉사,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 등 봉사라는 말은 참 거창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 학급 친구들, 동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같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립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톨스토이는 성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톨스토이는 홀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것. 톨스토이가 제시한 원리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실천에 옮기려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구하여 찾아내야 합니다.

〈이 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틱낫한 명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社說

부처님오신날에 다시 생각한다

한국불교, 삶의 현장에 있어야

5월 17일은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세상에 비춰야 하는 시기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노사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갑의 횡포'라는 사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계급과 인종, 성별을 떠나 모든 존재의 평등함을 설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다.

앞이 보이 않을 정도로 암울한 미래에서 한국불교는 연대와 협력의 매개체가 돼야 한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호미와 괭이를 잡고, 빈민과 노동자가 거리에 나앉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아이들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가정에서 크게 웃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으며 고통의 사바세계를 제도함이 바로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어쩌면 한국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나아갈 미래는 자승 스님의 봉축사에 담겨 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불교적 명제는 경쟁과 이기주의로 얼룩진 세상을 치유할 단초이다.

이제 부처님오신날이다. 인류의 큰 스승이 세상에 나투신 거룩한 날이다. 한국불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와 성찰을 가지길 바래본다.

어린이 포교는 불자의 의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이 같은 고전적 명제는 한국불교에게도 그대로 통용되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을 찬찬히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불교계에서 어린이 포교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올라간다. 엄혹했던 시절, 선각자들은 밀려오는 서구 종교에 맞서 1923년 현재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에 '일요불교학교'를 개교했다. 이렇게 시작한 '일요불교학교'는 해방 전까지 전국 사찰 4천여 곳에 설치돼 어린이 포교에 힘썼다.

하지만 6.25동란을 거치면서 '일요불교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포교는 단절되지만 1960년대 중후반부터 몇몇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 조금씩 씨앗을 뿌려 나간다. 이런 거름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 전국 600여 사찰에 5~6만 명의 어린이가 참가할 정도로 붐을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체 일로를 겪다가 최근에 다시 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정하고 있는 전법 중심도량이 111곳이며, 어린이 법회도 증가세다. 하지만 '어린이 포교는 위기'라는 인식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양적 인프라는 구축이 됐어도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일선 사찰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결과적으로 포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원력이 필요하다. 일선 전문가들이 어린이 포교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 당부했던 사안도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식 전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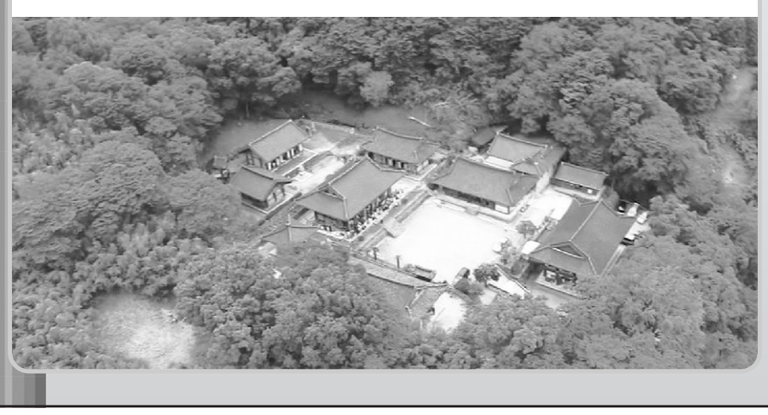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다시 한번 제언드린다. 한국불교의 발전에 있어 필수 요소는 어린이 포교라는 것을. 어린이 불자가 늘어야 향후 10년 후 청소년, 대학생 불자가 늘고, 다시 10년 후 청장년 불자가 증가할 수 있다. 계층 포교의 시발점과 종착점이 어린이 포교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착하고 악함을 자세히 살피면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 저절로 알게 되어 그것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된 이를 만나 그 어진 이를 따라 행하면 모든 바라는 바 잘 이루게 되어 복록은 갈수록 늘어난다.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죽림사
주지 법룡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산 1
전화 061)337-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거사
주지 혜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2557

부처님 오신날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평등광법으로 모든생명 건지는 한마음 밝은 등불을 밝힙시다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www.hanmaum.org


그림 강병호
최초의 비구니 마하파자파티가 아라한과를 증득한 모습. 마하파자파티는 여성에 대한 불교의 닫힌 문을 연 첫 선지식이었다.

특집2 - 한국불교 '여성시대'를 준비하자

21세기 지구촌 화두 '여성'

2월 25일 한국 국민들은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 여성을 선출했다. '여성 리더'란 말이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비즈니스, 교육, 문화, 스포츠, 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활발하기 전개되고 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 등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리더십 스타일에도 여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류는 남·녀 구분을 넘어서 모두에게 내재된 '여성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를 이끌 메인 키워드는 '여성'인 것이다.

한국불교에서의 여성 위상은?

하지만 한국불교에서 여성의 위상은 어떠한가. 1970년대 송광사 구산 스님 밑에서 비구니로 출가한 명상지도자 마르틴 베첼러는 세계 비구니 스님들 중 대만에 이어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지위가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비구니 교단과 그 수행전통이 살아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현재 자체적으로 비구니 구족계를 받는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대만, 한국 정도다. 1960년대부터 역사가 시작된 대만불교에 비교해 1600년이 넘도록 전통을 지속해 온 한국비구니 승가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불교에서 한국불교가 선구적이지만 불교 자체에서 여성불자들의 영향력이나 대사회적인 활동이 미비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오랜 전통에도 비구니의 '사회적 위상', 특히 교단 내에서 비구니의 지위에 아직도 많은 불평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2012년 승적 현황을 보면 비구 5458명(51.3%), 비구니 5190명(48.7%)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국장 이상 교역직의 절대 다수(비구 361명: 비구니 17명)가 비구 스님들로 이뤄져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교구본사 산중총회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재적승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종회의원 80명 중 비구니 종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대에는 불교를 포함한 종교가 일반 사회 문제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 특히 종교 전반에서 여성의 위치는 너무나 낮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회에서 여성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종교에서 여성의 위치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히 비구니 스님 등 종교 내부에서의 평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가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에 비해 불교 내 양성 평등 의식이 사회변화에 비해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여성불자 '기복'에는 '책임과 희생'이

전문가들은 여성불자들의 신행활동도 점차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들은 기복에만

1600년 전통 비구니 승가
세계 종교계에서 유일해
교단 내 비구니 지위 불평등
양성평등의식 사회에 뒤쳐져

책임과 희생서 나온 '기복'
사회 향해 어머니 역할 다해야

치우치지 않았다. 신라 진흥왕 37년 안홍 법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승만경〉은 당시 신라 여성사회에 일대혁명을 일으켰다.

민성효 여성학 박사는 "승만경은 특히 신라 상류층 여성들의 신앙 모범이 됐는데 여왕 이름에 승만이 쓰일 정도였다"며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심을 강조해 당시 여성불자들의 신행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신라시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했다.

민 박사는 이어 "고려시대 여성불자들은 주로 독경과 시주 등 보시행으로 신행활동을 진행했는데 경전에서 가르치는 행동원칙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는 등 불경을 생활지침서로 삼아 살아갔다. 또 불교는 고려여성에게 종교이면서 사회를 접하는 창구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불자들은 특유의 '기복' 성향으로 인해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여성불자들의 신행이 수동적이고 타력지향적이란 선입견은 여성불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이런 선입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님은 여성들의 기복행위를 '책임'과 '희생'이라고 분석했다.

스님은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통해 더 큰 자아로 성숙한다. 여성은 초월적 구원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가족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다하는 주체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기복'은 그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명법 스님은 "책임과 희생은 모성에서 나오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도 통한다"고 말했다.

이인자 경기대 예술대학 명예교수는 "모성은 곧 자비이다. 여성 불교 역시 자비의 사회화"라며 "여성들이 불교와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특히 현대사회 여러 문제와 갈등 사안에 여성불자들이 '책임과 희생'을 승화시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리더쉽교육 장면. 다양한 활동에도 아직까지 불교 내 양성평등의식은 사회변화에 비해 뒤쳐진다는 지적이 많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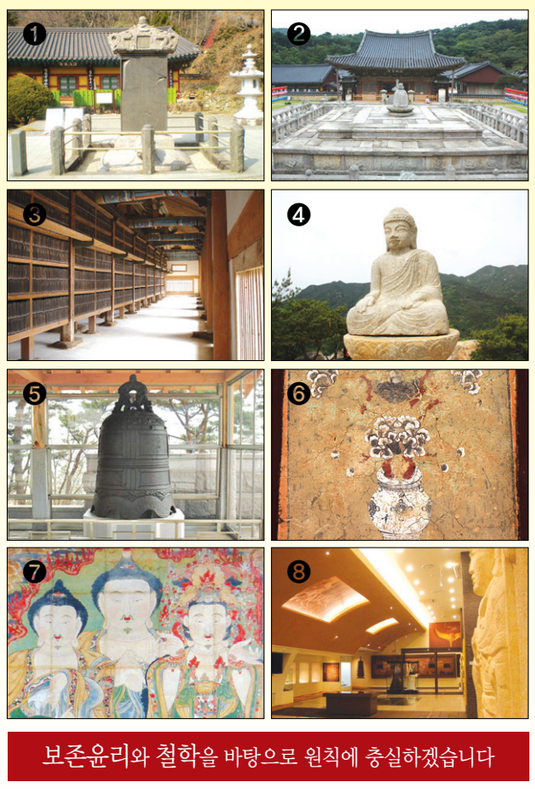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서진문화유산은...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국보·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산·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등)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 개념 도입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제작
▶ 박물관 전시 기획·설계
▶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HIP 효과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스테이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흰개미 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CRM 용역
▶ HIP 기획·제작
▶ 박물관 전시·기획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문화상품 기획·개발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국보 제 47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❶
[국보 제132호] 징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❷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❹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❺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❻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괘불 보수사업 ❼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층전사 및 복원)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❽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룡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피스텔 6010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

여성 출가 허용, '양성평등'의 시도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

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사 이래 1천년 이상을 인류는 가부장제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다. 종교 역시 이 같은 가부장적 틀 안에서 변주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학자들은 일부 종교에서 여성이 동등한 위치의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떻게 성립돼 왔을까? 고대 인도사회는 우주의 본질을 여성성으로 보는 토착민들의 세계관이나 문화적 성향, 그리고 아리안들의 현세적 가치관이 혼합돼 친여성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직전의 인도사회는 아리한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바라문의 사회적 부상으로 사회구조가 계급화되면서 반여성적 인식 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바라문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졌다. 당시 바라문 교권을 기반으로 쓰여진 〈마누법전〉을 보면 "여성의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남편이 죽을 경우 남편의 시신을 불에 태운 후 따라 죽어야 하는 '사티'라는 풍습마저 있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을 연 불교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역행하는 종교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의 출가 허용이다.

이는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처음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는 부처님에게 아난은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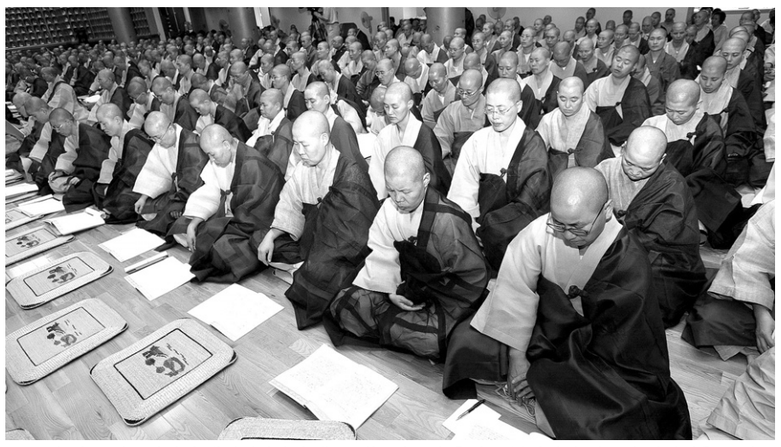
이에 부처님은 "여자도 수행을 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등 4과(果)와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여자도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

불교, 공성·연기론 통해
모든 존재 평등을 역설
불멸 후 부처님 뜻 외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여성들에게 출가를 허용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의 여성 출가 허용에 대해 서영애 씨는 자신의 저서 〈불교의 여성관〉에서 "불교는 당시 바라문과 우파니샤드 철학을 넘어 인간주의적이고 만민 평등 사상에 입각한 종교 사상을 피력했다"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성관은 상당히 시대를 앞선 것이며, 현대의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3년 전국 비구니회가 개최한 '선 수행 특강'. 비구니 출가는 부처님의 평등적 인간관을 보여주는 단초다.

이어 "불교의 인간관은 연기성과 공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처님은 남을 위해 배려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설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관, 여성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멸 이후 1세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인도의 여성 차별 풍토가 강화됐고, 이는 불교 교단 내에서도 나타난다. 여성 차별적인 규칙과 계율경전에서도 생겨난 것도 이 시기라는 서영애 씨의 주장이다.

서 씨는 "당시 불교 교단이 세간의 통속적 흐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었다"고 평가하며, "그래도 평등적 인간관과 여성관은 변하지 않아 비구니 교단이 비구 교단에게 관리를 받으면서 출가가 계속 허용됐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세계의 여성 불교 지도자

초기불교에서 최초의 여성 출가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5년째 되던 해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했다. 이후 교단에서는 여성들의 출가가 이어졌다. 인도 여성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문헌이 바로 〈장노니게(長老尼偈)〉다. 〈장노니게〉는 비구니 스님의 게송을 모은 것으로 부처님 재세 시부터 아소카 왕 시대까지 2~300년간에 걸쳐 이뤄졌다. 〈장노니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비구니를 포함해 73명 비구니 스님의 게송 522수가 수록돼 있다. 게송의 작자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했던 모녀도 있었고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빚으로 인해 첩이 된 여성, 그리고 기생도 있었다.

부처님의 평등 정신은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신라 법흥왕이 흥륜사(興輪寺)를 일으킬 때 그 왕비도 왕과 같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영흥사(永興寺)를 개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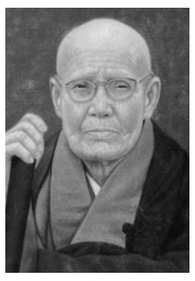
다음 대인 진흥왕의 왕비도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서 살았다. 이들 두 왕비의 행적은 신라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비구니가 되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진흥왕 37년 안홍 법사(安弘法師)가 중국에서 가져온 〈승만경〉은 신라 여왕의 이름에 쓰일 정도였다. 승만 부인의 도덕성과 천부적인 변재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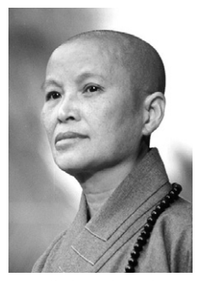
선덕여왕, 황룡사 9층탑 건립
대행 스님, 국내외 마음공부 지도
대만불교는 비구니계가 교단 주도

신라의 여왕 세명 중 선덕여왕은 그 인품이 승만부인을 연상시킬 정도로 흡사했다고 전해진다.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등 불교적 치세 이외에도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위문, 구제하고 죄수를 사면하는 등 대승보살의 행을 펼쳤다.

전국비구니회에서 엮은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따르면 근현대 비구니 선맥은 묘리당 법희(1887~1975)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법희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선원으로 개설된 견성암에서 수선 안거 중 깨달음을 얻었고, 만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다. 법희 스님은 1966년 이후 10여년 간 견성암 비구니총림 원장으로 주석하며 선풍을 날렸다.


한국 법희 스님


미국 쏘모 스님


대만 증엄 스님


미리암 레버링 교수

근현대 비구니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대중교화에 매진한 비구니 스님으로는 대행 스님이 있다. 대행 스님은 1971년 안양 석수동에 한마음선원을 세운데 이어 16개 국내지원을 개원했다.

또 해외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1987년 미국 모건힐지원 개원을 시작으로 캐나다, 아르헨티나, 독일, 태국, 브라질 등지에 10개의 해외지원을 설립, 마음공부를 통한 행복의 길안내를 했다.

前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쏘모 스님은 1982년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지만 대만으로 수계하러 가던 중 한국에서 구산 스님을 만나 계를 받았다. 前전국비구니회장 혜춘 스님을 은사로 '혜공'이란 법명과 비구니계를 받은 쏘모 스님은 현재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며 세계여성 불 자 연 합 회 인 '사 키 야 디 타(Sakyadhita)'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만불교에는 1만 5000명의 봉사회원과 400만명의 후원자를 보유한 자제공덕회 설립자 증엄 스님이 있다. 태국에는 담마난다 스님이 비구니 승가 재건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2003년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받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마르틴 베첼러, 미리암 레버링 등 여성 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덕현 기자

여성, 치마·기복 불교 벗어나 지역사회 이끄는 리더로 급부상

여성 불자들의 신행 모임

한국불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여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여성불자연합회, 부산불교여성포럼 등이 있다. 1990년 3월 김묘주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창립된 불교여성단체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있다. 가정폭력 상담 등 각종 교육 사업과 이혼예방센터 등을 운영 했으나 현재 활동이 저조하다.

5월 7일 불교여성개발원(회장 정경연)은 〈승만경〉 읽기 모임이 한창이었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가 지도하는 이날 모임에서는 승만보살 10대원 발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승만경의 여래장 사상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작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은 〈승만경〉을 대중화해 여성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초대 회장 이인자 교수는 "승만보살의 10대 원을 바탕으로 우리 여성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0년 창립 이후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 포럼 개최, 출판, 리더십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혜로운 여성, 영 108인 등을 창립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성전용 교육관을 개원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지난 5월 9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로 창립 19년째를 맞고 있는 부산불자 연합회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매년 청소년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래 매월 정기법회, 여성불자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 군과 교도소 포교, 장학금 수여와 환경보호 활동, 사찰순례와 사경법회, 여성 NGO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왕선자 회장은 "기복 신앙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라며 불교여성연합회의 창립 취지를 전했다.

능인선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여성포럼(회장 윤정자)은 지난해 7월 창립 올 4월 첫세미나를 열었다. 윤정자 회장(부산 능인선원 신도회장)은 "부산이 불국토라고 하지만 기복 불교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 각계 여성 리더들을 모아서 매월 2회 교리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정기 모임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여불련-교육·상담·세미나
불교여성개발원-교육활동 풍성
부산여성불자회-지역사회 공헌
부산불교여성포럼-세미나 개최

지난 4월 23일 국제신문 소강당에서 개최된 부산불교여성포럼 제1회 세미나는 불교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회장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승보살의 지혜를 배우고 불자로서 신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성 불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깨달아 부산 불교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자 마련한 세미나"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여성 불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통해 여성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불자 모임들이 나와 여성 불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숙 기자


여성불자들이 모여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모임 현장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무릇 생(生)하는 법(法)은 모두 멸망하는 법(法)이다. 〈율장 대품〉

Commodore HOTEL BUSAN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부산 야경...
코모도호텔 부산


코모도호텔 부산을 비롯하여 코모도호텔 경주, 코모도호텔 포항
3개의 호텔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코모도호텔 그룹은 가장 한국적인 호텔이며,
고객과의 30년 이상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이상의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모도호텔에서 격조 높은 서비스와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십시오.
문의 및 예약 051) 466-9101
코모도호텔 부산 | 600-110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43-80 TEL : 051) 466-9101 FAX : 051) 462-9101 www.commodore.co.kr
코모도호텔 경주 | 780-290 경북 경주시 신평동 410-2 TEL : 054) 745-7701 FAX 054) 740-8349 www.commodorehotel.co.kr
코모도호텔 포항 | 790-829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2 TEL : 054) 241-1400 FAX : 054) 242-7534 www.commodorepohang.co.kr

대한불교 관음종
송 광 정 사
주 지 진 각
어린이 한자교실
토요스쿨 교육청 우수인증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박사과정 재학중
• 동방대학원대학교 2013학년도 원우회장
■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41-29 TEL 051)867-4564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佛光 BLIA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심 산(深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홈페이지 www.busanbuddhism.com
E- mail : 5080345@hanmail.net

'모성' 리더십으로 정토구현에 나서자



자비심으로 아픈 환자를 돌보고 있는 비구니 스님의 모습.



교육, 의료, 상담 분야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여성불자들이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중인 여성불자들.



봉은사 수능기원법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녀의 학업성취를 기원하는 여성불자의 모습.

한국 여성불교가 나아갈 방향

여성불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각종 불교대학이나, 시민선방, 사찰수련회 등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13년 조계종 포교원이 조사한 불교대학 입학현황에 따르면 불교대학 신입생 중 여성 불자가 2011년 5800명에서 2012년 65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불자들은 이제 수행하여 스스로를 닦아가는 불교 쪽으로 신행활동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포교원에 따르면 불교대학 수강생 중 여성 비율은 78%에 달하며 2004년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의식 조사에서는 시민선방 수행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에서도 자원봉사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말한다.

여성불자들의 활동은 신행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불교 각 분야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에는 군부대에 비구니 군승이 사상 최초로 파송될 예정이다.

세계 불교계로 눈을 돌려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확연하다. 미국 불교계간지 〈샴발라선〉은 2005년 유럽과 미국에 여성불자 비율이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불교 내 차별의식부터 개선

이러한 여성불자들의 활동은 여성불교가 발전하기 위한 몸풀기 단계에 불과하다. 여성불교가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양성 평등을 위한 불교 내부의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3월 19일 조계종 제193회 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 "교구본사 운영에 비구니가 애종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 7직을 비롯해서 본사가 관할하는 조직에 비구니 30% 할당제 시행을 검토해달라"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는 "취지는 공감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본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은 "천주교의 경우 교단 내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오랜 투쟁을 했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에 비해 한국불교의 경우 교단 내 비구니 스님들의 비중이 큼에도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고 먼 산을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또 "양성평등 문제를 힘의 균형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불교 여성들의 자존감이 낮고, 교단 내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교단 전체에도 손해다"고 말했다.

일운 스님도 "현재 산중총회를 비롯한 모든 종단 내 활동에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비중이 작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구니 스님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역할 확대는 힘의 논리가 아닌 불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교양대에 여성불자 비율 80%

군승 등 금녀구역에도 진출

불교 내 보수성 변화 계기 마련을

'모성'으로 자비실천 확대해야

모성으로 사회를 맑게 바꾸어야

전문가들은 여성불자들이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대외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이 여성불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기복' 내면의 '모성'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무한한 힘이 있듯이 '기복'으로 평가받는 여성 내면의 성향은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도 함께 내재돼있다"며 "현대사회는 지식시대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에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불교 내부적으로도 여성불자들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성과 자비심을 살려 각종 봉사활동 등을 여성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사회봉사를 여성리더십 발현의 첫 관문으로 보았다. 전 원장은 "사회봉사는 여성불자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이라며 "이러한 여성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곧 포교이며 사회를 맑게 만드는 일"이라며 여성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여성불자들부터 주체적으로 변화

전문가들은 여성불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여성불교계가 주체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여성들에게 남성적인 면을 요구 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대인들이 왜 여성을 지도자로서 불러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남성적 리더십에 맞추기 보다 '모성' 등 여성이 지닌 성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여성불자들이 많지만 주체적 의식으로 결합돼 있지 않다"며 "여성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나기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단체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 등을 담당할 여성단체들이 미약한 조직체계와 운영으로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1965년 창립된 대한불교부인회, 대한불교정각여성회,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여성불교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등 10여개 단체가 있지만 친목이나 신행, 사찰 외호세력에 그치고 있다.

정신대 문제 진실 해명, 이혼 예방 상담 및 전문상담원 교육 실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여성운동의 획을 그은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은 "여성불자들도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이 불교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점차 퇴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명예회장은 "여성단체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생명 문제 등 여성으로서 의견개진이 필요한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으로서 활동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이어 "젊은 여성불자들에게 알맞은 수행과 신행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종 정 아신 수완나

종회의장 운담 총무원장 효원 능인 감찰원장 일정

중앙칠불선원장 도견 중앙승가강원장 효담 중앙염불원장 무일 중앙포교원장 경타
문 화 원 장 능하 대외협력본부장 능광 예 경 실 장 능일 비 서 실 장 지안 기 획 실 장 향덕

대륜불교조계종은 근본 가르침을 복원하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위해
삼수삼행(三修三行)으로 평등자비(平等慈悲)를 실천하는 청정승단(淸淨僧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의 수행을 원하십니까?
대륜불교조계종으로 오십시요.

입종문의는 종단홈페이지 참조【 http://www.arahan.org 】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주 지 원산 도명
부주지 일해 재원

유 나 천진 보탑
율 주 중산 혜남
강 주 현진 지형
율원장 우설 덕문
박물관장 무애 무애

총무국장 현덕
기획국장 선혜
교무국장 광우
재무국장 혜원
사회국장 도안

포교국장 명본
호법국장 진응
원 주 마벽
도 감 선림
농 감 도훈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회 주 원조 각성
주 지 남전 호성
부주지 등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두견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지견

고운노인요양원원장 석우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도륜
의성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운
안성장애인복지관관장 이호걸

템플스테이 둘째·넷째주 토 ~ 일 (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 054)833-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부처님이 오신 뜻 깊은 날!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 월주
회 주 금산 도영
주 지 벽산 원행

부 주 지 성우
총 무 원혜
기 획 덕산
교 무 보연
재 무 신행
사 회 운천
호 법 원성
포 교 보륭
도 감 보산
신도회장 김백호

사부대중일동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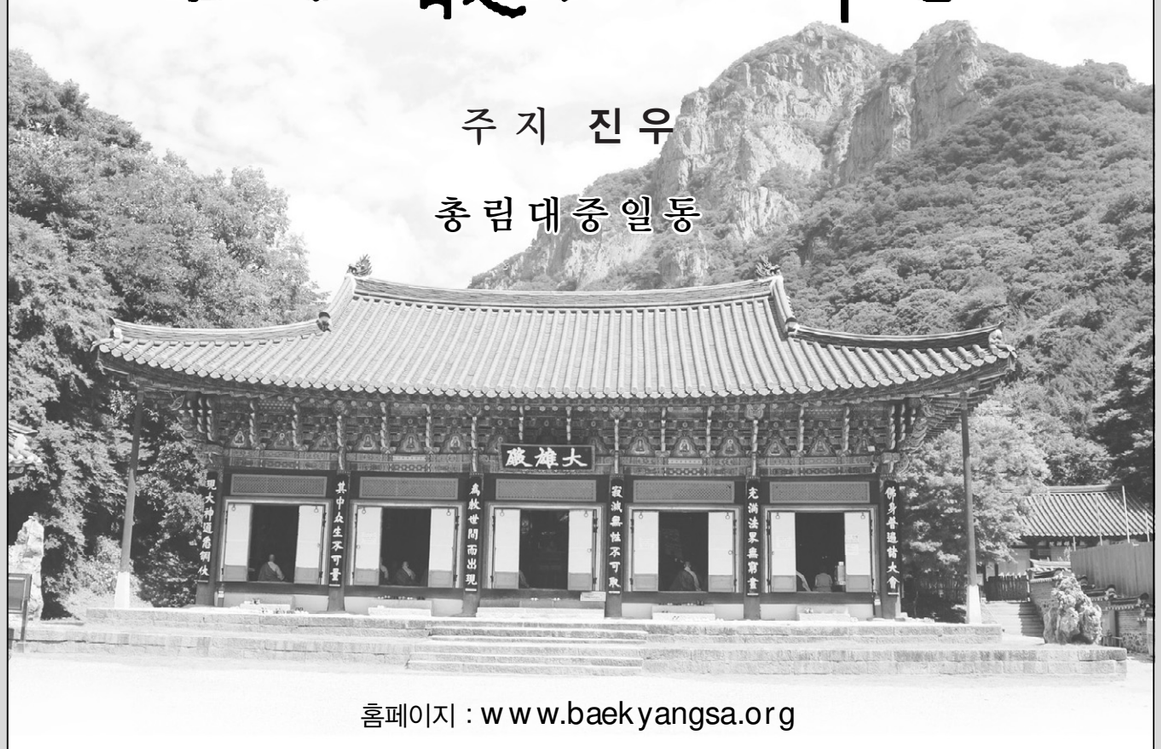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주 지 진우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 운 사

기도와 수행 · 복지와 문화공동체 선운사

•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
• 선운사초기불교 승가대학원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군종합복지관 / 고창푸드마켓
• 고창군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센타
• 백파사상연구소
•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주지 登雲 法滿 ·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로 250 전화 063)561-1422 http://seon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 인 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감 원 원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지금 이곳이 '수행처'… 사바세계가 '극락정토'

해인사 희랑대 보광 스님 20년 만에 서울 법문

참불선원 아잔브람명상센터 서울 지원 개원 축하 법회

보광 스님(해인사 희랑대 회주)이 20여년 만에 서울서 법문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자인 각산 스님이 5월 9일 참불선원 아잔브람명상센터 서울 지원을 개원하는 자리에서 보광 스님이 축하 법문을 하기 위해 서울 나들이를 한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한 이 자리에서 스님은 진정한 부처님오심의 의미를 돌이켜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심성의 이치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임을 알고 이를 위해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참불선원 개원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내생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지만 부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은 뜻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처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바깥에서의 모든 인연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연해탈이라고 하고 모든 인연을 자기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심해탈과 연해탈을 얻었을 때 그것을 대열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 그곳이 바로 불국정토입니다. 앞의 극락세계는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니 어느 곳에서도 부처님 모시고 수행을 하면 불국 정토입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 전생에 설산 수행하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의 부처님은 설산동자라고 하죠. 나찰귀가 찾아와서 그대는 "지금 뭐하는가"라고 물으니 "성불하기 위해 수행한다"고 대답하니 나찰귀가 이런 법문을 들려줍니다. "삼라만상은 인연과 업으로 거미줄 같이 얽혀 있으니 모든 현존하는 법은 시시각각 무상이다"

이때 말하는 무상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바른 법의 이치에서는 애초부터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설산동자가 뒤의 법문을 이어 달라 하니 나찰귀는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만 법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산동자는 '지금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죽는 한이 있어도 법문을 들어야겠다' 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아먹고 힘이 생기거든 영혼에게라도 뒤의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설산동자는 벼락에서 뛰어내리는데 이때 나찰귀는 제석천으로 변해 설산동자를 받아들고 이렇게 법문합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무상이고 환상이고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면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을 위해 깨달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매달려서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사를 걸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교는 전기의 인도불교와 후기의 중국 불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열반하고 난 뒤에는 법을 근간으로 하라고 일러 주니 그것을 원시 불교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와서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불교의 성패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후기 불교에 속해 있지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내 근기가 부족하고 성심이 부족해 이루지 못했다고 믿을지언정, 내가 불교를 이만큼 믿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없나를 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수행하러 잘 오다가도 나중에는 띄엄띄엄 오다가 잘 안 와버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절에 가보니 별 영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부처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바세계 절을 짓고 법문을 들으면 이것이 극락정토입니다. 주소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면 헷갈리니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법문했는데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 싯다르타 태자가 뒷말을 해주게 됩니다.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삼계는 마치 불난 집과 같지만 나는 편안하다고 말이죠. 이는 우리의 불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 알고 보면 하나도 나쁜 것이 없고 깨달을 것 하나 없다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법문이 다 끝났는데도 대중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는 대원력을 세우고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하필 왕자로 태어났을까요? 우리 중생들은 잘 살고 오래 살고 호강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돈 벼락 한 번 맞아 보고 죽고 싶다 또 왕과 같은 권력이나 한번 가져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가했고 죽기를 맹세하고 6년 동안 고행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궁의 왕자로 태어나 이 세상 부귀영화는 춘몽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출가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침 뱉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 받겠다고 영험 도량 찾아서 강원도 어디 산꼭대기로 절벽 타고 기어서 올라가고 팔공산 어디로 기도하러 가죠? 그렇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기도는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살 먹은 애들이 물가에 있으면 위험하지요. 엄마는 이러면 불안해서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물에 빠지면 엄마는 하던 일 던지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자비심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화장실이든 어디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기도처입니다.

사바세계가 부처님 오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법이 사바세계에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성불했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서 나와 똑같이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출가와 고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방에서는 죽을병에 들면 독약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중생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중생병 탐진치 삼독 중병에 들어서 이런 고행을 하지 않으면 삼독 번뇌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 때는 삼라만상이 불성이며 이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몰랐을 때 번뇌 망상 죄업 생사라 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붙인 것입니다. 도를 깨달으려면 지옥 찾아가 들어가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편한 거 호위호

탐진치 중병 벗어나려면
지옥 찾아가듯 정진해야
자신이 있는 곳이 기도처

심성의 이치 아는 것이 '불교'
부처님 법 듣는 순간
수행할 때임을 자각하고
'정진' 하면 성불 할수 있다

식 노는 것 찾으면 영원히 성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불할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게을러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씨앗을 심었더니 때마침 비가 내리니 저절로 싹이 터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부처님 법을 듣는 순간 씨앗을 심을 때고 수행할 때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결국 '진성' '진아' 입니다. 심성의 이치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배운다고 고생만 했지 결국 무식한 것도 유식한 것도 70이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심성 하나 잘 찾으면 그것이 진짜배기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날 적에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불자라면 살림이 있건 없건 의식주에 매달리는 자세는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장부심입니다. 장부심을 가져야 비로소 부처님 믿는 마음이 진심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불법을 믿고 배우고 닦아서 저절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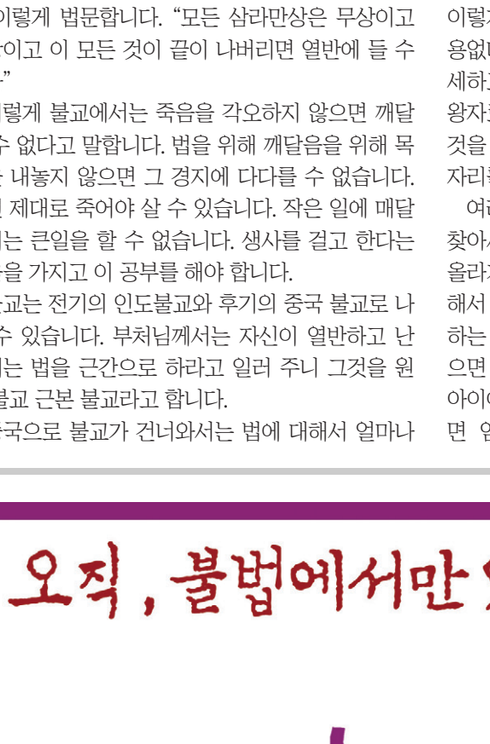

해인사 희랑대 회주 보광 스님은 "자부심을 갖고 불법을 믿고 배우고 닦으라"고 설했다.


5월 9일 참불선원 아잔브람명상센터 서울 지원 개원 법회에서 해인사 희랑대 회주 보광 스님이 법문했다. 이 자리에는 대중 200여명이 모여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 | 음 | 대 | 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 010-9043-1016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 59권(30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1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 부 대 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 부 대 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주 지 태진덕천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불교 종단협회의 상임종단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

교구원장 도 정

법성	만성	혜일	무경
무상	석월	법인	법광
지현	정암	무상심	동호
고봉	보명화	고성	명시
지공	보훈	본연	송담
법인	경덕	석월	성수

■ 입종하여 불법홍포를 함께하실 분을 모십니다.
원장 054)774-0823 / 010-9610-0829
총무 011-503-678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학 장 최원허

재 학 생 일 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

도심 속 전통의 멋스러움이 숨쉬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 각 사

주 지 도 요

● 원각사 지장전 만년위패 봉안
●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정진기도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봉행
지도법사 : 도요스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번지
전화 062)223-3168 / FAX 062)224-5280
www.wongaksa.org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류화산

신도회장 윤수현

부 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지장도량 미륵사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주 지 혜법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7 | 전면광고

남들이 자신을 헐뜯더라도 분노로 대하지 마라. 〈장아함경〉

사상구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종학(불광사)
법공(칠보정사) 성비(영수암)
자문위원장 종선(해경사)
자 문 위 원 무학(성학사) 청암(관음사) 정수(성불암)
만오(도원사)

사상경찰서 경승
고 문 청강(옥천사) 유정(운수사)
실 장 성문(선광사) 성관(백운사) 성림(관음사)
대둔(용운사) 혜산(봉덕사) 지관(약수암)
법경(광명사)

회 장 유정(운수사)
수석부회장 성문(선광사)
부 회 장 성관(백운사) 만용(성불사) 대둔(용운사)
총 무 국 장 혜산(봉덕사) 포 교 국 장 은적(관음사)
의 전 국 장 성림(관음사) 사 회 국 장 자륜(낙은사)
문 화 국 장 지관(약수암)
감 사 진각(홍덕암) 법경(광명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번지 운수사
TEL 051)313-3300 팩스 051)317-5672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홍법 이상갑
수석부회장 전수덕
상임부회장 자광 장병주
상 임 감 사 김명조
자문위원장 심인택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 사무국 010-8581-2045 팩스 051)862-1024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총 관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장 서은해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범어사금정불교대학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바로알고 바로믿어 바로행하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학 장 수 불
담임법사 지 장

총동문회
재 학 생
일 동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91-1
TEL 051)866-7277 / FAX 051)864-7290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회 주 법담 정각
주 지 성해
법 사 범진, 이구
노 전 정혜
신도회장 광운 김동렬
바라밀합창단 노정임

■ 부산시 영도구 동삼남로 11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2100
FAX 051)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실 고 산
주 지 원 허
신 도 일 동
[재]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 재 어 린 이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번지
TEL 종무소 051)866-7771~3
FAX 051)866-7777

마음편한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 부 대 중 합 장

"미타선원의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선공부 · 명상상담 전문교육도량
행복禪수행학교
행복禪명상상담센터
청소년 명상치유 행복한 동행

■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051)253-8687~8 / www.mitazen.net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산5번지
TEL (051) 317-5671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천성산 용주사

주 지 성 남

신도회 회장 이강백
거사림회 회장 한정두
선우봉사회 회장 김현자
다라니기도회 회장 김분남
천용불교대학 학생장 김옥선

사부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800-44 (석계리 5-13)
TEL 055)587-9110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선원 홍제사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 하 루 -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월) 다라니기도 - 오후 7시 ~ 9시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3동 485-31
TEL 051)802-0130 / FAX 804-1037

석조약사여래대불

마안산 자비암



주 지
자 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239번지
TEL (051)552-3320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대법륜사
부산 광명선원

학 장 금강 효선

대법륜사 불교학교 재학생, 동문회
거사림회 합창단
광명선원 불교대학 재학생, 동문회
광명선원 다도회
합창단
청년회
신도회 일동

■ 대법륜사(백팔윤장대도량)
경남 김해시 흥동 509-1
TEL 055)324-5457
■ 광명선원(천도재,구병시식 전문도량)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TEL 051)503-5457, 504-6017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부산교구

부산연등축제
좋은인연을 지읍시다

교구청장 효 원정사
총 무 학 인정사
신도회장 문연주(대원)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841-8번지
TEL 051)464-0668 /FAX 051)557-0668

dongguk UNIVERSITY

불교문화대학원 동 림 동 문 회

자 문 신풍, 학산
명예회장 송월, 심산, 무상
회 장 광진
수석부회장 법안
부 회 장 효신, 고담, 대광, 의호
보당, 진각, 지원, 보원
정오, 지엄, 안도, 진각
이 사 해광, 혜연, 만우, 명천
제민, 청암, 도경, 관성
광진, 법천
감 사 성화, 구상
사무총장 효선 기획국장 선웅
재무부장 일원 총무부장 보덕

회원스님 일동

■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백 의 관 음 도 량

기 장 청 량 사



주 지
보 혜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498-4
TEL 051)723-1851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8 | 전면광고

경전(經典)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대 동 회

회 장 정혜
운 영 위원장 벽담 학명

회원일동

■ TEL 054)977-4884
H·P 010-6720-6204
(회장 정혜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반 룡 사

주지 혜해

경산시 용성면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 문무왕(66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설총 선생이 유학했던 곳으로
고려 문종때 화엄 천태종 고승 원흥국사가
이곳에서 대중창을 하였다!

*원효불교대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전동 118-2
TEL 053)852-1919
FAX 053)852-1950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사

주지 지우

◈ 보현사 ◈
지혜를 계발하여 행복한 삶을 열고 싶으신 분,
고통으로 힘드신 분, 보다 더 나은 삶,
불교의 교리를 내 것으로 체득하고 싶은 분,
불교를 현실에 잘 응용하고 싶으신 분은 오십시오.

보현선원 정 진 매월 오전, 오후 선방에서 정진합니다.
※토요 철야 정진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매일 정진하고 싶으신 분, 토요일 철야 정진하실 분은
1층 선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명 상 실 정 진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녁 7시 ~ 10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4시

법당 염불 정 진 매일 새벽 기도 4시 30분,
사시 기도 오전 10시, 저녁 기도 저녁 6시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2-35
TEL 053)431-5400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 대구은행 : 006-05-336518-001

대한불교조계종
삼 보 사

주지 정혜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백운리 136
TEL 054)977-4884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 일 사**

주지 무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산 225
TEL 053)655-0225
■ 부설 반야유치원 TEL 053)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주지 활중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TEL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기도도량 **중 암 암**

종회위원 주 지 덕조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TEL 054)335-3380

청도불교사암연합회
대 비 사

회 장 주 지 지연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번지
TEL 054)372-3876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주지 남명 허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TEL 053)984-4550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

신도회장 여공 한삼화

(주) 삼한C1 (대표이사 회장)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사무국연락처 : 사무국장(이달용)
011-510-998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회 장 류병선
장학사업 및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운영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35 (보현사 별관 3층)
전화 053)253-2886, 팩스 053)252-2886(신도회)
053)253-1082 (자비의 집 봉사부장 장춘강)
■ 장학후원계좌
대구 043-10-010486
국민 028201-01-013886
우리 1005-901-797252
외환 630-007485-229
농협 301-0075-8540-01
•무료급식소
후원계좌 대구은행 096-04-000193-7
(복지재단 무료급식소)
※ 입금후 연락바랍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혜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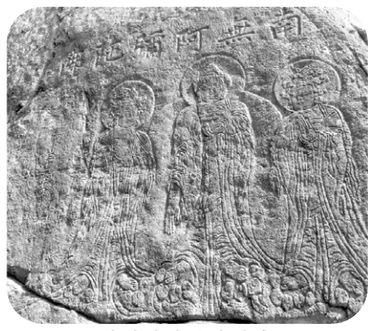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9 | 전면광고

불법(佛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다. 〈대지도론〉

대한불교조계종

천성산 원효암



아미타삼존마애불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 1번지
TEL 055)375-4111

불교TV 염불공양모임

회 장 하정선
특별회원 임춘지
부 회 장 이경숙 하영순 한계순
감 사 김순이 하순임
운영위원장 서숙영
총 무 윤정희
재 무 안상희
홍보팀장 정승자
포교팀장 윤미자
문화팀장 남순옥

이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830-260 동양빌딩 7층
TEL 051)633-4020

전통불교조각전문기관

보광불교조각연구소

소장 보광 안강수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 시험 출제위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945-1
TEL 055)323-9964

기장군 불교연합회

회 장 정 오 (장안사 주지)
수석부회장 법 안 (안적사 주지)
부 회 장 보 혜 (청량사 주지)
감 사 혜 성 (해광사 주지)
총무국장 도 은 (장안사 총무)
재무국장 혜 명 (혜명사 주지)
포교국장 성 타(동림사 주지)
복지국장 법 귀(백련암 주지)
홍보국장 정 산(덕주사 주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재순 (장안사)
수석부회장 조창국 (옥정사)
부회장 박애란 한정희 김경옥 이해수 최선애 강다영 김춘애 성환필 이영화 심승희 이수복
감 사 송재일
사무총장 최임진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498-4
TEL 051)723-1851 / FAX 723-1852

K-MBSR 명상치유교육전문기관

해운대 시선원

MBSR 2기 수강생 모집
6월 8일(토) 개강

■ 마음공부, 명상수행, 상담 및 안내
■ 경전공부, 명상어록, 선어록 공부안내
■ 명상치유, 명상교육, 명상코칭, 워크샵 진행
■ K-MBSR 명상치유 교육강좌 개설

(MBSR은 마음챙김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대부분 대학병원에 시행중인 과학적 심신건강프로그램입니다. 전 서울대 심리학과 장현갑교수와 함께 하는 제2기 수강생 모집중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2동 1327-5 송강빌딩 11층
TEL 051)746-7611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불교!
200만 부산불자가 주인공입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윤희

外 임직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1동 393-12번지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www.baob.kr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상임고문 박수관
고 문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민식 박홍배 김영주 허인구
회 장 박순곤
수석부회장 김종백
부 회 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박영근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양재생
감 사 노종헌 박형주
사무총장 신상해 재무총장 박차수
총무이사 장병주 기획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공정근 사업이사 정연식
조직이사 이헌호 홍보이사 이현수

이사회원 일동

■ 부산 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社)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박주영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 장 김윤순
수석부회장 조옥자
부 회 장 이정희 이나견 장옥기 박화자 김정숙 김윤경
감 사 김숙자
총 무 윤의숙
재 무 조영순
운영위원장 강경희
교 무 김해숙
홍 보 안소민
봉 사 김순자 곽정순 문성아 노정임 이필순 강옥자 김진남 정임숙 김정애 김민경 신정희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867-0501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 독성기도 영험성지

삼각산 삼성암

주 지 수봉 세민
총 무 일 진
신도회장 유병권
화 주 박자심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초삼일 독성기도



■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산 164-5
TEL 02)988-9300,1996
www.samsungam.org

사단법인 대한불교

천 불 정 사

주 지 고 담
부 전 등 각
사무장 이정선
신도회장 이재덕
부회장 임영미
총 무 백서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3동 334-52
TEL 051)583-9233 주지실518-6362

마음밭을 가꾸는 행복도량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사부대중 일동
불교대학 · 경전반 운영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16-1
TEL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사 리 암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240-55
TEL 051)201-2255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이 사 : 자광스님, 종호스님, 보선스님, 혜공스님, 송정스님, 법현스님, 일진스님, 경륜스님, 혜수스님, 무원스님, 학성스님, 정묵스님, 덕정정사, 정 인 악, 윤 근 향, 이 수 덕, 이 원 기, 유 성 자, 박 완 순

감 사 : 현암스님, 이 기 화

"장기기증희망등록으로 마음기부 하세요"

■ TEL : 02-734-8050 / www.lisa.or.kr
농협 : 053-17-001346 / ARS : 060-703-1133

高靈 Goryeong Roofing Tile Industrial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범어사 울산포교원

여 여 선 원

선원장 정 여
주 지 효 암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26-5 C1020빌딩 8층
TEL 052)267-0108

백 두 사

<부설>백화도자기

회 주 해 월
주 지 백 천
신도회장 노길남 장종임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648-1
TEL 051)721-3896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 지 자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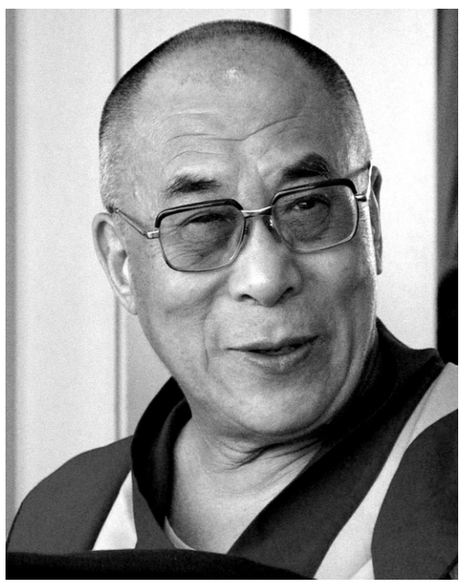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4층
TEL 02)3391-8523

타인에게 자비와 연민 베풀 때 '행복' 시작



달라이라마의 행복 찾기
달라이라마 지음
제프리 홉킨스 엮음
우충환 옮김
1만2천원



달라이 라마의 '진정한 행복'
분노와 미움 걷어내고 평화 찾아야
착각 버리고 행복 찾는 길 제시
언어적 차원 아닌 실천적 명상법

"진정한 행복이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은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책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교감하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명상수행법을 소개한다. 혼란한 사회와 분열되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달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달라이 라마〈사진〉의 '행복 찾기'다.

"인류 발전을 위한 큰 구상도 결국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나옵니다. 먼 미래로 나아가려면 우선 분노와 미움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국가 간 세계정세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고된 일상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화(火)와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만약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화를 분출하게 되면,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까지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부를 쌓고, 무조건 화를 참아야 할까?

달라이 라마의 통역사였던 제프리 홉킨스 박사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인 달라이라마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착각을 버리고, 고통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연민의 감정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평소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착각들을 고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월감, 이기심, 허영, 자기비하 등의 감정이 반영된 것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한다. 가령, 내게 화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맞서 화를 내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득이 된다고 믿거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화나 욕망을 남에게 표출하며, 나쁜 감정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가 하는 착각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책은 그러한 착각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황별 '마음 바꾸기' 명상수행법을 소개한다. 달라이 라마는 '마음 바꾸기' 명상 수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서 변화가 시작되며, 분노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와 연민을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달라이라마의 명상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발생되는 마음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처럼 책은 자신의 마음상태를 인식하고 부정의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명상수행법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달라이 라마의 지혜와 깨달음을 전하는 언어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독자 스스로 변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번 책이 달라이 라마의 다른 책들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우리가 인간존재 즉, 가족, 이웃, 사랑하는 사람과 심지어 적에 대해서까지도 자비심을 가질 때, 화나 시기심과 두려움 같은 파괴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 온정적이고 친절하며 조화로운 힘을 불러일으킨다. 달라이 라마는 소박한 언어와 놀라운 명쾌함으로 지구촌의 조화는 각각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례 없이 분명이 해준다.

책은 학생이며 사상가, 또 정치지도자이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달라이 라마의 경험에 대해 친근한 설명과 사적인 일화로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모든 신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화, 미움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법을 제시하고 공동체와 전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는 해답을 준다. 또한 인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인간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류 모두가 한 가족이며, 모든 존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만약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 또한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증오와 분노로 맞서기보다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 타인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가질 때 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처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비와 연민의 감정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오직 '견성'을 말하다

육조단경

김태완 역주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5천원



조사선(祖師禪)의 창시자이자 정립자이며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인 혜능 스님이 소주의 대범사에서 설한 법을 제자 법해 스님이 기록한 〈육조단경〉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번역이다.

〈단경〉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현존 최고(最古)의 판본인 '돈황본'을 비롯해 '대승사본', '흥성사본', '덕이본'과 '종보본'이 있다. '단경'이란 이들 여러 판본의 제목들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름이다. 책은 문장의 오류가 적고 내용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어 혜능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있는 '덕이본'을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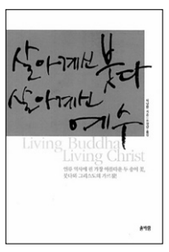
6조 혜능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육조단경〉은 중국 조사선의 출현을 알리는 중요한 책이며, 조사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책이다. 첫째는 견성, 즉 불이법인 불성을 보는 깨달음과 둘째는 불법은 불이법이라는 것이다. 〈육조단경〉 전체의 내용이 이 두 가지 주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혜능은 견성을 말한다. 불성, 자성, 본성은 불이중도의 다른 이름이고, 선은 불이중도를 깨달아 언제나 불이중도의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선정, 해탈, 열반, 보리 등 불교의 모든 용어들은 단지 불이중도인 견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하는 것일 뿐, 제각각 차별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불이중도인 견성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책은 원문의 목차에 따라 전체를 10개의 장으로 나누었고, 각 장마다 번역문을 앞에, 원문을 뒤에 배치했다. 또 원문은 표점을 하여 읽기 쉽도록 도왔다. 서문과 발문도 모두 번역하여 소개했다.

박재완 기자

"상대 종교에도 귀중한 요소 있어"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틱낫한 지음 | 오강남 옮김 | 솔바람 펴냄 | 1만5천원



"불교와 그리스도교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다." 16세에 출가하여 지금까지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베트남의 승려 틱낫한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종교 간의 대화, 종교인의 화합 그리고 인류에 대한 종교의 헌신을 주장하며 화합 종교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책은 틱낫한 스님〈사진〉의 저서로 부처과 예수의 삶,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읽어주면서 두 종교가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책은 1997년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다. 수정과 보안 작업을 거쳐 새롭게 출간된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예수〉다.

"나는 신앙인들이 생애를 통해 오직 한 가지 과일만 먹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여러 종교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최고의 가치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조와 이데올로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서로 죽고 죽인다. 자기 신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고집하면 폭력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충고한다.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로 생각하지 말라. 편협한 마음이나 견해에 묶이는 일을 피하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정도의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특정 견해로부터 해방되는 것부터 배우고 실천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불교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깊은 차원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통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는 프랑스에 있는 그의 암자에 부처님과 예수님의 성상을 함께 모셨다. 책은 부처님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들이 남겨 놓은 이 위대한 종교의 두 전통들이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을 사는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사색과 체험을 쉬운 용어와 화법으로 엮어가며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 간다.

박재완 기자

용성스님 〈임종결〉 강설…생사윤회 이치 담아

생사의 지혜

홍종삼 지음 | 책펴냄열린시 펴냄 | 2만원



이 책은 한말, 일제강점기 승려이며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대각교를 창시한 백용성 스님의 〈임종결〉을 문화회 공부방서 강설한 내용이다.

책은 삶과 생사윤회에 깊은 이치를 담고 있다.

저자는 "실제로 생사 문제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것이고 이는 모든 생명들에게 필연으로 오는 것이기에 곧 죽음을 해결하고 참 삶에 이치를 밝혀 알리고자 했다"며 "더 근본적인 뜻은 생사윤회를 설명해 지금의 현재 삶에서 나쁜 습기를 선업과 덕행으로 바꾸고, 자신을 깨치고 생활에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는 좋은 인연으로 이끌어내고자 해설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삶과 생사를 논한 이치는 태어남, 삶, 죽음, 윤회의 심판을 4단계의 사유로써 설명했다. 이는 생과 삶과 사, 윤회가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이 아니기에 업과 식에서 윤회를 설명한 이치를 담았다. 여기서 육도윤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업에 의해 사생의 이치로 생명을 받는 도리도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상서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지금에 있음이 실로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를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이 자체가 일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행위인 '행주좌와어묵동정'에 모든 공부의 자료와 실제 이치가 담겨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가족이나 우리라는 단체에서의 일상에 행위 주체는 반드시 자신이다. 이 이치를 알면 반드시 자신의 수행을 위해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자신의 업과 식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업과 식에서 자신이 받는 실제라는 것이다.

그 예로 사람이 죽을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형제라 해도 단 한 호흡도 대신해 줄 수가 없으며, 또한 생각이 틀릴 때 한 찰나도 그 사유하는 생각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도리의 법칙이다. 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인생과 삶은 자신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치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 ~ 5/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7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8	오늘도 두려움 없이	틱낫한	김영사
9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10	길 없는 곳에서	덕일	작은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 우리절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
- 제6회 천년전주한지 전통 등 만들기 대회
- 완주로컬푸드 특별할인 판매전
□ 부대행사
- 체험 : 전통의상입어보기, 연꽃만들기, 한지켈리그라피, 소원지쓰기, 한지제기만들기
- 놀이 : 네일아트,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투호놀이
- 공연 : 마술, 난타, 어울림그룹사운드
□ 상품 및 경품
- 완주로컬푸드 상품권 (총 100만원)
- 문화상품권 (총 50만원)
- 한 지 상 품 (총 30만원)
- 다과 · 음료 및 무료체험권 (총50만원)
• 주최 : 참좋은우리절 신행연합회(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교육지원청, 새전북신문, 완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타, 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타, 완주군로컬푸드
☎ 063)236-6633, 다음카페(cafe.daum.net/urijel)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명사 초청 특강
◆ 주 제 :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 강 사 : 송월스님
군산대학교 전담교수, 필리핀 ERIST대학교 전임교수
◆ 저 서 : 사주풀이법수, 신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비결
◆ 내 용 :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본 특강은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 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가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송월스님저
◆ 일 시 : 2013년 6월 6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7시까지(5시간)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특 강 료 : 20만원
◆ 접수장소 : 관음출판사
◆ 전 화 : 02) 921-8434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208호(2층)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회복지가 곧 보현사상 실천"

성운 스님 등 학자들, 7일 정토학회 세미나서 역설

사유하여 발원하옵나니, 나는 이 세간의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공덕을 구족하고, 십력으로 일체지혜를 갖추어 일체 모든 중생의 탐진치의 치성한 불꽃 내 마땅히 해탈케 하며, 악도의 모든 고통 소멸케 하리.

이와 같은 서원을 발하여, 견고하여 물러남 없이 보살의 행을 두루 닦아서 열가지 걸림없는 힘 얻으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현행원 사상,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현보살의 행원과 사회복지와의 접점을 모색하고 불교사회복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현보살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보현사상, 민중 의지처 돼

보광 스님은 '보현보살 사상과 한국 아미산 장승신앙의 습합' 발제에서 보현보살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 민중들의 의지처가 됐다고 말했다.

먼저 스님은 "보현행원 사상은 상구보리를 행원을 통해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하더라도 중생에 회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현행원에 대해 설명했다.

보광 스님은 이어 중국 아미산 신앙과 보현보살 사상이 합쳐져 한국에서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중국 아미산에서 천연두를 막는 신인 천모선랑(天?仙娘)이 있었으며 현대의 종두법과 큰 차이가 없는 방두법을 보급했다. 천모선랑을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보았는데 이런 아미산 신앙이 17~19세기 유포돼 한국에도 아미산으로 불리는 곳이 110여 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한국의 경우 전통문화와 습합해 장승을 세우며 안녕을 기원하는 신앙으로도 발달했다. 결국 보현보살신앙이 장승신앙과 습합돼 믿어졌으며 이는 왕궁인 경복궁 안에도 아미산이란 가산을 만들 정도로 널리 성행했다"고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이런 아미산 신앙이 일본으로도

'보현보살 사상과 사회복지' 주제
"불교 복지는 정토건설 공생운동"
'복지는 곧 포교'에 한 목소리

건너갔다. 1825년 일본 니가다현에서 발견된 아미산 장승에 대해 일본에서는 중국 아미산에서 온 것으로 보나 이는 한국 장승"이라고 말했다.

'보현행원과 아동복지' 방향 제시

이에 앞서 '보현사상과 아동복지'를 발표한 황옥자 명예교수는 "대자비심을 발현하는 보살은 수행자이며 사회실천가"라며 "아동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인품 또한 보살의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중생복지를 위해 아낌없이 회향했듯 모든 아동도 언젠가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회향 할 것"이라며 "보현사상에 입각한 아동복지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길라잡이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정토학회장 성운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황옥자 동국대 명예교수


5월 7일 세미나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종단 복지 기구 창설 제안

성운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를 전담하는 범종단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성운 스님은 '한국불교와 사회복지' 발제에서 종단협 산하에 '한국불교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각 종단간 사회복지 사업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운 스님은 "사회복지에 대한 불교계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각 종단이나 사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복지법인을 총괄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범종단 기구 내에는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및 복지연구원 등을 마련해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보현행원은 자비사상의 실천이기에 사회복지와 맞닿아 있다"며 "불국정토 건설, 행복이란 공생운동으로서 불교사회복지를 펼치는 것은 결국 포교이념과도 같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보현행원품에 입각한 의례 실행',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의 '보현십원가의 비평적 해석' 등 주제 발표가 있었다. 노덕현 기자

김정배 가산硏 이사장, 문화재위원장에

임기 2년, 문화재청 위원장단 새로 선출



김정배(74 · 사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5월 7일 문화재청 제26대 문화재위원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김정배 위원장은 1940년 8월 1일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사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와이대학 대학원 인류학과에서 수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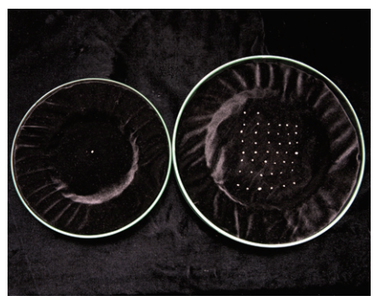
고려대 제14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정배 위원장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 후학을 양성했다. 이밖에도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燕京)학회 객원교수(1980~1981), 국사편찬위원(1982~2003), 고려대 서창캠퍼스 부총장(1990~1992),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발굴단장(1992~1994), 한국사연구회장(1995~1997),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및 한국암각학회 회장(1997~2001), 고려대 제14대 총장(1998~2002),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2004~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4대 원장(2008~2011)을 지냈다. 현재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과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민족문화의 기원〉(1973) 〈몽골의 암각화〉(1993)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200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2010)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석가탑 사리 45과 추가 수습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사리장엄구 보존처리 결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4월 29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 사리(舍利) 45과를 추가로 수습했다. 이번에 발견된 사리는 4월 2일, 2층 탑신석(塔身石)에서 수습돼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송된 사리장엄구 속에 봉안돼 있던 것이다.

이로서 석가탑 사리는 총 46과가 됐다. 이날 과학적 조사 분석과 정밀한 작업을 통해 목제사리병에서 1과가 수습됐으며 유리제사리병에서 44과가 나왔다. 지난 4월 2일 은제사리호(銀製舍利壺) 내의 은제사리합(盒)에서도 1과가 수습된 바 있다.

이날 수습된 사리는 불국사 무설전으로 이관해 석탑 복원 후 재봉안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불국사 측은 현재 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사리를 공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대승불교 중생구제 정신은 '전법' 통해 발현"

불광연구원, 5월 4일 대승불교 전법론 집중 조명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5월 4일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마련한 '대승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학술연찬회에서 전법정신 발현이 대승불교사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초기 대승행자들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발표를 통해 "부처님은 성도 이후 최초의 망설임 후에 전법선언을 하면서 가르침을 세상에 펴겠다고 결심했다. 교법의 근본은 중생에 대한 연민에 있기에 그 연민의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대승보살로의 시작점인 발심도 그 근저에 연민으로 이는 대비심이 있다"며 "대승불교에서 중생구제의 근본 마음을 강조하는 만큼 현재 불교계는 더욱 활발히 전법활동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초기불교에서도 전법의 중요성은 인정됐지만 경장과 아비달마 시대 이 가치는 열반 획득을 위한 주변부에 머무르고 말았다"며 "수행과 교학 중심의 불교로 흘러가 교세가 약해지는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끝으로 "종교의 본질은 모든 생명, 대중의 행복추구에 있다"며 "궁극적인 열반과 여래 지혜 획득을 위해서라도 교법을 설하고 이끄는 전법행위가 보다 활발히 일어야나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초기대승 행자들의 전법 정신을 비롯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표적인 대승경전에 나타난 '전법론'이 집중적으로 분석됐다.

안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날 학술연찬회는 △이영진 금강대 HK연구교수의 '반야부 경전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법화경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 △석길암 금강대 HK교수의 '화엄경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중앙아시아의 전법사들과 전법행'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고문헌 전수조사 들어간다

78년만의 사업, 불교학술원 2014년 4월까지 진행

합천 해인사 고문헌이 일제강점기 이후 78년 만에 전수 조사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5월 9일 합천 해인사와 고문헌 전수조사 협약식을 맺고 2014년 4월까지 해인사가 소장한 불경과 문집 등 고문헌 600건을 전면 조사한다.

해인사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조선총독부의 문헌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불교학술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실시 중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학술원과 해인사는 조사결과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측은 "1935년 조사는 소유 도서에 대한 파악 성격이었다"며 "각 도서가 가진 학술 ·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같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일환으로 대구 동화사와 신둔사, 용연사, 파계사에서 고문헌 조사작업을 진행해 보물급 문헌 4책을 새로 발견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부처님 오신날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부 산 제 2 총 무 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 2총무원 혜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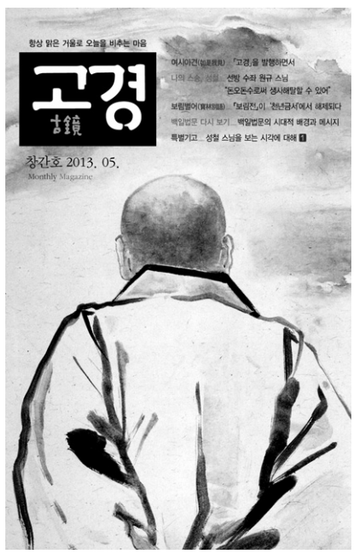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禪의 진수 전할 잡지 창간

해인사 백련암, 월간 〈고경〉 5월 창간… 선 · 명상 전문지



성철 스님 '선'의 정수 전달
순수 법보시로 독자들 찾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전하는 선(禪) 전문 잡지가 창간된다.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은 5월부터 매월 잡지 〈고경(古鏡)〉을 발행한다. '4x6' 판형에 총 64p 분량으로 구성된 〈고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禪)과 명상전문 잡지를 표방하고 있다.

잡지명인 〈고경〉 역시 '본래 마음'을 뜻하는 말로 〈선림고경총서〉 중 〈설봉록〉에 나오는 용어를 성철 스님이 인용한 것이다.

명상 전문잡지인만큼 〈고경〉에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록된다. 발행인 원택 스님은 '여시아견(如是我見)'을 통해 평생 시봉해온 성철 스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일화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유철주 기자는 '나의 스승, 성철'에서 제자들이 곁에서 모셨던 성철 스님 이야기와 받은 가르침 등을 가감 없이 전한다.

'제2의 법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철 스님은 혜능-마조 선사로 이어지는 조계종의 원류를 밝힌 최초의 전등록인 〈보림전〉의 안팎과 주변을 씨줄과 날줄로 엮으면서 동시에 오늘의 언어로 되살릴 계획이며, 서재영 박사는 한국불교 최고의 법문집으로 꼽히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또 김재경 비움과소통 출판사 대표는 재가선(在家禪)의 대가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 재가자들의 수행 방향을 제시하며, 이인혜 자유기고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다간 선사(禪師)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해줄 예정이다.

〈고경〉은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선과 명상 문화의 흐름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발행인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선(禪)의 정수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대의 다양한 명상 문화를 포괄하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불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또 "순수 법보시 잡지인만큼 많은 정성과 후원을 보내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법보시는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을 비롯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불자와 독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 1회 통도사 사계 사진 공모전

접수 마감은 9월 5일

영축총림 통도사의 본사와 산태 암자의 사계절 풍광과 신행활동을 조화롭게 표현한 사진을 공모한다. 통도사가 '제 1회 양산 통도사 사계 전국 사진 공모전' 사진을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통도사 산내 암자의 사계절 풍광과 신행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진으로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작품 규격은 11″×14″사이즈로 접수처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에서 접수 받는다. 심사는 9월 7일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는 9월 9일이다. 시상일은 10월 13일로 시상내역은 금상 1점(상금 300만원), 은상 2점(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상금 각 20만원), 가작 5점(상금 각 10만원) 등이다. 접수처는 626-854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74-5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로 우편접수 받는다. (010)3562-8716 **정혜숙 기자**



통도사 사진전 표지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귀부(龜趺)→용부(龍趺)

거북등 모양에 용머리를 세운 까닭은?

거북의 입에는 보주 없어

귀부라는 것은 비석을 받치는 거북이란 뜻이다. 지난 회에서 용의 아들 아홉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비희(贔屭)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세간에 도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贔)는 '큰 거북'이고, 희(屭)는 '힘쓰는 모양'이라는 뜻이니 '힘을 쓰는 큰 거북'이 된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고, 몸통과 등은 거북을 닮고, 머리는 용을 닮았으며 석비 아래에 둔다. 거북은 수명이 기니 영원과 길상(吉祥)을 상징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귀부에 대한 지식 전부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의미만 있을까.

모양은 거북을 닮았어도 실은 용이란 암시가 용구자설(龍九子說)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귀부라 부르고 얼굴을 귀두(龜頭)라 부르고 있으며 거북 등의 무늬를 귀갑문(龜甲文)이라 부르고 있으니 모두 틀린 용어들이다. 이제부터 왜 용부(龍趺)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으로 풀어내려한다.

호승지는 비석받침의 동물을 용의 아들로 보았지만 거북이라는 이름[贔屭]를 붙였다. 그러나 거북의 형상이되 거북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귀부는 모두 비록 거북등처럼 보이는 것을 지고 있으나 얼굴은 용이다. 뿔이 있으며 수염이 길며, 무엇보다 입에서 영기문이 나오거나 보주를 물고 있는데 실은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광경을 상징한다. 거북이는 보주를 지닐 수 없다. 통일신라 890년 충북 월광사 원랑선사탑비(圓郎禪師塔碑)(그림①-1,2)나, 고려 946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先覺大師塔碑)(그림②-1,2)나, 고려 1067년 법천사 지광국사(智光國師) 현묘탑비(그림③-1,2)의 얼굴을 보면 모두 용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오자마자 왕이나 이에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의 대좌로 용부를 삼았다. 그 첫 용부가 태종무열왕의 비석이며 그 이후 몇몇 왕의 용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얼굴이 언뜻 보면 거북의 얼굴 같지만, 입에서 영기문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므로 용의 얼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곧 뚜렷한 용의 얼굴로 변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왕이나 왕에 준하는 인물, 예컨대 김인문(태종무열왕의 동생)의 비석에는 용부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효보살로 일컫는 위대한 스님의 비석이 9세기에 세워지는데 그 때 비석을 용부에 세웠다.

왕이나 고승 비 받침에 사용

그러므로 용부를 받침으로 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 및 왕족이나 고승들의 비석을 세울 때 용부가 갖추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대한 인물에게만 갖추어지는 비석의 구성에 왜 용부가 등장하는가. 실제로 용의 등에 비석을 올려 세우려 하면, 용의 몸이 길어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거북이의 등을 빌려와서 넓은 비석 받침을 마련하고 그 위에 안정감 있게 비석을 세운다. 그런데 등은 거북의 등 모양이 틀림없지만, 실은 육각수문(六角水文)으로 이루어져서 '물'을 상징하고 용의 본질이 '물'이므로 서로 상응하여 비석의 받침으로 삼아, 그 영화된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연꽃모양 영기꽃에서 비석이 영기화생하는 광경을 나타내려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육각수문-(영기문이 있을 때와 없을 경우가 있다)-연꽃의 과정'을 거쳐 비석이 화생한다.

이 때 우리는 비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비석이란 무덤에 묻힌 사람의 훌륭한 행적과 업적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돌에 그 내용을 정성껏 새겨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석에 는 위대한 인물의 행적이 아로새겨져 있으므로 비석은 바로 위대한 인물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용부를 거쳐 위대한 행적이 화생하는 것이다. 즉 위대한 인간이 영기화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나라에서 비석을 세워준다. 그것은 서양에서 위대한 인간에게 동상을 세워주는 것과 같다. 귀부가 아니고 용부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월광사 원랑선사탑비


그림①-1


그림①-2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그림②-1


그림②-2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그림③-1


그림③-2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부처님 오신날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계유'가 새겨진 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은 천불상을 도상적으로 표현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전시는 6월 23일까지.

극락세계 염원 돌에 새기니 아미타불 화현 중생 어루만지네

국립 청주박물관 '불비상' 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인간의 간절함을 돌에 새기니 아미타부처님이 화현해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불비상(佛碑像) 염원을 새기다' 전이 4월 23일~6월 23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등 7점의 불비상이 전시된다.

전시는 통일신라시대 불비상을 통해 그 시대의 불교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주박물관 성재현 학예사는 "돌에 염원을 담아 새긴 우리나라의 불비상은 현존하는 수가 극히 드물어 통일신라시대 작품 7구만 전해지고 있다"며 "모두 동일한 재질의 돌(납석)을 사용하였고 조각기법도 매우 비슷하여 같은 조각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불비상은 옛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만 발견되어 '연기파(燕岐派)' 불비상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 불비상은 비록 남아 있는 수가 많지 않지만, 불교조각을 넘어 한국 미술사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상징성이 반영되어 현재 7구 모두 국보 또는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국보106)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조각과 글자 모두 네 면에 새겨져 있고, 7구의 불비상 중 가장 다양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발원의 내용이 담긴 글자는 정면 아랫부분과 옆면의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인 주악천(奏樂天) 사이 그리고 뒷면의 화불 사이에 각각 새겨져 있다. '계유년(癸酉年)' 은 이 작품을 만든 해가 673년(문무왕 13년)임을 알려준다.

불비상 7구 가운데 가장 큰 삼존천불비상(국보 제108호)은 천불신앙에 의한 천불상(千佛像)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돌에 천불상을 도상적으로 표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부분 불비상의 존명(尊名)이 아미타불(阿彌陀佛)로 나타난 것은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불비상에 새겨진 글자는 제작 연대 및 제작 당시의 역사적 배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043)229-6401 **정혜숙 기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장면이 그대로 묘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상' (국보 제106호). 각면에 발원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림으로 보고 음악으로 듣는 '문화 봉축' 향연

부처님오신날 전시 · 공연 · 영화 볼거리 풍성

맑고 흐리고 춥고 따뜻하고를 반복하던 변덕스러운 초봄이 지나고 봄의 절정이 지나갈 즈음 성큼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왔다. 푸르른 5월 만큼이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불기 2557년을 맞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전시부터 공연 영화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시 **부디스토리**는 두 번째 전시 '가득찬 비움'을 5월 8일 갤러리M에서 가졌다.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이번 전시에는 김혜민 이혜원 이임재 서혜진 호종현 유정현 송자민 김민지 권지은 예상희 등 젊은 불화 작가들이 모여 불화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선언했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Pink Buddha)** 역시 젊은 불화작가들의 모임으로 5월 15일 '핑크 붓다, 꿈을 붓다' 전을 서울대 환우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병원의 환우는 물론 일반인들과 함께 진행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한다. 참가자들이 핑크컬러 (pink color) 계열의 종이에 소원을 직접 적은 '드림페이퍼(Dream Paper)' 를 작성하면 이를 모아 한 점 등(燈) 작품으로 제작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18일까지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희상 스님의 설치작품 전시회 **'낡은 고무신전(展)'** 을 열고 있다.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의 여정을 상징하는 고무신에서 자라난 무성한 새싹들을 통해 각자 수행자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운문사승가대학 학인들이 신던 고무신 340여짝 동원됐다.

중국 청해 라마불교예술전은 5월 18일 주한중국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라마불교예술의 꽃이라 불리는 탱화전과 함께 정교한 조각전, 화려한 자수공예전과 종교법기전으로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청해성박물관 소장품과 함께 예술명인들의 작품을 엄선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당일 탱화제작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전시=부디스토리 '가득찬 비움'

공연=보리수 아래 '당신이…'

영화= '붓다-싯다르타…'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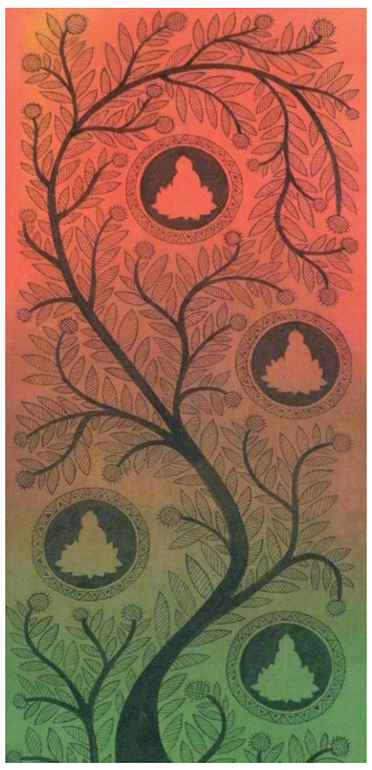
공연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는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당신이 희망이요, 행복입니다' 공연을 펼쳤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연주, 시낭송, 대금 연주, 마임으로 읽는 시, 난타 공연 등이 이어졌다.


5월 16일 개봉하는 '붓다-싯다르타 왕자의 모험'

특히, 이 공연은 장애인 불자들이 자작시를 낭송하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무대로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통도사 작음 음악회는 5월 17일~19일까지 통도사 박물관 앞에서 열린다. 전통춤 대중가수 공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화 〈붓다〉를 원작으로 하는 만화영화도 개봉한다. 모리시타 코조 감독이 연출한 **'붓다-싯다르타 왕자의 모험'** 이 5월 16일 전국 동시 개봉한다. 일본 만화의 거장 원작자 데즈카 오사무(1928~1989)는 말년에 불교에 심취 10여 년 만에 〈붓다〉를 완성했다. 지난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연재된 만화 〈붓다〉는 일본 내에서 총 24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전설적인 명작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부디스토리 서혜진의 'sprout'

이 원작을 스크린으로 옮긴 이번 영화는 총 3부작으로 제작될 극장판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붓다의 탄생부터 출가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러닝타임은 111분.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다채'

SBS=다큐 '황혼 산문에 들다'

KBS=인간극장 '세 스님과…'

BTN= '원융무애의…철웅대선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방극장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SBS 다큐 '황혼, 산문(山門)에 들다' 부터 KBS 인간극장 '세 스님과 홍인이, 그후' 까지 봉축 특집들을 모아본다.

'황혼, 산문(山門)에 들다' (SBS)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월정사를 찾은 스물아홉 행자들의 7일을 따라간다. 55세 이상의 참가자들은 쉽사리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다. 그들은 발우공양-삼보일배-108배 등 7일간의 단기출가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 잃었던 '참 나' 를 진정 찾을 수 있는 것을까. 방송은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이밖에도 SBS는 5월 13일 힐링캠프 게스트로 정목 스님을 초대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원융무애의 사표, 영담당 철웅대선사' (BTN)는 스스로를 성전암에 가두고 20년 용맹정진을 한 시대의 선승 철웅대선사의 삶을 따라간다. 방송은 5월13일 8시 30분이다.

'간화선, 세계의 등불이 되다' (BTN)는 조계종 13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의 삶과 수행을 들여다본다. 방송은 5월15일 오후 4시 전파를 탄다.


SBS 다큐 '황혼 산문에 들다'의 한 장면.

다큐 인간극장 '세 스님과 홍인이, 그후' (KBS)는 5월 13일~17일 7시 50분에 방영된다. 세 비구니 스님과 다문화 가정 홍인이네가 함께 살아가는 도림사를 배경으로 한 '세 스님과 홍인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밖에도 KBS는 특집다큐 '다르마' 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를 재방송하며 명화극장으로는 '티벳에서의 7년' 을 방영한다.

특집다큐 '혜담 스님의 고려화불' (BBSTV)은 고려불화의 맥을 잇는 혜담 스님의 삶을 따라간다. 방송은 5월 17일 12시.

국악방송은 배우 강부자가 내레이션을 맡은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부모은중경, 어버이 살아 실제…' 를 준비했다. 역사상 가장 효심이 깊었다는 정조가 창건한 용주사, 그곳을 찾아가 정조가 하사한 〈부모은중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방송은 5월 17일 11시.

EBS는 특집영화로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 를 방영한다. 방송은 5월 17일 밤 11시 15분. **정혜숙 기자**

로더월드 www.loader.co.kr

사찰 불사의 최고 도우미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가능

부처님 오신날

산악 전용 다목적 차량 어게이트 (뜻 : 일개미)

사찰의 모든 불사는 어게이트에 맡겨주세요. 제설, 분무, 과수재배, 운송, 비료살포, 방제, 트레일러 기능 등





어게이트 작업 범위
- 분무기(물주기, 나무 / 과실수 방제)
- 제설 블레이드 (평지 및 산악지형 눈치우기)
- 염화칼슘 / 비료 살포기
- 리프트(적재함 상하동작 최대 180~200㎝) 연등작업 등 상단작업 가능
- 에어 블로워(적설량 0~15㎝ 제설가능) 특허출원중
- 트레일러 운반 작업기(600㎏ 적재) 기본적재함(500㎏)
- 덤프 기능

어게이트의 특징
- KOHLER(콜러) AEGIS EFI 가솔린엔진
- 얀마 디젤엔진
- H일체형 프레임
- 8"서스펜션
- 변속레버
- 방향지시등
- 3" 초강력 스틸 프레임
- 전방 디퍼런스
- 라디에에터
- 후방 디퍼런스
- 유압브레이크
- 4WD 스위치

EVENT!!
특전 : 선착순 50대 특별할인판매



- 본 어게이트는 국방부 납품 제품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 서울우유 B/S 지정업체
  · 미국 완제품 수입 품질인증 제품
  · 국내 최초 수입품 한국 안정검정 제품
  · 각 지역 서비스 지정점 운용
  · 본사 순회점검 운용 시스템

어게이트 사양 : 길이 3,022㎜ | 폭 1,613㎜ | 높이 1,820㎜

로더월드 www.loader.co.kr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사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073(소정리 19-5) | 대표전화 031)637-7020 | 팩스 031)367-7030
서비스공장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512번길 233-10(도봉리 546-1)


삼광사의 자비등불로 지혜와 감로가 충만하소서!
CNN 선정, 2012년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삼광사 연등축제 5월 5~17일
봉축전야점등대법회 〈부산시립청소년창단특별초청공연 오후 8시〉 5월 16일 오후 6시 30분
봉축기념대법요식 5월 17일 오전 11시
제2회 부산의 아름다운 3명소 전국사진 공모전 5월 1~19일
정기법회 : 매월 1 · 2일 / 관음특별기도 : 매월 3주 일~토요일
• 주 지 김 무 원 스님
• 총 무 박 도 선 스님
• 교 무 손 형 선 스님
• 재 무 김 도 진 스님
• 노 전 추 정 명 스님
(자비 나눔 힐링 사찰)
大韓佛敎 天台宗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금단로 124(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불광산 장 안 사
대웅전 국가문화재 보물 제 1771호
회 주 정 현 . 주 지 정 오 . 총 무 도 은 . 신도회장 이재순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소원성취 만등불사
海東龍宮寺
Home Page : www.yongkungsa.or.kr
전 화 : 051-722-7744, 7755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명성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학장 흥륜
운문사보현율원 주지 일진
대중일동
■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흥 천 사
조실 무산 오현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95번지 Tel. 02)929-6611 Fax. 02)921-1626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15 | 전면광고

무릇 생(生)하는 법(法)은 모두 멸망하는 법(法)이다. 〈율장 대품〉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 락 산 도 선 사



주지 덕우대은

신 도 일 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02)938-1405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보 리 사

주지 덕찬 지명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7-2
전화 031)829-4882

대한불교조동종 부종정 주석사찰

두리봉 행운사

회주 덕룡법공

주지 행천수임

총무 지현

신도일동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전화 010-9189-3346 / 011-781-0218

대한불교조동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자 비 암

주 지 청정
신도회장 김정순
총 무 김경주
관음회장 박춘옥
부 회 장 주숙자
연꽃회장 최진욱
홍보부장 김상곤
사 무 장 정 욱
재 무 박정은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 81-3번
전화 055)241-1176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지사장 청운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867-0776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지 행성 덕성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조동종 문화원장 주석사찰

금 불 사

주 지 행찬

신도일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1리 819-4
TEL 010-6712-8485

대한불교조동종

법 화 선 원

주 지 무량

신도일동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TEL 064)784-3950

대한불교조동종 기획실장 주석사찰

소백산 보림사

(대작불사 중)

주 지 혜산

신도일동

■ 충북 단양군 남천리 335-1
TEL 043)422-5527, 010-3662-5527

정 안 사

주 지 정안

사부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
TEL 063)466-6055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덕사

주 지 행봉 해륜

신 도 일 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55번지 2반
TEL 033)432-7345

대한불교조동종 중앙포교원장 주석사찰

덕 수 사

주 지 해권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60번지
TEL 031)636-2360 / 011-364-6239

대한불교조동종 규정부장 주석사찰

명 불 사

주 지 소담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1-13
TEL 031)975-6172

대한불교조동종 남해종무원장 주석사찰

미 륵 암

주 지 청운

신 도 일 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867-0776

가사, 장삼, 누비,
모시깨끼,
두루막, 승복일체

연화사승복점

조남진 (해월)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2-63번지
011-585-7439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견불사 경묵
부 원 장 관음사 법운
종회의장 현각사 청암
종회부의장 죽림사 원진

총무국장 우포정사 영범
재무국장 용 천 사 광범
교무국장 진 불 사 지광
규정국장 정토선원 진일
교임국장 일 성 사 덕현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TEL 053)622-3702

대한불교천태종

포 항 황 해 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최병렬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FAX 054)277-3644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람 수 참 사

주 지 영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이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 (구.신암동)
TEL 053)945-0007 / 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달마대사가 사천왕 상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5월 11일

모두 꺼지지 않는 '난타의 등' 되기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관불 모습.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어울림한마당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율동발표.



문화마당에 참가한 외국인들.



목탁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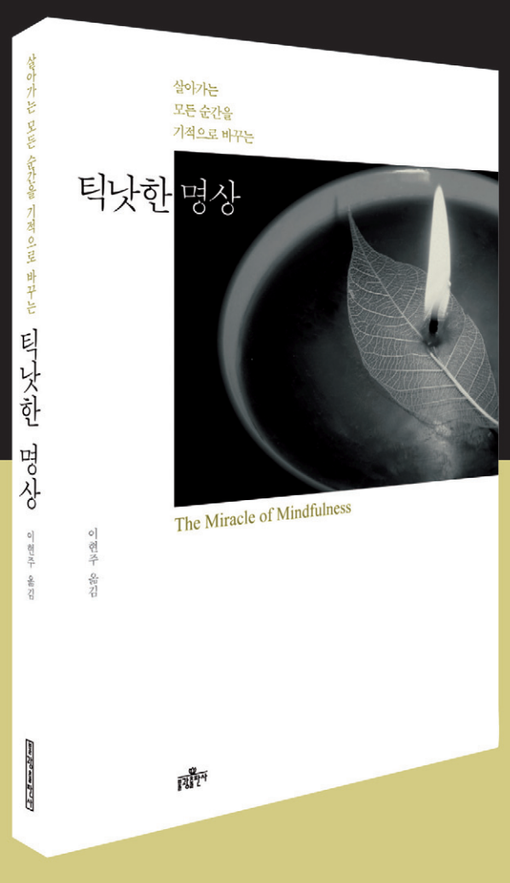


신명나게 율동에 열중하며 축제를 즐기는 불자들.



외국인 불자가 삼귀의를 모시고있다.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틱낫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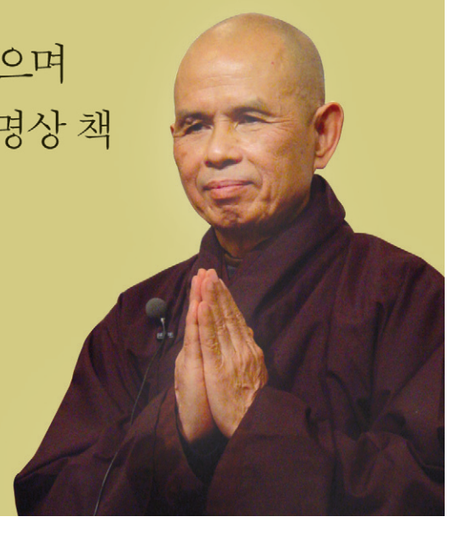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틱낫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제등행렬 · 불교문화마당

5월 11~12일



회향한마당에 참가한 한마음선원 청년회 회원들이 흥겨운 율동으로 부처님오신날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자동차의 불빛 대신 형형색색의 연등과 장엄등 물결이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장엄등과 연등도 그 빛을 더한다.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1일 전국에서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열렸다. 서울 종로에서는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 이어 10만의 연등이 길을 밝힌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였다. 밤이 깊어 기름을 다 태운 등들은 모두 꺼져갔다. 하지만 가난했던 여인 난타가 지극정성으로 밝힌 등만은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난타의 등불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 아득한 그 시절, 꺼지지 않았던 난타의 등불이 있어 오늘도 '빈자'는 등불 하나로 공덕을 쌓는다. 연꽃등, 팔각등, 수박등, 촛불등, 정성으로 만든 연등마다 공덕이 쌓이는 밤이다.

연등행렬에 이어 오후9시30분부터 종각사거리에서 '회향한마당'이 펼쳐졌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회향한마당의 국악 공연 모습.



연등행렬에는 불자들이 손수 만든 형형색색의 연등이 눈길을 끌었다.

작은 등 하나 하나 모여
부처님오시는 길 밝히면
등 밝힌 마음에
공덕 쌓이고 쌓이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한마음선원의 부처님등과 후불탱화등.





연등축제에 참가한 외국인과 불자들이 연등행렬을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대 한 불 교 선 각 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석 정 암**

원로원장 동명 중앙종회의장 **원정** 중앙종회 부의장 **보안** 종책연구실장 **현암**

사 정 원 장 **진하** 교 육 원 장 **혜명** 법계고시원장 **진원** 포 교 원 장 **벽해** 문화예술원장 **목언** 호 법 원 장 **혜광** 국제불교문화원장 **혜룡**
보건복지원장 **혜관** 선 원 장 **도륜** 국제불교포교원장 **혜수** 사회복지원장 **원주** 교정교화원장 **선오** 환 경 원 장 **정각**

◆ 총무원
총 무 처 장 **진목** 기 획 부 장 **행진** 문화예술부장 **선주** 재 무 부 장 **효선** 포 교 부 장 **정진** 사 정 부 장 **법인** 감 사 부 장 **서진**
교정교화부장 **선정** 규 정 부 장 **진오** 사회복지부장 **진각** 보건복지부장 **덕산** 환 경 부 장 **일문** 호 법 부 장 **보월** 종 무 실 장 **법진** 교육부장 **원종**

◆ 교구원장
서울교구원장 **명일** 경기교구원장 **도담** 충남교구원장 **혜현** 충북교구원장 **선보** 대전교구원장 **성관** 전남교구원장 **진철** 전북교구총무국장 **경인**
광주교구원장 **진송** 경남교구원장 **법해** 경북교구원장 **진봉** 부산교구원장 **태송** 포항교구원장 **경법** 세종교구원장 **법천**

◆ 원로원
원 로 원 장 **동명** 원로부원장 **자공** 원 로 위 원 **혜운. 혜원. 법혜. 정각. 선지. 선오. 각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 광주불교문화원 임직원 일동 전국 선각종 신도회 일동 불서편찬위원회 일동

■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445-14번지. 전화 061)433-2233, 3233 / 팩스 061)433-2425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19-10(무등사). 전화 062)515-1420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18 | 전면광고

천 마디의 무익한 말보다 한 마디의 유익한 말이 필요하다. 〈법구경〉

60 year old work

항상 고맙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대광인견

대광 I Love 인견

054)636-2362, 010-6349-2785



PUNG GI VISCOSE RAYON

전통과 고집으로 풍기인견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60여년 대를 이어오며 자체 개발생산으로
영주의 웰빙특산품 풍기인견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 대광아이러브인견 :
경북영주시 풍기읍 성내3리 10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문수선원 · 시민선원 불교대학
대학원 · 축서사합창단 · 바라밀합창단

사부대중일동

* 축서사 극락원(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TEL 054)672-7579

나의 체질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시대

* 내체질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무료로알려줍니다.
64형으로 나누어 체질에 알맞는
음식 · 과일 · 차를 먹어야
병을 만들지않아요~
만나는 것이 인연입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림

■ 상담전화 : 010-9373-3778

영농법인 풍기정품 인삼제조창

풍 삼 정

* 직접 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100mlX60포(한달분)홍삼액기스.
홍삼진액 · 홍삼환 · 홍삼편 · 홍삼청국장
직접재배하는수삼 · 홍삼사과즙 · 칡즙
*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발효시켜만든
홍삼액기스입니다.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 TEL 054)636-2174
휴대폰 016-815-2174

부처님 오신 날
구족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 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전화 041)855-3566~7

대한불교조계종

익산 관 음 사

주지 덕림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이택회
명예회장 이의식
박중근
고 문 김동확
김진수
사무국장 오창록
재 무 김진구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익불련

부처님 오신날

익산불교봉축위원회

위원장 덕 림
(관음사 주지)

사부대중 일동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재로 824-35
TEL 063)222-2555~6

부처님의 가르침 붓끝에 담아

02.733.0730

선아트스페이스 | space 선academy 선그림 studio 선불화공방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종남산 송광사

주지 금산 도영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TEL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TEL 063)243-121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감 사 최학성 구강식
사무국장 강석춘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어린이청소년팀장 정현웅
군포교1팀장 박중근 군포교2팀장 박갑기
군포교3팀장 박운성 교정교화1팀장 김진철
교정교화1팀장 김덕순 염불봉사1팀장 강석춘
염불봉사2팀장 서훈석 사찰문화해설1팀장 권대택
사찰문화해설2팀장 이택회 지역봉사팀장 박헌용
무소유실천팀장 신병균 자원봉사1팀장 최영석
자원봉사2팀장 김기홍 음성포교팀장 송태균
홍 보 팀 장 백덕기 호스피스팀장 박미숙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 걸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 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TEL 063)284-9640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 장 명 우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02)3411-8103~4 www. kbiguni .org

불기 2557(2013)년
우처님 오신날

화엄광장

회장 **성직**
종책연구위원장 **보광**

종책연구 및 불교지식인네트워크 화엄광장
회 원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936호 ■

(주)에스굿

마하연 투 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품 격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품 격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품 격	■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확정출발 5월22일,29일(단 2회) 양곤/바고/시리암 5일 90만원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목 각 단 청 운 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법당장엄 5층 목탑



▣ 크 기 : 높이 120cm,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효도선물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어르신들의
어깨, 목, 허리, 무릎의 만성적인 근육통 완화! (체온요법으로 건강 예방 증진)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참기 어려운 통증, 잠을 자다가도
불쑥 갑자기 끊어지는 듯이 아프게 찾아오는 통증,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고통, 지하철 버스 손잡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픈 팔,
어깨 근육 통증, 이제 걱정마십시오. 본 의료기기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체온요법이란?

오장육부를 알맞은 온도로 기능회복을 시키고, 인체 통합시스템인 면역계와 호르몬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환부)부위는 냉(冷)에서 비롯된 병적 부분을 온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파 광선조사기의 파장은 공명작용으로 피하심층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세포조직이 활성화되어 건강은 물론 심신까지 안정화 시킵니다.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용도

1) 병의원 보조 치료기 (소염 진통 증상완화 – 혈류량 증가)
2) 구급치료기 (복통, 설사, 화상, 신경통 등 각종 통증 완화)
3) 신경안정화기능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관절결림의 감소와 연조직 곰팡이균 감염 등 효율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CQ-BS8 (바이오램프) CQ-31(TDP)

■ 상담 및 구입문의 :
수입총판 휴먼라이프 서울지사 **02)739-5008**
※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에 체험방 '운영중'에 있습니다.

미얀마 불교 이야기

3. 미얀마의 부처님 오신날

탄생·성도·열반일 겹친 연중 최대 축제일

불교가 전해진 모든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이 '부처님 오신날'을 축제로 지낸다. 특히 불교인구가 많은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 등은 부처님오신날을 연중 가장 큰 축제일로 맞이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사월초파일'이라 했다. 음력의 달과 날로 부처님오신날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인도에서도 그리고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력(歷)으로 두 번째 달의 보름이 부처님오신날이다. 양력으로 5월 24일에 해당한다. 미얀마력으로 두 번째 달은 '거손'(Kason)이라 불린다. 그래서 두 번째 달의 이름인 '거손'은 우리의 '사월초파일'처럼 부처님오신날을 의미한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사월초파일'과 미얀마 '거손'처럼 특정한 달로 말한 것은 불교 발상지인 인도의 전통이란 것이다.

인도에서는 원래 부처님오신날을 '웨삭'(Vesak/Vaishaka)이라 불렀다. 이 또한 인도력(歷)의 두 번째 달 이름이다. '웨삭'은 미얀마의 '거손'처럼 현재도 인도와 스리랑카 그리고 다른 동남아 불교국에서 많이 쓰는 부처님오신날을 의미하는 말이다. 웨삭은 양력에 의하면 4월과 5월에 걸쳐있다.

흥미롭게도 부처님의 탄생일은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계절을 구분하는 말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얀마 부처님오신날에는 모두가 긴 행렬을 지어 파고다로 향한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보리수로 향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행렬에는 미얀마 전통음식과 현대음악이 더해져 흥을 돋군다.

각 불교국 부처님 탄생, 달은 같지만 날은 달라

그런데 부처님 탄생일이 모든 불교국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달은 일치하지만 날이 다르다.

오래 전부터 인도불교 전통에서도 부처님 탄생일이 요즘과 같이 약 일주일 차이가 나는 8일과 15일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빠알리어를 경전어로 삼는 상좌불교에서는 탄생일을 15일 보름으로 보는 반면 산스크리트어를 경전어로 삼았던 설일체유부 등은 8일 보름으로 탄생일을 보았다고 한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진 후 이로 인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인도 역법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4월 8일이 아닌 2월 8일로도 부처님오신날을 지냈다.

즉, 인도의 두 번째 달을 그대로 중국력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후에 현재와 같이 4월로 계산은 되었지만 여전히 8일은 그대로이다.

이는 동아시아 불교가 설일체유부의 부처님 탄생일 기산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 인도에서 대승불교는 빠알리어의 상좌부보다는 설일체유부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왜 인도불교에서 부처님의 탄생일이 7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까? 짐작하건데 불교 수행공동체의 성격 상 교조의 탄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오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략 전해 오는 바에 따라 달은 일치할 수 있었지만 날을 정확히 알 수 는 없지 않았나 싶다.

이는 부처님 보다 약 625년이 늦은 예수의 경우 〈성경〉에 없는 탄생일이 신앙 상 필요에 따라 후대에 다른 종교의 태양신 탄생일을 채용한 것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불교의 경우, 초기경전 가운데 부처님 탄생의 달과 날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역 〈장아함경〉은 구체적으로 '사월초파일'로 명시되어 있다.

인도력 두번째 달로 음력 4월 굳어져
연등불 수기일 의미로 봉축 연등 달아
탄생보다 성도 의미 기려 '보리수 의식'
보리수 물주며 불법 번창 기원

미얀마 부처님오신날은 가장 성스러운 날

미얀마에서 부처님오신날은 가장 성스러운 날이요 달이다. 가장 성스러운 날인 이유는 이 날은 3중으로 성스러움이 겹친 날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부처님이 될 보살이 태어난 날이요, 두 번째는 보살이 출가 구도하여 부처님이 된 성도의 날이요, 세 번째는 45년 중생교화한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반열반에 드신 날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날로 맞이한다. 이는 상좌불교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다른 불교권에서는 탄생과 성도 그리고 반열반의 달과 날이 다르다.

미얀마의 독특한 계산법은 부처님오신날의 주간 중 화요일은 부처님 반열반의 날로, 금요일은 탄생일로, 일요일은 반열반의 날로 셈하기도 한다.

부처님오신날 미얀마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념하고 축하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처님의 공덕을 기억하며 절을 찾아 스님들께 계율을 지킬 것을 서원하고 법문을 청해 듣고 보시를 행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에 물을 뿌린다. 또한 이 날에는 사찰 내의 보리수나무 주위에는 일주일 7일에 해당하는 과거 7불을 안치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리수에 물을 뿌린 후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해당하는 부처님께 자신의 나이만큼 물을 뿌린다. 이로써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재앙을 제거되고 부처님의 가호력이 있게 된다고 믿는다.

미얀마에서 두 번째 달의 보름이 부처님오신날이란 전통은 과거불인 연등불(燃燈佛, Dipamkara Buddha)과 관련한 이야기에 바탕한다. 이 날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랜 과거 '수메다(Sumedha)'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을 할 때 연등불이 미래에 그가 성불할 것을 수기(授記)하신 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등불이 수기한 달과 날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반열반에 드신 날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등불이 수기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3대 위대한 행적을 기념하는 의미로 연등(燃燈)을 켜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왜 초파일에 연등을 켜는지 이유를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이 날은 바로 연등불로부터 수기받은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보리수 나무에 물을 주는 미얀마 불자들



보리수가 담긴 물항아리를 들고 행진하는 미얀마 불자들



미얀마 상징인 쉐다곤 파고다에서의 봉축행사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인 '거손'(Kason)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긴 행렬을 지어 파고다로 향한다. 그리고 성스러운 보리수에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시작한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물단지를 머리 위에 이고 줄을 맞춰 보리수로 향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여자들의 긴 머리는 꽃으로 장식하고 단지는 은으로 된 것이나 흙으로 빚은 붉은 빛의 단지로, 여기에 푸른 바나나 잎으로 감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행렬의 선두에는 항상 연주자들이 동반한다. 앞뒤 중간에는 불교기를 들고 함께하는 사람과 금시조나 용왕의 모양으로 그리고 제석천이나 범신 등의 복식으로 꾸민 사람들이 행렬에 참가한다.

여기에 몇 가지 악기가 등장한다. 북과 놋쇠로 만든 두 개의 원반을 한 쌍을 이룬 타악기, 각종의 피리, 대나무로 만든 딱다기 등 전통악기들이다. 이러한 여러 악기들의 연주로 흥겨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다. 젊은 남자들은 사람들이 흥이 돋도록 생동감 있는 춤을 추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율동에 맞춰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보는 사람도 절로 흥겹게 한다. 이러한 축제 분위기의 봉축행렬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얀마 부처님오신날에는 전통 음악으로 흥을 돋구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팝송이 동원되기도 한다.

미얀마 부처님오신날은 성도 중심

미얀마 봉축행사의 중심은 보리수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보리수는 불교의 3대 성수(聖樹) 중 하나다. 나머지 두 개는 탄생과 관련한 무우수(無憂樹), 반열반과 관련한 사라수다. 이 가운데에서도 보리수는 더욱 특별한 존경을 받는다. 보리수는 불교역사에 있어 불상이 신앙의 중심 상징물로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부처님을 상징했다. 특히 깨달음을 상징하기에 상좌불교권에서는 파고다나 사찰 건립 시 반드시 보리수를 심고 조석으로 우리의 탑돌이처럼 돌면서 참배한다.

미얀마에서는 보리수를 마치 부처님처럼 여기며 공양을 올린다. 특히 미얀마에서 5월은 가장 무더운 달로 땅이 매우 건조하기에 사람들은 단지에 물을 담아 보리수에 뿌리며 수분을 공급한다. 보리수의 번창은 바로 불법의 번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봉축행사의 마지막은 보리수에 물 뿌리며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성스러운 날에 함께 봉축하자'는 의미로 '사두(Sadhu:善哉)' 삼창으로 마감한다. 우리 모두는 좋은 일을 잘 마쳤다는 의미이다.

보리수가 가뭄에 말라 죽지 않고 번창하도록 하는 염원은 바로 미얀마 불교인들의 불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신심의 표현이다. 이 전통은 12세기 버강(Bagan)왕조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은 탄생이 중심이 아니라 성도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무우수(無憂樹)가 아닌 보리수가 숭배되고 아기 부처님에 대한 관욕(灌浴)도 주요 행사로 행해지지 않는다. 이는 이 날이 앞서 말한 대로 탄생일과 성도일 그리고 반열반과 같은 3중으로 겹친 성스러운 날이기에 탄생보다는 성도에 비중을 두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 관욕식은 파고다를 찾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신앙행위이며 또한 우리와 같이 연등을 켜는 '불 축제' 또한 안거가 끝나는 달에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생략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아시아 구법승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불상을 모시고 요란한 음악과 춤으로 거리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은 동아시아로도 전해져 중국의 경우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불상을 모시고 풍악과 독경소리로 땅을 진동하는 거리 행진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사월초파일은 집집마다 연등을 달고 모든 백성들이 부처님에 공양하고 사찰 안에서는 여러 악기가 동원되어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한다. 궁중에서는 왕이 신하들과 봉축의식을 마치고 신하를 거느리고 절로 가서 독경한 후 다시 괘불을 걸고 일반 백성들과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과거나 현재나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 한국 그리고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큰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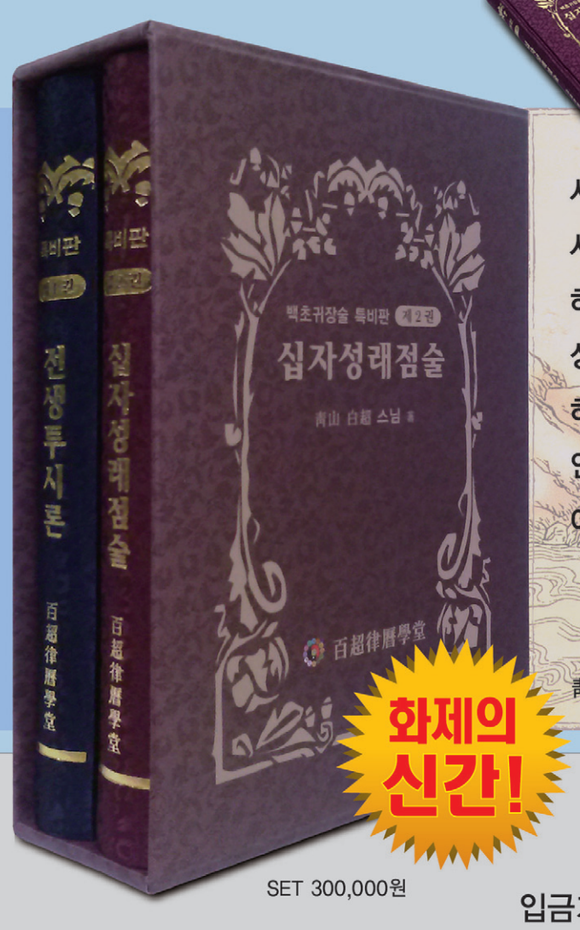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화제의 신간!

SET 300,000원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핏줄 넘어 법연으로 다시 태어났죠”

출가 4형제 스님 인터뷰

부산광명선원 주지 금강 스님
반냐라마 지도법사 붓다빠라 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명본 스님
범어사 사서국장 법성 스님

지난 4월 부산 광명선원 이전 법회에는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해 반냐라마 지도법사 붓다빠라 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명본 스님, 범어사 사서국장 법성 스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선원 이전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이들의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출가한 4형제 스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다. 세속 사람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4형제가 한 번에 출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출가 과정과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보았다.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한 4형제가 연달아 출가해 곳곳에서 전법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왼쪽부터 4남 명본 스님, 장남 금강 스님, 3남 붓다빠라 스님, 막내 법성 스님

섬마을 경남 삼천포에서 평범하게 자란 4형제 스님의 출가 이야기는 담백했다. 총 5형제중 4형제가 스님이 되셨으니 무언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은 역시나 특별함을 꿈꾸는 속인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출가한 삼촌의 모습이 훌륭해 보였고 출가한 형님의 모습에서 불교가 좋고 절집이 살만한 곳 같이 보여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4형제 스님의 공통된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들 4형제의 출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먼저 할머니의 깊은 불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삼촌이 출가를 했고 이후 맏형인 금강 스님이 그 뒤를 이었다. 형님 보러 절에 갔던 셋째 붓다빠라 스님이 그 길로 출가했고, 그리고 넷째 명본 스님, 막내 법성 스님까지 차례로 출가가 이어졌다. 그나마 출가는 안했지만 통도사 축서암 수암 스님 밑에서 3년을 수학한 둘째는 그의 아들이 현재 출가해 승가대학에서 열심히 수학 중이니 다섯 형제 모두 출가의 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

출가한 4형제 중 첫째 금강 스님은 1967년 석암 스님이 주석중인 부산 선암사로 출가했다. “어린 눈에 스님이 된 삼촌이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농사 짓고, 배나 탔으면 했지만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배타고 부산 선암사로 갔습니다. 삼촌 스님 밑으로 가면 어머니가 찾아오실까 해서 낯선 곳을 찾아 갔는데 그곳이 선암사였습니다”

금강 스님은 20여 년 전 부산 광명선원을 개원한 이후 김해 대법륜사를 창건해 불교대학과 하루 광명진언, 만 번 10년 수행 결사를 펼치며 부산과 김해지역 도심포교의 이정표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출가 후 군대 신체검사 하러 고향에 가니 친구들이 ‘어쩌다 중이 됐노? 아깝다’며 저를 측은하게 보더군요.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흘러 50대에 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스님 절에 처사 자리 하나 없습니까’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생을 알고 나면 수행자만큼 영광스럽고 좋은 길은 없을 것입니다”

금강 스님은 출가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출가한 것이 그저 자랑스럽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스님들을 동생으로 두었냐는 것이죠. 감격해서 공양을 대접하는 분도 있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셋째 붓따빠라 스님은 큰 형님인 금강 스님이 반냐라마의 창건주라고 말한다. 결국 금강 스님을 통해 전법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도사로 출가한 붓다빠라 스님의 법명은 본원이다. 통도사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맏형 금강 스님 출가 영향 받아
4형제 연달아 수행자 길 걸어
각 수행처에서 포교 활동 전념
인도 무료의과대 설립 공동 원력

받고 한국 선방도 다녔고 동국대에서 2년간 강의도 했다. 그러던 중 1996년부터 인도 부다가야 선원과 미얀마 마하시 선원에서 10여년의 수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스님은 사띠 수행법을 펼치고 있는 반냐라마의 지도법사로 근본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붓다빠라 스님은 수행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전법 원력도 크다.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마음건강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스님은 현재 모금단체인 ‘맑은향기(www.sati.me)’를 설립해 인도불교 중흥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인 마음과학대학원과 무료의과대학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가를 한 이는 넷째 명본 스님이다. 명본 스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산 보현사 절집에 살았습니다. 큰 형님께서 아버지처럼 대해 주셨고, 큰 형에 이어 셋째 형까지 출가하는 것을 보며 그저 옷갈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출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명본 스님은 통도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 동국대 인도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옥주사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통도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통도사 내 사회교육원을 개설 붓다빠라 스님과 함께 사띠 수행법을 재가불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아들 셋이 출가하는 동안 어머니는 묵묵히 이들의 출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막내인 법성 스님의 출가는 달랐다. “출가하고 6~7년을 어머니께서 마음을 끓이셨죠. 막내인 저까지 출가하는 것이 많이 안타까우셨나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애써 말을 아꼈다.

법성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 석·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삼보사, 백림사에서 포교활동을 했으며 공군군종장교로 10년을 근무했다. 2011년에는 조계사 근처에 법화경연구소 ‘법성사’를 개원해 〈법화경〉을 설파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법화경 사요품-법화경의 네가지 보석〉을 출간했다. 현재는 범어사 사서국장과 한반도평화대회 간사 소임을 맡고 있다. 스님은 “올해는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가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해다. 간사 소임을 맡은 만큼 한국불자들의 가슴에 큰 희망과 환희심을 심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출가 4형제의 공동 원력은 무엇일까? 붓따빠라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부다가야의 무료의과대학 등의 설립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도 부다가야에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해 인도에 불교를 살려내는 동시에 불교의 자비정신과 마음건강운동을 전세계에 펼치고 싶다”고 4형제는 말한다. 스님을 양성하기 위한 인도 마음과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1월에는 수업을 시작할 만큼 진척을 이루었으며 2016년에는 정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무료의과대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그저 절이 좋아 15세에 출가한 중학생 도반 동갑 행자 ‘화제’

화계사 원문·원타 행자

화계사에는 특별한 동갑내기 행자들이 있다. 낮에는 화계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행자생활을 하는 원문·원타 행자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둘은 지난 1년 동안 화계사에서 행자 생활을 해왔고 이번 가을 행자교육을 마치면 사미계를 받는다. 이들의 출가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와 사는 동진출가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출가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물질문명의 편리함 속에 자라온 이들은 절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고 말하는 의젓함까지 보이니 이들이야말로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전생에 스님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난해 2월 출가한 원타 행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집에 모신 작은 불상 앞에서 매일 관음기도를 할만큼 신심이 깊다. 스님이 30년 썼던 목탁을 선물할만큼 원타 행자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스님들 권유로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절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아침 예불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꽉 채워져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절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원문 행자 역시 지난해 4월 수암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출가 1년 전부터는 매일 절에 나갔다. 원문 행자도 스님들의 추천과 부모님 권유로 출가했다.

“이곳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요. 스님들이랑 생활하는 절 생활이 좋습니다. 스스로 고요하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절생활 4~5년은 돼야 느낄 수 있는 장점을 어린 행자들 입에서 들으니 주변 스님들도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감탄사를 내뱉는다.

이들의 일과는 새벽 4시 예불 아침 공양 준비를 시작으로 학교를 다녀와서는 저녁예불 준비하고 학교 숙제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한다. 물론 행자가 배워야 할 〈초발심 자경문〉 등의 기본교육도 필수로 받고 있다. 그리고 올 가을 수계식에 사미계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10년후 이들은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을까? 원타 행자는 불화장을 꿈꾼다. “불화를 그리고 싶어요. 변상도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 많은 이들에게 불화를

원타 불화 그려 불법 쉽게 전달 ‘꿈’
원문 선방 수좌 ‘꿈’…지금도 명상

통해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불화장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그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원문 행자는 선방수좌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모든 일과를 끝내고 혼자서 명상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화두 하나에 몰입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 스럽습니다”

두 행자는 화계사 뜰에서 포즈를 취했다. 둘은 우연하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나이에 절에 들어와 도반이 되었다.

10년 후 서로 다른 모습의 수행자가 되어 있을지 모를 두 행자는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구도자의 길에 들어선 그들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난해 2월과 4월에 15세의 나이로 출가한 화계사 수암 스님의 상좌 원문(왼쪽), 원타 행자.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때를 가려서 말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하여야 한다. 〈증지부경전〉

한국불교태고종
보은산 금곡사
주지 보각스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전화 061)433-3407

대한불교조계종
보승사
주지 영도
신도일동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42-4번지 전화 061)723-3161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대요
심청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관음도량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2번지 전화 061)362-4433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상사
주지 도제

새벽예불	매일 오전5시
보조어록수심결강의	매일 오전 5시 30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2·4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목련합창단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22 | 전면광고

어리석은 자는 행운의 날을 기다리거나 항상 행운을 놓친다. 〈본생담〉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영주포교당
주지 도륜
금강불교대학 · 신도회
거사림회 · 연꽃회
■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411-2
TEL 054)632-3767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기
신도일동
관음유치원운영 · 군포교 · 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TEL 02)701-7488

대한불교조계종
개 운 사
사부대중일동
[부설] 룸비니유치원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83-2번지
TEL 054)552-4300

대한불교조계종
혜 국 사
사부대중일동
[부설] 꿈나무아동센터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
TEL 054)571-0341

대한불교조계종
사불산 대승사.대승선원
주지 철산
사부대중일동
*한국도예.천년의 혼을 굽는 대승요.금우요(옹기.다기)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가람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TEL 054)552-7105

대한불교조계종
성 불 사
주지 해각 지성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상망동 산 67-3
TEL 054)634-7918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벽담 청안
사부대중일동
*천년고찰로보물684호인 국내현존사찰중
유일하게있는윤장대보존.성보박물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내지리 391
TEL 054)655-1011

풍기인견 비단길
이불 · 여성복 · 아동복
남성복 · 수제의류제작판매
인견100% 원단판매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00-1
TEL 054)636-8338 / 010-2528-5995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참나를 깨우는 기도도량'
황학산 황 학 사
주지 선각
■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198
TEL 054)975-3235
FAX 054)975-3253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장정익
교 감 이희명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곳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향 적
중교장 아 용
고교장 양근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운불련 호출택시
회장 성승길
■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 대구·경북재가연대
대표 김주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TEL 053)427-0108 / FAX 053)254-9348

BBS부설
방송자비의 전화
회 장 고경순
임원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8-7
(서봉사 극락암 2층)
TEL 053)471-5631
FAX 053)471-5632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전화 053)252-6411
053)255-0008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주 성직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17번지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청 우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화중생연 육신등공도량 호명산
감로사 · 승가사
우.477-81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우무내길 210
전화 031)584-0117, 02)2292-3418 /FAX 031)585-5747
카페:http://cafe,naver.com/kamrosa.cafe
우.131-833 서울특별시 중랑구 나동용마산길 113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3번. 사가정역 4번
전화 02)2292-3418,2282-3418
이메일 ljk3418@naver.com
"원불 부처님 내손으로 정성껏 조성하기"
한국불교태고종 서울교구 동부종무원장
주지 이지성 합장 H·P 010-3722-3418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5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 국 사
주지 대 오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TEL 02)381-7970 / 전송 02)381-7329
홈페이지 www.heu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 주 대종사 무진장
이사장 이상우
봉축위원장 안동일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잘 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우며 미움이 없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고통 받는 이들에게

(金) 작은 희망 드리고져 (金)
삶에 장애가 많으신 분
병고로 고통 받으시는 분
(전통 선가 비법 치유)
희망전화 043-652-3020
무료전화 070-4403-3021
白雲山下 藥泉寺 住持 : 法山 合掌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
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세음보살님 화신 출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가피의
인연을 만나세요.
(신적사)
010-5327-7793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달마도를 취향에 맞게 그려드리고 반야심경 등 경명주사로 써 드립니다.

반야심경, 달마도에서
氣가 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017-257-6795

처사님을 모십니다

숙식 가능하신 분
(경남 고성 운흥사)
055)835-8656

경북 봉화 청정기도 수행도량 산중계곡물 상구보리. 하화중생

여생을 함께할
비구니 스님 2분을 모십니다
보시금도 드립니다
010-6370-6769
010-6227-6510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파일 기도해 드립니다

041)944-0839

향기도의 묘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 옥천, 태고종 사찰)
010-4453-8453

조그마한 절 입니다.

절 운영 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강동)
011-534-3345

조용한 고찰 산사에 경험 많은 공양주 구함 (공부한 스님 있는곳에 공양주 하세요)

대중 3명 되고 후원 깨끗함.
(경북 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 신문을 20여번 냈으나 전화만 오고 사람은 오지않고 답답하니 또 신문내고 합니다. 산중에는 오지를 아니하니 또 신문 냅니다.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수정사 노인 요양원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 외 어르신 모두 환영
• 최고시설, 최저의 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는 : 월 120만원~ 130만원(조정가능)
033)682-8103 / 010-8879-8400 (야간)

(주)골든 안치단 전문제작회사

미니납골당 건축 전문
▫ 장인들의 노하우로 개발한 명품입니다.
▫ 조립식이 아닌 개별함으로 조립식 함의 단점들을 100% 해결 했습니다.
▫ 황금색 안치단으로 품위와 디자인이 최고입니다.
▫ 가격 품질 시공 관리 타사 제품과 꼭 비교 하십시오.
▫ 화재 지진 무거운 중량에도 안전합니다.
본부장 010-3390-1161 / 031-767-1308

치매, 암 예방 – 건강관리

술, 변비, 지방간, 비만
어려운 문제해결
대전에서는 누구나 와서 주야기도 함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 교 육 원
대전,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송 학 사
• 법 명 : 적 조 (박영숙)
• 주 소 : 경북 김천시 다수동
이로리 515-7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종정 직인 공고

• 단체명 : 대한불교 불승종

상기 종단은
불기 2557년(2013년) 5월 10일부로
새로운 종정 직인을 공고 하오며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상북도 봉하군 석포면 백천길 263번지
054)672-6732

모 십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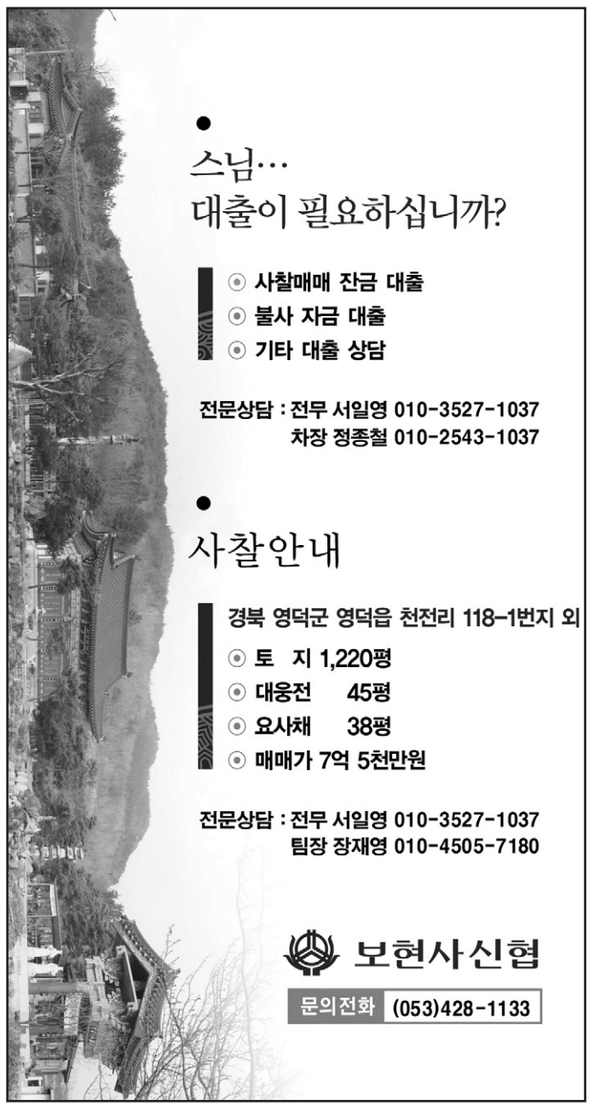
소승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고해사
주지도경입니다. 소승은 禪大韓佛教 曹溪宗
종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에 함께 종단
운영에 동참하실 원로대덕 큰스님과 도심및
초야에 소속없이 홀로계신 모든스님께 밖으
로는 불국정토 구현과 안으로는 친목및 내
부 결속을다져 부처님 법 전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니 많은 지도편달 바라옵고 뜻있는
모든스님 대환영하며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959-1825 , 010-3114-1825
사전에전화로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선대한불교조계종 苦고 解해 寺사
예비모임일: 2013년 양5월 30일 오후 3시
*종단운영및 불교사업 토론
*예비모임에 참석하신 스님위주로 운영됩니다
*종단에 가입하실 스님 접수도 받습니다
(사찰등록증, 임명장, 종단회원증, 운영지침 드립니다)
(무속인, 철학원, 명상수련원, 기공원, 심의후 가능)
*도심속 기도도량 고해사에서 함께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바로 사용하는 秘傳 실전 구 성 학

• 단기7일 완성 • 속성2~3일 완성! (지방숙식가능)
많이 사용되고있으며 표교용으로 적합
교육 후 바로 실전가능! 안되면 될때까지!
공부와 진검승부의장, 실전구성학까페 준비중!
년1~2회 최고권위자 세미나 개최 준비중!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실전에 강합니다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 화엄경 –

사 찰 안 내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120평(목조)
- 부지 : 92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 5천(조정가)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산신각, 약사전
- 요사 50평
- 임대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400
  공양간 說法殿有
- 가액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전원주택 또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대지 : 2,670평
- 진입로 6M이상 확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득
- 경치 수려하고 부지내 연못 있음
-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청명IC인접
- 서울, 분당, 동탄 접근성 (10~20분)용이
- 동탄2기신도시, 보라택지지구 중간 지역
- 가액 협의 (방문 상담 후 결정 희망)

010-5624-08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양 명학시장 2층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전세 6천만원 (월세 가능)
- 법당, 주방, 침실, 삼존불 모심
- 시설비 없음 (시설비 3500만원 이상이나 사정상 임대함)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95-46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 천생산 부근
- 건평 45평, 3층 건물 중 3층 전체 사용
- 방4,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1, 주방2
- 에어컨2, 공양간 넓고 사용편리함
- 도시가스, 법당 앞 옥상별도 50평 사용 조용하고 깨끗함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
- 시설비 2700만원(약간 조절)

017-217-1919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양산. 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1천8백만원 (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9945-20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근교
- 비구니스님에게 좋은 아늑한 사찰
- 법당목조 60㎡, 요사채 124㎡ 대+전 2,500㎡과 방사와 차고등 있음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 가액: 3억원 토지값정도로 정함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3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전화 상담

010-2510-0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포 교 원 안 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90평, 방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비품 5500만원

010-8384-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상담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 방1, 주방1, 수리 깨끗
- 스님 급환으로 인해 급 양도
-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또는 300/30
- 시설비 절충가, 간판 새로 시설

010-6223-8297
010-2499-00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군포시 군포역 앞
- 평수 75평
- 상가건물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최고시설, 즉시법회가능

010-8945-9433

대구도심속 山 포교원

어려운스님 및 누구나 불사되는곳
말이 필요없다. 최고시설,
부처님(진사리)
몸만 오세요, 현 법회 중
시설 보증금 일년세 양도
7천만원 임야, 토지, 부동산일체
전철역 도보 5분거리

010-8943-3999 보해

사 찰 안 내

- 위치: 제주시 오라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평수 340평
- 건물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상담,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 스님 최적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협의 조정가)
  (상권 최고지)

010-9690-8275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시내에서 15~20분거리)
- 대지 170평
- 법당, 요사채, 심야전기, 차실 등
- 모든 시설 완비
- 특히 비구니스님 살기 적합
- 가액 : 전화상담

010-4547-9108

사찰터 안내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명당자리
- 도로완벽
- 토목공사 완벽, 나무 꽃나무 多
- 남향, 등기평수 925평
- 평당 130만원
- 뜻이 있는분 전화주세요
- 스님을 원합니다, 주인직

010-8838-165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 공주 시내 바로 옆
- 평수 72평
- 법당 따로 (약 9평)
- 방3, 거실, 화장실 2개
- 텃밭도 따로 있음
- 가액: 9천만원(가격 조절 가능)

041)841-5772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9천만원

010-7242-0993

암 자 안 내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 법당 25평, 방 小 8, 中1, 大1
- 산신각, 연못, 분수대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429-50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 80평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주차완비

010-6505-0385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도천시
- 대지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
- 뒤에 산, 교통편리
- 전철 온천 인접
- 텃밭, 주차완비
- 가액: 5억

010-6559-0913

농 가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외딴 농가 5동
- 약 건평 50평, 대지 200평
- 답 110평, 도로 계곡 남향
- 가액: 8500만, 주인직

010-8899-8899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장리면 88고속 고령 IC에서 5분
- 뒤에는 산, 남동향, 배산요수
- 평수 970평 (대지 목장용지포함)
- 단독 2층 양옥(28평)
- 가액: 2억 2530평(가액 3억)

010-3549-3738

신축사찰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전세 5천만원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립

010-9647-0723

포교원안내

- 대구 동구 동호동 30평
- 법당, 거실 방3, 주방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 보증금 2백만원 월 13만원
- 시설비 1560백
- 보살님 법사님 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7-297-4097
010-6297-409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내서읍
- 텃밭있음
- 주차장완비, 살기 아주 편함
- 남향집, 대단지 아파트 밀집 산 속 위치
- 몸만 오시면 됨

010-8829-5101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19억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70평
- 요사 : 40평
- 양도 : 6억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선 ~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 (금 , 토, 일 중 방문예약 요)

016 - 573 - 2032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부평 큰시장 안
- 평수 약 95평
- 법당 40평, 방4개, 창고 큼
- 월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삼존불, 소불 각탱화
-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급! 거제도 바닷가
연수원 교육 노인복지시설 펜션 적지

섬들이 보이는 전망좋은 옛절터

- 가액: 평30만원(주변시세 40~60만원이상)
- 건물4동 총3,750평(대지 전 임야 포함)
- 임야의 약50%개간완료(바다방향 낮은위치)
- 사정상 급 안내(2013. 6월까지 이 가격)
- 찾기 힘든 명당터 염가구입 절호의 기회
- 관심분에게 전경사진 이-메일 송부예정

010-9478-1322 (소유주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절 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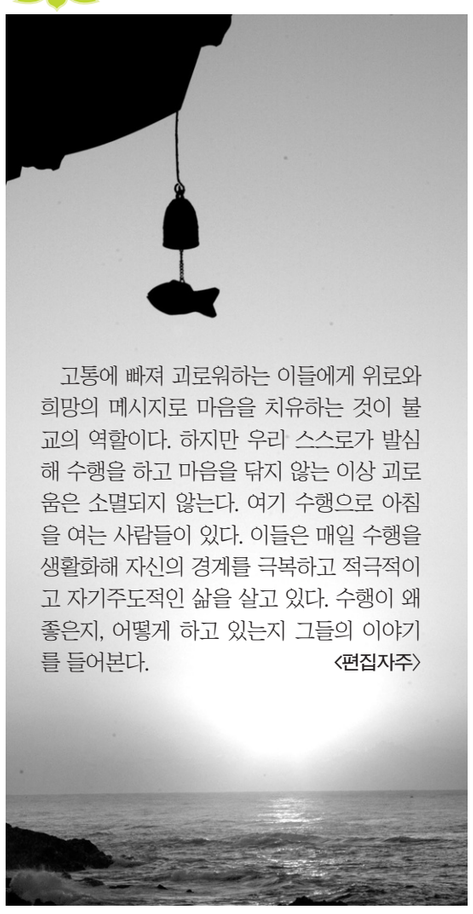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득한 절터로 소문
- 가액: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 방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고통에 빠져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발심해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지 않는 이상 괴로움은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 수행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일 수행을 생활화해 자신의 경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수행이 왜 좋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고통 치유·행복을 깨우는 '삶의 기술'

"통찰명상 · 자애관 수행으로 평정심 찾아"

최훈동 한별병원장



정신과 의사이자 명상수행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훈동(59) 한별병원장은 명상을 정신과 치료에 도입한 생활명상 전문가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깨우는 삶의 기술'을 안내하고 있다.

최훈동 원장은 통찰명상과 자애관 수행을 통해 평정심을 찾는다. 통찰명상은 호흡관찰부터 시작해 자신의 몸과 행동, 마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심신의 평화를 찾는 수행법이다.

그는 매일 오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호흡을 바라보고 자애관 수행을 한다. 자애관 수행은 마음 안에 자신에 대한 이미지(image)나 느낌을 갖고 자신에게 천천히 '내가 평화롭게 되기를, 주변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등 자애의 경구를 되풀이해 우주 모든 존재에 자애를 보내는 수행이다.

최 원장은 매일 수행을 하면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한다.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질구레한 난관이나 역경 등 장애가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힘이 생긴거죠."

대학 졸업 후 서울 구로동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그는 1996년 동료의사들과 함께 김포에 치료공동체를 지향하는 한별정신병원을 열었다. 그러나 이듬해 닥친 외환위기로 병원은 개원 2년 만에 부도위기에 몰렸다. 매월 수 천만원의 적자를 보게 되자, 동료 의사들도 하나 둘 씩 떠났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체험한 최 원장은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됐다.

그러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였다. 최 원장은 2003년 봄, 천안 호두마을에서 미얀마의 우 자나카 사야도가 진행하는 3주간의 위빠사나 집중 수련에 참가해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다.

"2002년까지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수행을 통해 고통과 나를 분리시켜 보니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진 걸 느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깊이 천착해보면 고통은 굉장히 구체적인걸 알게 됩니다. 고통의 실상에 직면해서 의미를 통찰하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후 최 원장은 평정심을 되찾고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요인을 해결했다. 그러자 만성적자였던 병원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느낀 최 원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명상센터 '심경'을 설립해 매주 시민명상교실을 열고 있다.

최훈동 원장은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통이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키우게 된다. 자신의 실패, 실수, 불행에만 집착하느라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염불절' 500만 배…삶의 힘 생겨

박종린 불력회 대표법사



"불자라면 수행은 기본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자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박종린(58, 前동국대 역경위원) 불력회 대표법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일 1080배 이상 염불절 수행을 한다. 3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염불절을 해온 그는 지난 해 500만 배를 회향했다.

박종린 거사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 불자라면 수행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염불절 수행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예불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절을 한다. 그가 하는 '염불절'은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독송하며 다시 귀를 통해 부처님 명호를 들어 일체존재의 근본인 부처님게 귀의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수행법이다.

박종린 거사는 "염불수행은 염불에 주력하는 수행인데,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절 수행은 절을 하다보면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절만 하게 된다. 염불절 수행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거사는 인터넷 동호회 불력회(cafe.daum.net/buddhapower)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초심자들을 위해 수행상담을 하고, 매주 토요일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에 있는 아미타사에서 철야정진도 하고 있다.

박 거사는 염불절 수행을 통해 삶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절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어느새 습관처럼 몸에 뱁니다. 그러면 삶의 정체성이 확립돼 외부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진정한 나의 삶을 사는 힘이 생깁니다."

염불절수행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박 거사는 "일상 속에서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 세상이 불심으로 가득해진다"며 "죽는 날까지 수행은 계속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마음 경계 끄달림 줄어들어"

김승석 제주불교 편집인



"아침의 고요함을 떠올리면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 경계에 끄달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내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우리네 삶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제주불교신문 편집인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승석 변호사(64). 김승석 변호사는 제주시 아라동에 출리산방(出離山房)이란 개인 수행도량을 짓고 7년간 아침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고 있는 독실한 불자다.

"그 전부터 불교공부는 많이 했지만 2007년 초기불교에 관심이 생기며 위빠사나 수행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청정도론 등 경전을 공부하며 '이론만 알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스승 없이 오직 빨리 경전과 논서에 기반해 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맛지마 니까야에 있는 〈염심경〉에 의거해 명상을 진행합니다. 몸의 각 기관의 변화 상태를 살피는 사띠명상을 시작으로 오감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의식을 살펴보는 명상을 진행합니다. 마무리로는 〈숫다니파타〉의 〈자애경〉에 기반해 성냄을 가라앉히고 자기 밖의 모든 유정체에 자애심을 일으키는 자애명상을 진행합니다."

김 변호사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든다. 기상 시간은 새벽 3시. 사찰에서 스님들의 일과와 비슷하다. 김 변호사는 기상 후 2시간 이상 호흡관을 시작으로 명상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아침 명상이 언론인 활동 등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인 간화선은 화두참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무작정 선방에 앉을 것이 아니라 호흡명상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며 "초심자는 자기 몸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 차분이 과정을 밟아 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이 몸에 익으려면 반복이 중요합니다. 불자 여러분, 꼭 아침 명상하세요." 노덕현 기자

일상을 깨우는 죽비 '108배'

심영 영화기획사 쉘위토크 대표



"108배는 제 일상을 깨우는 죽비와도 같죠. 이제 아침에 108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수와 양치를 안 하는 것과 같아요."

영화기획사 쉘위토크 심영(44) 대표의 아침은 108배-명상-경전독송으로 시작된다. 그녀가 108배를 시작한 것은 지난 해 2월이었다.

회사를 이끌면서 인간관계에서 심한 상처를 입었던 그녀는 마음의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을 다녀왔고 정토회 보수 법사님의 권유로 절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첫 기도는 하루 2천배 6일이라는 엄청나게 센 기도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일 108배로 아침을 열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108배의 매력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108배 기도에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 챙긴다는 이유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는 본의 아니게 훼방(?)까지 놓았어요. 108배 기도하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의 일보다는 제 일에만 집중합니다. 현재를 직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108배입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108배하며 나를 내려놓으니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절 기도로 참회하며 나를 돌아보니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제 할 말만하고 살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더라고요. 이제 남편, 친정 엄마, 자녀모두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 대표는 108배 수행으로 가정의 '화목'을 사회생활의 '원만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다가오는 8월 심 대표는 남편의 일 때문에 프랑스 파리로 떠난다. 3년 동안 파리 생활을 해야 하는 그녀는 그곳에서도 108배를 이어갈 것이라고. 심 대표는 "파리에서도 108배의 위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정혜숙 기자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항상 자기자신을 돌보아 법에 맞는지 살펴보라. 〈단마파다〉

무등산 두암동
꽃피움절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공
주지 목언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2동 7번지
전화 062)263-0108

한국불교태고종
법륜사
주지 월인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06-5
전화 062)655-7444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회주 도법
주지 원묵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572-1번지
전화 062)263-4460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 명신
〈부설〉
연화유치원 ·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2〉 '나'에서 벗어나는 자각

존 카밧진 (의학부 교수 · 미국)

'생각의 강물'에 휩쓸려 살겠습니까



마음을 모르면 '생각'이 삶을 점령
생각을 '물위에 글씨 쓰는 것'에 비유
'자각'으로 생각 건드리면 사라져
'나' 단어 많이 사용하면 '성찰 신호'

아름다운 규율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것은, 삶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힘에 직면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일정한 동기와 목적성이 요구된다. 이 힘은 일부는 우리 내부에서, 또 일부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우리가 애초에 지녔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각(알아차림)은 분산되고 만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규율이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도 그것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각(알아차림)의 널찍한 공간과 명료성을 가져가려는 의지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없이 이곳저곳으로 끌려간다고 느낄 때조차 말이다.

진정한 도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순간의 진정한 행복, 한순간의 평정심, 한순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만약 우리가 산만하지 않음과 행위를 하지 않음을 불가능한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의 낡은 습관과 기꺼이 이런 방식으로 마주한다면, 그리고 잠시나마 이 과정에 부드러움과 친절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지금 순간의 그 무엇도 변화시키거나 고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평화롭게 함께하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의 이러한 태도는 부드럽고 치유적인 규율일 뿐만 아니라 지극한 사랑의 행위, 온전한 정신의 행위이다.

기본 설정 값 조정

달리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직접 확인해보자. 아마 우리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은 수없이 다양한 모습을 띠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우리가 명상하기 위해 자리에 앉거나 누울 때 맨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과 숙고, 환상과 계획, 기대와 걱정, 좋음과 싫음, 기억과 망각, 평가와 대응,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등 우리 마음의 활동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포츠 중계의 해설과 비슷하다. 텔레비전에는 실제로 진행되는 시합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해설가의 해설이 끝없이 이어진다. 공식적인 명상을 시작할 때 자신의 명상에 대해 우리가 '해설'을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어떤 때는 이러한 해설로 마음의 공간이 가득 찰 때도 있다. 그러나 이 해설은 명상이라고 할 수 없다. 중계 해설이 시합 자체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스포츠 중계를 시청할 때 가끔은 텔레비전 음량을 소거하면 실제로 시합을 더 잘 관람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와 아주 다른,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람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해설자의 생각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직접적인 일인칭 경험으로 시합을 받아들인다. 명상의 경우도 다만 중계방송의 해설을 해설자가 아닌 당신의 마음이 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이와 마찬가지다. 이때 당신은 현재 순간의 직접 체험을 그에 대해 지어낸 이차적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당신의 생각은 명상이란 것이 얼마나 따분한지 당신에게 속삭일지도 모른다. 또 엄청난 불편함과 긴장, 지루함과 견디기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러한 무위적 방법이 도대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구시렁거릴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이라는 강물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온통 점령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느낌과 행동, 관심을 갖는 모든 일이 생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종종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런 생각의 강물에 휩쓸려 살고 있다.

자각: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우리는 줄곧 '적절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그렇지 않은가? 학교란 것은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 특히 정확하고 날카로우며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키우고 다듬고 심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고 다듬고 심화시켜야 하는 능력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각(알아차림)이라는 능력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각각(알아차림)은 사고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하며 또 쓸모가 있다. 아무리 심오한 사고라도 자각(알아차림)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각(알아차림)은 확실히 사고보다 더 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비유

명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종종 제멋대로이며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생각들과 가끔은 고양되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단순히 억압하라고 하지 않는다. 만일 생각을 억누르려 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이러한 시도는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게 하려는 시도처럼 현명하지 못한, 순전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는 깊은 바다처럼 그 특성이 깊고 방대하고 본질적으로 고요하다.

예컨대 우리의 생각을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방울에 비유할 수 있다. 방울은 주전자 바닥에 맺혀 있다가 표면으로 떠오른 뒤 막힘없이 대기 속으로 사라진다.

티베트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에 비유한다. 본질적으로 비어있고, 실체가 없으며 무상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든다. 또 다른 적절한 비유에는 하늘에 글씨 쓰기가 있다. 또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것도 멋진 비유이다.

이러한 모든 비유와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스스로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눗방울을 만지면 픽 하고 터지는 것처럼 자각(알아차림)으로 생각을 '건드리면' 생각이 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각을 무한하고 영원한 자각(알아차림)이라는 장(場)에서 일어난 뒤 머물다 사라지는 '사건'으로 단순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생각이란 것이 '자기 해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각을 이런 식으로 자각(알아차림) 속에 담을 때 우리는 생각이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힘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생각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앎 속에서 그리고 생각을 자각(알아차림)의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제 생각은 우리가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다루어볼 만한 무엇이 된다. 이 모든 작업과 해방을 수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각(알아차림)'이다.

'나' '나를' '내 것'에 대한 집착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아니면 끔찍한 생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되찾는 커다란 진일보이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흐름에 빠져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있을 때, 특히 그 생각들과 자기를 동일시할 때, 다시 말해 "이것은 나야." 혹은 "이것은 내가 아냐."라고 자신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 물건을 곧 '나', '나의', '내 것' 같은 인칭대명사와 동일시하는 궁극적인 집착이 생겨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동일시의 습관을 자기화(selfing)라고 부른다. 자기화는 자기를 우주의 절대적 중심에 놓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자기화에 빠져 사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자기화를 바로잡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이 강력한 마음의 습관을 자각(알아차림) 속에 단순히 품어 안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45년 동안 설법을 편 붓다는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붓다의 45년 동안의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 '나를',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집착이란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집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힘을 얻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자기화 습관이란 것이 우리 마음의 기본 설정값, 다시 말해 우리가 관성적인 행위양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끝없이 회귀해버리게 되는 마음의 모드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경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선택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 '나를', '내 것'을 붙들고 사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함몰적인지를 매 순간 인식할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그렇게 할 때라고 그런 자신을 알아차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 동일시와 자기중심성, 자기화라는 습관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전혀 자각(알아차림)하지도 못한 채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생각 습관이 실은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왜곡하며 착각과 망상을 조장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속박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나' '나를' '내 것'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 한다면 이것은 이런 말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가만히 성찰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주의 기울임 그 자체가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감각이나 소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약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고 당연시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자각(알아차림)이다. 자각(알아차림)은 생각의 도움이 없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으며, 마음이라는 텅 빈 공간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느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각(알아차림) 자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자각(알아차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각(알아차림)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 완전한 것이었으며, 우리 경험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품어 안고 아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야말로 자각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자각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진실과 것짓을 바르게 아는 자 그는 지혜로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 신흥사
주지 법일
완도 행복한 생협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아카데미
■ 신흥사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1)554-2634
신흥사 www.sinheungsa.net
완도행복한생협 www.wondocoop.com

세계무형문화 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원사
회주 조석봉
주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무 조고담
교무 전지암
재무 김미산
사회 박처명
기획 이동훈
봉원사 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주 대궁 종상
주지 성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27 | 전면광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보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진정 더 위대하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산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950번지
TEL 051)754-2210
유치원 754-6120/수련관 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홍
주 지 지원
신도회장 이금강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7848/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오사
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TEL 051)542-7949, 545-7949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사부대중일동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사단법인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 294-9300~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회 주 혜 총
주 지 무 성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TEL 051)271-2774

백화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8번지
TEL 051)973-5224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부산분원 보림사
주지 청 봉
신도일동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269-2
TEL 051)721-9500

관음도량
신어산 해 경 사
주지 지 현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산 41-1
TEL 055)336-5193, 327-7926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주지대행 상 천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종무소 051)467-3316
팩 스 051)467-3338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정현 정만
백대일심 심금윤월
감 사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 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57
TEL 051)400-2303 FAX 403-9810

새로운 천년 길상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법화경반 · 우담바라합창단
성현덕회
주지 만제 혜수
사 부 대 중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511-10번지 대명빌딩 2층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사부대중 일동
www.hanmaum.org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TEL 051)403-7077 FAX 403-1077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사·불교대학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상님을 부처님 품 안에 영구히 모시는
정토사 극락원 (납골당)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TEL 052)258-9944 / 극락원 212-7000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문수용, 이경순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홍보이사 혜산, 최수황 자살예방이사 하림, 백영선
이사일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3층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백명숙 이경순 천양자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정정자 이미춘 양외금
총 무 박정림 김명자
재 무 서점례 손하영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4층)
TEL 051)817-3166, 3168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 지 능후 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 ://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엘리트 정법도량 불교대학 기도성취
천도재 힐링피트니스 관선무예
부산 · 한국 불자 보금자리
범어사직할 포교원 해운대 반야원
주지 광원 미쿡
지장 상조회 · 관음회 일동
범어사 동진출가 · 미국시민권 한의사
매일 주지스님 사시기도후 저녁까지 친견.
인생 상담과 고급차와 커피제공
(더 나은 삶과 행복-Better life and Happiness)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7(영진파스타 8층)
TEL: 051)701-5655, FAX:051)701-5654

대한불교조계종
앵림산 안 적 사
주지 법안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692
TEL 051)543-9408

문화포교도량
동 림 사
주 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102-4
TEL 051)508-2917 / H · P 010-6609-8011

사)부산파라미타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원허, 진효
사무총장 지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김정락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무국장 최낙현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회원일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
보리원 랑림학당
주지 혜 능
사부대중 합장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22-4 국제빌딩 6층
TEL 052)227-4080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지원장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혜능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동 32-2
TEL (051)334-3009

부산연꽃모임
회장 이대원성
총무 김보광명
김무심화
회원일동

밀양 천황산
얼음골 천 황 사
-보물 제1213호 석불좌상-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TEL 055)356-2540

지역사회의 든든한 디딤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일동
■ 경남 거제시 양정1길 45
TEL055)636-0303 전송636-8992
www.gjcw.or.kr
facebook.com/geojeswc

아미타성지 부처님꽃이 핀 도량
운봉산 백 운 사
주지 마나
신도회장 김시근
성불회장 신부기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산136
TEL 051)542-4630

(사) 대한불교해인종 총무원
낙 은 사
종 정 만허혜지
종정사서실장 법 인
주 지 자 륜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46-12
TEL 051)322-5918. 312-3777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28 | 전면광고

삶은 마음이 만드는 것으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을 만든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 (FAX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송 향 사
[부설] 통일신라시대
미륵부처님
운암사
주지 정 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031-1
TEL 053)312-5689/kbn5689@yahoo.co.kr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 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원 범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 2리 865
TEL 053)768-9920

다함께 만드는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다 복 사**
회주 현 근
주지 선 공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6길
(대경 3동 2563-18)
TEL 053)623-3736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혜 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 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지 지 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천년기도도량 **덕 사**
주지 연 남
신도회 일동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번지
TEL 054)372764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포교당
주지 효 신
대구·경북지역전법단
(경찰·교정포교)
「매월 셋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 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신녕포교당 法蓮寺
주지 능 광
(청소년문화복지센터)
■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769
TEL 054)332-0271 335-0278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마음청정·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1-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사리사
주지 덕 운
신도일동
부설
사리마을웰빙센터 / 산야초효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116-1
TEL 053)986-4240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가야산 심원사
주지 응 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1
종무소 : 054)931-6886
팩 스 : 054)932-3838
www.simwonsa.kr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영 혜 사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석대혜
신도일동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한글법요집」
- 저자 석대혜 -
카페 : 선산 원각사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 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B29 | 전면광고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숫타니파타〉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옥천사
회 주 법 조
주 지 혜 주
신도회장 최중훈
■ 경북 포항시 북구 방장산길5(득량동)
TEL 054)272-4633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지 보 일
신 도 일 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TEL 054)285-0308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허 주
신도회장 권정행성
합창단장 도법화심
봉사단장 권성덕월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 명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 도 일 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수유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수유치원] TEL 053)753-2563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부설] 아헹가 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대구본원 053)981-3553
대구범어동센터 053)753-3550
서울센터 02)599-8150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 지 능 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 지 정 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대한불교원효종
고 왕 사
주 지 상 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2리 367-3
TEL 054)262-0991

대한불교 구화종 총무원
총본산 구화사
총무원장 석 혜성
부 원 장 석 현진
문화원장 석 도우
총무부장 석 지법
재무국장 석 지함
대 중 일 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 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 지 보 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원효종
관음기도 참회도량
대 각 사
주 지 무염 대각
관음회 회원일동
■ 울산시 중구 반구1동 325-3번지
TEL 052)296-0908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 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불교자원봉사단
주 지 정 법
(자원봉사단 모집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885-4
TEL 053)767-8866

불 종 사
주 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대한불교정화조계종
석 송 사
주 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성 불 사
(구 · 법성사)
주 지 법 성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 9(팔달동)
TEL 053)322-0567
H·P 010-6937-0567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 지 지 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하늘이 내려준 복을 누리는 도량!
월산 안향사
주 지 조 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89번지
TEL 054)232-9988 / FAX 054)261-8000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578
TEL 053)782-0120

대한불교원효종
영 금 사
주 지 상 묵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02-7
H · P 010-4794-3508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
용 궁 사
총무원장 원 각
주 지
각 지역에서 함께 하실
종무원장을 모십니다.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1283번지
TEL 053)358-1029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외
회원일동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한국불교태고종
자 은 사
주 지 도 철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438-2
TEL 054)933-6705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정 수 사
주 지 만 성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58-3
TEL 053)853-0772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탄생불'
주 지 지 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원길 95
TEL 054)336-0052
FAX 054)336-0053
H·P 010-5153-0052

세존의 멸도를 차마 볼 수 없어 사리불은 먼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0)

사리불의 열반〈상〉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4신족(神足)을 얻으면 1겁 동안 더 살 수 있다 여래는 이제 얼마나 더 살면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여러 번 물으셨는데도 아난이 악마에게 홀려 대답하지 않자 부처님께서는 다시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고요한 데로 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아라."

아난이 일어나 숲으로 갔다.

그때에 악마 파순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세상에 게시면서 교화를 펼치시어 중생들을 두루 제도하여 생사를 벗어난 이들의 수가 항하의 모래만큼이나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늙으셨다고 하니 그만 열반에 드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악마에게 말했다.

"석 달 후에 열반할 것이다."

파순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아난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 커다란 나무한그루가 넓게 허공을 덮고 있어서 온갖 싹들이 다 그 나무를 의지하며 은혜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그 나무에 불어와 거세게 때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무는 역사(力士)가 살고 있는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모든 중생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난이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 두려워서 도무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기에 꿈꾼 것을 생각해 보았다.

'장차 세존께서 열반하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난은 바로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다.

"제가 아까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 세존께서 열반하려 하심은 아니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말 그대로이다. 나는 이제 석 달 후면 열반할 것이다. 내가 아까 너에게 묻지 않았더냐? 여러 번 물었는데도 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악마 파순이 내게 열반할 것을 권하기에 내 허락했다."

아난은 비통해 하며 어쩔 줄 몰랐고, 그 제자들은 서로에게 전하여 저마다 슬퍼하면서 부처님께로 왔다.

"누군들 항상 살아있겠느냐? 나는 저희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다하였고, 해야 할 말은 다 말하였다.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사리불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는 말을 듣고 탄식했다.

"저는 세존께서 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보다 앞서 열반하려 하오니, 오직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

사리불이 여러 번 간청하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마땅히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성현들이 다 이렇듯 고요히 사라졌다."

사리불은 이내 의복을 정돈하여 떠나갔다. 사미 균제를 데리고 본생성에 이르자 균제에게 명했다.

"너는 지금 성에 들어가 마을마다 고하거라. 국왕과 대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 온 도반들에게 이별을 하자고 전하거라."

균제는 널리 알렸다.

"화상 사리불께서 이제 열반에 들려 하십니다. 만나고 싶은 이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가도록 하십시오."

아사세왕과 신하들이 모두 달려갔다. 사리불은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초과를 얻은 이도 있었고, 3과를 얻은 이가 있었으며 혹은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이도 있었으며, 또 마음에 불도를 구하기를 맹세하는 이도 있었다. 사리불은 다음날 새벽녘에 몸을 정돈하고 초선에 들었다. 초선으로부터 일어나서는 다시 제



삽화 · 강병호

2선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차례대로 멸진정(滅盡定)에 들었고, 멸진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열반했다. 그때 천제석은 많은 하늘 대중과 함께 그곳에 와서 찬탄하고 공양했다. 제석은 또 비수갈마에게 명하여 갖가지 보배를 모아다 높은 수레를 장엄하고서 편편한 넓은 땅으로 보내도록 했다. 또 야차들에게는 해변으로 가서 우두전단(牛頭?檀)을 가져다 크게 장작더미를 쌓아 만들게 했다. 다비가 끝나자 균제는 사리를 수습해 발우 안에 담았다. 그리고 3의(衣)도 거두어 메고 부처님께 이르렀다. 아난이 슬퍼하며 말했다.

"법륜의 상수께서 벌써 열반하셨으니,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지금 비록 멸도하셨지만 5분법신(分法身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추어 가진 다섯 종류의 공덕으로 戒 · 定 · 慧 · 解脫 · 解脫知見)은 멸하지 않았다. 사리불은 과거 세상에서도 역시 내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하여 나보다 앞서 먼저 죽었다."

아난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옛날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이 아난의 마음을 읽고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옛날의 이야기다.

과거의 오랜 옛날, 생각도 할 수 없는 겁 동안에 이 염부제에 한 국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월광왕이었다. 왕에게는 2만의 부인과 하녀, 1만의 대신이 있었다. 첫째부인의 이름은 수마단이었고, 대신의 수장은 마전타였다. 왕에게는 또 5백의 태자가 있었는데, 첫째가 시라발타였다. 왕이 머무르고 있던 성의 이름은 발타기바였는데 그 성의 길이와 너비는 4백 유순이었으며, 둘레는 자그마치 120개의 문이 있었다. 왕은 성 안의 창고를 열어 어렵고 힘든 사부대중에게 많은 곡식과 보화를 보시했다.

염부제의 백성들은 거의 모두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한편, 어느 한 작은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비마사나라고 하는 왕은 월광왕에 대한 아름다운 칭송이 높고 큰 것을 마음에 시샘이 생겨 마음이 늘 편치 않았다.

'월광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수를 써야겠다.'

비마사나왕은 여러 도사를 청하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중한 바라문이 말했다.

"왕께서는 무슨 근심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널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저 월광왕의 명성과 덕망이 멀리까지 뻗어 있어서 모두가 교화를 받았는데, 나만 홀로 비루하게도 이런 아름다운 칭송이 없습니다. 그를 제거하고 싶은데 무슨 방편이 없겠습니까?"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⑳



5월에 드는 생각들

사라진 옛 집을 생각하며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이웃마을은 오래 전부터 재개발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서 늘 시끄러웠다. '재개발'이라는 게 시작하기까지도 그렇고, 시작을 하고나서도 그렇고 모든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튼 얼마 후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그곳엔 예전에 내가 살던 집도 있다. 그 집엔 부처님을 모셨었다. 매일 기도도하고 많은 스님들과 도반들이 모여 법회도 열고 했던 곳이다. 추억이 많은 집이다. 어느 날, 외출하려 나와 보니 드디어 그 집이 철거되고 있었다. 반쯤 헐려나간 집을 바라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심었던 나무들 몇 그루만이 남아 있었다. 옛날 생각들이 떠올랐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이웃들이 하나 둘 떠올랐고, 그들과 웃고 울고 지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며칠 후 그 동네는 내가 살던 집뿐만 아니라 나머지 집들도 모두 철거됐다. 허허 벌판이 되어버린 빈터에 옛날 동네의 풍경이 그려졌다. 김 씨네, 박 씨네, 파란 대문 집, 철 대문 집, 통장 집, 반장 집…. 우린 그렇게 부르며 살았다.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한 사람 맑은 생각이 만 사람 맑게해
시대 변했어도 엄마의 '사랑'은 영원

모두 잘 살고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뭉클 뭉클 했다. 평소 자주 외우던 법성게가 떠 올랐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하나 가운데 모두가 있고,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 모두는 하나로부터다. 한 티끌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낱낱의 티끌마다 우주가 다 들었네. 한없는 긴 시간 한 생각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겁이니.'

한 사람의 맑은 생각이 만 사람을 맑게 하고, 한 사람의 맑지 못한 생각이 만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음이다. '나'라고 하는 '하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텅 빈 옛 동네엔 더 많은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모두'는 '나'에서 시작된다.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이고, 그 '나'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하찮은 것일 수 없음이다. 텅 빈 옛날 동네에 봄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법비도 햇살처럼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내려 주시라고 기원했다.

부모은중경을 쓰다가

붓으로 부모은중경을 썼다. 병풍을 만들 요량으로 썼다. 그 옛날에 부처님의 세세한 그 가르침을 내 손으로 써서 병풍을 만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한 자 한 자 의미를 새기며 정성을 다해 썼다.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 것 만 먹이는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 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 부모의 은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자라는 우리들의 아이들이나 또 젊은 부모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음은 부모님의 조건 없고, 끝없는 은혜이리라. 지금의 엄마들은 진자리 마른자리를 말 할 필요조차 없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고 또 손발이 다 닳도록 기저귀 빠는 일도 없다.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여주는 그런 일도 굳이 필요없다. 지극한 사랑이라면 지금이 더 극성일 것 같다. 그러나 부모 마음을 어찌 저울로 달까. 60을 넘긴 내 젊은 날에만 해도 은중경의 말씀대로 손으로 빨래하고 천기저귀를 말리기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뽀송뽀송한 옷과 같은 기저귀로 손에 물을 넣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은중경을 말 할 때가 되었을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은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고생으로 키우셨다. 밤엔 베틀에 앉아 무명천을 짜고 낮이면 삼시 세끼 새 밥을 지어 어른 모시고 들일이다 밭일이다 눈코 뜰 세 없이 살았다.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그리움 속에 슬픈 사연이 꼬리를 물고 가슴이 저려오지만 정작 그 고생 다 느끼고 그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지만 그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으니, 아! 나의 어머니, 이런 늦은 나이에 용서를 구하다니. 어머니! 참 예뻤던 우리 어머니 지금은 저도 늙었답니다. 그 곳이 어딘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 알아 볼 수 있다면 손잡고 안기어 지난 날 철없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텐데, 그리고 그때 못한 효도도 실컷 하면서. 어머니 ! 어미니!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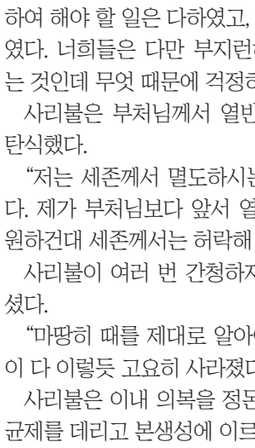
어버이날에

엄마라는 단어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나보다. 내 나이 70이지만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직도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며칠 전 어버이날이 지나갔다. 나는 네 명의 자식을 둔 부모이며 6명의 손주들 둔 할머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내 가슴속엔 나의 엄마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다. 늘 그렇지만 어버이날이면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라고 가슴으로 부르면 이내 눈물이 쏟아진다. 어쩔 수가 없다. 엄마,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싶고, 엄마의 손 한 번 잡고 싶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고 싶다.

지금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은 만큼이 '불효'였으리라. 모든 것은 지나간 다음에야 소중한 것을 아는 것 같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마음의 안락과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수행



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
바라밀!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십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저/ 정명스님 역
신국판 | 흑백 | 368쪽 | 13,8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증득을 위한 수행성취의 조건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닙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밀이다. 수행의 성취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야만 이뤄진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태국의 명상수행가인 Sujin Boriharnwanaket는 나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송(小誦)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붓다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김천 성전사 www.junmyeong.com 054-434-9090
비움과소통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 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참 건 강 생 활
회원모집

참건강 생활의 등대지기로 여러 불자님들께 정신과 육체적 편안함과 쉽고도 확실한 건강요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건강요법과 생명파동의 놀라운 위력과 신비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특전 및 교육과정

▣ 회원특전 1)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2) 현재 건강상태 점검 (파동요법). 척추교정
3) 주거환경탐사 (수맥파 유해전자파)
4) 자연건강 운동법, 맞춤형 자연식생활법.
5) 경제적 수익사업

▣ 교육내용 1) 자연건강법 강의 (매일 오후 2-3시)
2) 건강운동법 (6대 법칙 실습교육)
3) 파동특정 탐지법
4) 척추건강요법

▣ 파동의학 전문지도교수 : 박철용
現 하와이호놀룰루 대학 / 자연의학과 교수(초능력)
수맥과학대학 (파동학교수) 한국자연건강회(이사)
건강지도사 1급 자격.

상담 및 문의 02)739-5008. 010-2353-2010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

http://www.jbbulgyo.org/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 보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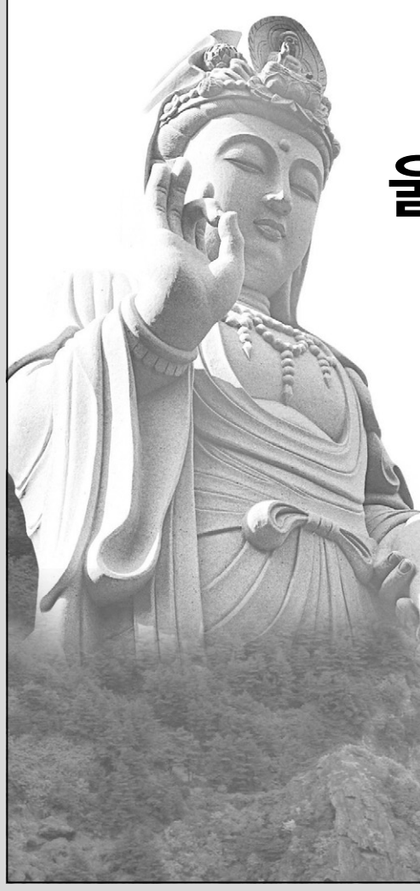
화엄불교대학 · 부설 룸비니 어린이집

원 감 **보 륭**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신도신행연합법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청년회 법회 – 매월 2 · 4주 수요일 오후 7시
- 화엄불교대학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학 림 원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불련 연합법회 – 매월 1 · 3주 금요일 오후 7시
- 운전자 불자 연합회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합창단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 063)277-3497 / FAX 063)275-0108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성인사 · 삼도사

주 지 **정비룡**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남서리 19 TEL 054)791-5011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도 광**

부 원 장	**도 안**	원로위원	**근 수**
총무국장	**혜 성**	원로위원	**수 종**
재무국장	**현 법**	종회의장	**혜 신**
규정국장	**정 수**	부 의 장	**송 헌**
사회국장	**청 각**	중앙종회의원	**승 천**
포교국장	**송 운**	중앙종회의원	**도 성**
교임국장	**행 담**	중앙종회의원	**진 성**
교육원장	**영 산**	중앙종회의원	**혜 신**
감사원장	**법 륜**		
포교원장	**승 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65-14
전화 063)285-9700 / 팩스 063)282-1536

(사)대한불교무량종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비룡불교대학
매주 일요일 강의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TEL 032)763-1237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 장 공병수

명 예 회 장 정금강행. 하도명화. 류진수

대한불교 조계종

법 계 정 사

주 지	원오스님
법 사	보광 이욱태
회 장	최문식
직전회장	배태순
부 회 장	송귀종. 박상덕 이평자. 김용원
인등회장	권선호
관음회장	최길문
지장회장	김순곤
연꽃법회장	이덕자
사무총장	최용진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부산불교인재원 로터스불교대학

운영위원장	지안스님		
학 장	공병수		
원 장	이욱태	총동문회장	김영일
총무처장	김순곤	1기 회장	이덕자
교무처장	장태석	2기 회장	이명숙
학생처장	최용규	3기 회장	유학재
대외협력처장	홍성옥	4기 회장	최문식
		5기 회장	김용원
		6기 회장	김위련

사무총장 이호열

염불선 수행 정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성 원 사**

주 지 **정 공**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TEL 033)661-5736
http//www.sungwonsa.org
■ 성정사(포교당)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4-5 033)642-0142
■ 성원유치원 TEL 033)642-0142

해동불광사

회주 **능 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247
TEL 051)508-7795
홈페이지 : 해동불광사

불기2557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The Happiest World is with the Buddha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온 세상에 찬란한 연꽃 가득한 이 기쁜 날을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합시다.

봉은사
www.bongeunsa.org

불기 2557 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힙시다



평화를 발원하는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전화 : (02)993-3161~3 팩스 : (02)993-3164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신도회장 대법성

부처님오신날을 봉축드리며
어둠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기를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三角山華溪寺

신행단체 정기법회 및 참선정진 법회

일요가족법회(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대적광전
청년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대적광전
나한대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2시	보화루
학생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보화루
어린이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제일선원
수선회첨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4시	대적광전
선우회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새벽3시	템플스테이체험관
일요영어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4시	템플스테이체험관
열린시민선방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9시	템플스테이체험관

주소 :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번지 http://www.hwagyesa.org / ☎ 02) 902-2663 / Fax : 990-1885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홍련암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주 지 무문
사부대중일동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관음회
· 보현회
· 의상회
· 선다회
· 정토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장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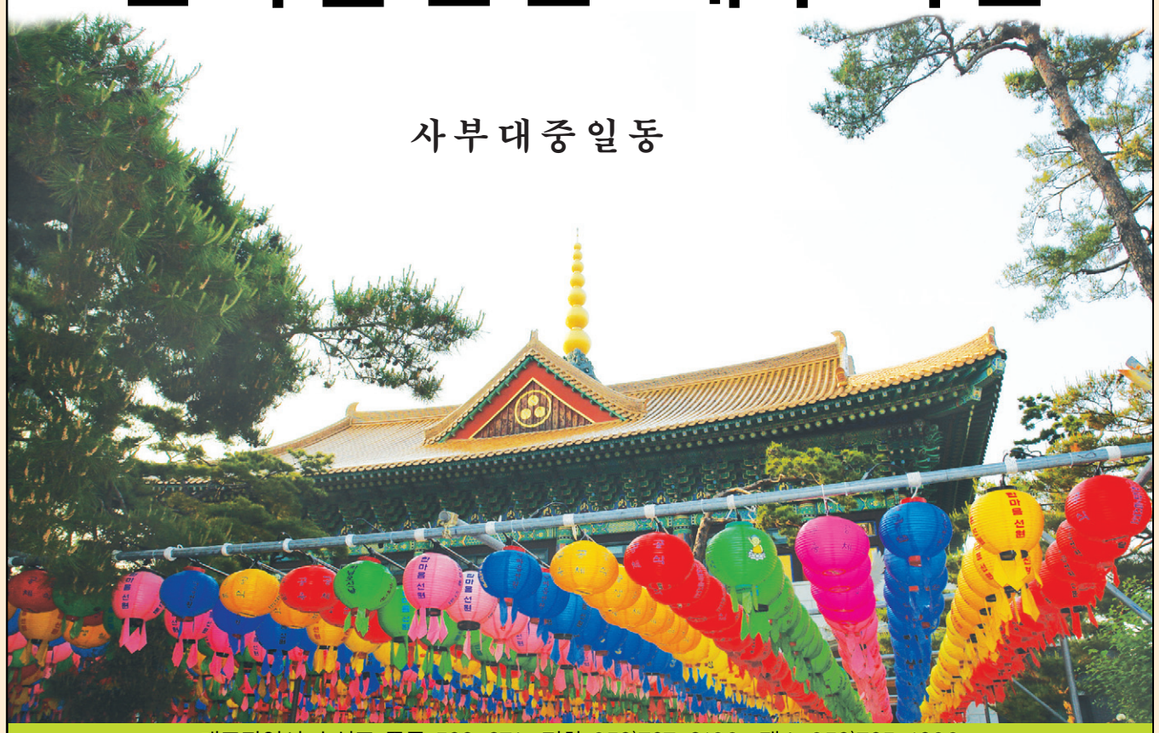
부 주 지 김월도
총 무 유대명
교 무 남진성
노 전 정회명
거사부전 김용국
신도회장 문광진

사부대중 일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137-900 / TEL 02) 3460-5340, FAX 02)3460-52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053)767-2100 팩스 053)765-1600